E 02-2021-03 | 2021. 12. |

제23권 제3호 KREI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포커스
최근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02-2021-03 | 2021. 12. |

제23권 제3호

KREI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에서는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정보"-"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최용호 yonghochoi@krei.re.kr 061-820-2191
  이슬아 lisa@krei.re.kr 061-820-2306

제23권 제3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포커스

- 최근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 3

2. 북한농업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19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55
- 북한의 기상 ····· 90

3.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 105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13
-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 118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 화폐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 ····· 135
- 상업은행의 대출 원천 타산과 이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 141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나서는 선차적 문제와 주요 방도 ····· 146

6. 부록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 153

PART 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포커스

◆ 최근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KREI

최근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김영훈[1)]

1 서언

중국의 개혁·개방과 구소련의 체제전환, 연이은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 이래 사회주의 북한 경제가 처한 일상적 모습은 고립에 따른 농성 경제체제,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 전반적인 저생산과 공급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경제 환경 하에서, 근년 국제적인 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 식량·농업부문의 문제를 추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제재 강화에 연이어 코로나 봉쇄로 경제 침체가 가중될 가능성
- 제재와 봉쇄로 식량과 농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중단되었을 가능성
- 수입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로 시장의 상품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 총체적인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으로 향후 식량·농업 분야의 단기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식량난이 지속될 개연성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현실 자료는 빈약하다. 다만, 제한적이지만 식량 수입, 식량 생산, 식량 가격, 비료 수입, 비료를 포함한 일부 농자재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지표를 이용해 상황을 추론할 수 있으며, 공개된 일부 자료를 통해 최근 농정시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지표와 자료를 통해 최근의 북한 농업과 식량 사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2 수량지표의 검토

2.1. 대중 식량수입

대중 식량 수입에 제재 강화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봉쇄의 영향은 뚜렷하다. 〈표1〉을 보면 2016년 이후 식량 수입은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으며 2020년 하반기 들어 격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16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크게 강화되어 주요 전략물자의 교역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식량은 영향을 받지 않아 그 후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곡물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은 2016년 2,900만 달러에서 2019년 1억 5,9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쌀과 밀가루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초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식량 수입은 급격히 감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020년 식량 수입은 3,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며,[2] 2021년에는 거의 중단되었다가 3분기 들어 소폭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표 1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액 (2015~2021년 3분기)

단위: 천 달러

연도	쌀 (1006)	밀가루 (1101)	보리 (1107)	옥수수 (1005)	대두 (1201)	계
2015	10,772	5,645	0	3,017	4,503	**23,937**
2016	24,845	2,536	0	1,010	557	**28,948**
2017	21,361	32,623	639	11,258	61	**65,943**
2018	24,634	63,047	1,003	1,138	881	**90,726**
2019	77,510	73,178	1,326	6,303	670	**158,976**
2020년 1분기	589	12,703	175	317	0	13,784
2분기	0	21,097	314	44	0	21,455
3분기	0	1,676	241	0	0	1,917
4분기	0	0	0	0	0	0
2020	589	35,476	730	361	0	**37,156**
2021년 1분기	0	0	0	0	0	0
2분기	0	0	0	0	0	0
3분기	0	0	306	0	3,400	3,706
2021 소계	0	0	306	0	3,400	**3,70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http://stat.kita.net, 접속일: 2021.12.10.)

2) 2020년 북한의 식량수입 감소에는 2019년 생산 증가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2.2. 식량 생산과 수급

식량 작물의 생산과 수급에 대해 2016년 제재 강화와 2020년 코로나 봉쇄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재 초기에는 식량 생산이 감소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식량 생산에 대한 제재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식량 생산 부문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농업 생산은 국내 부존자원(농지, 노동력) 의존도가 높고 외부요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2020년의 식량 생산 감소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상재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 생산에 있어 문제는 저생산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이래 식량 생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구 증가로 식량 소요량이 꾸준히 증가해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FAO가 추산한 북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10만~150만 톤이 부족하며, 남한의 1인당 곡물 수요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540만~600만 톤 부족하다.

그림 1 북한의 식량 생산 및 소요량 추이(201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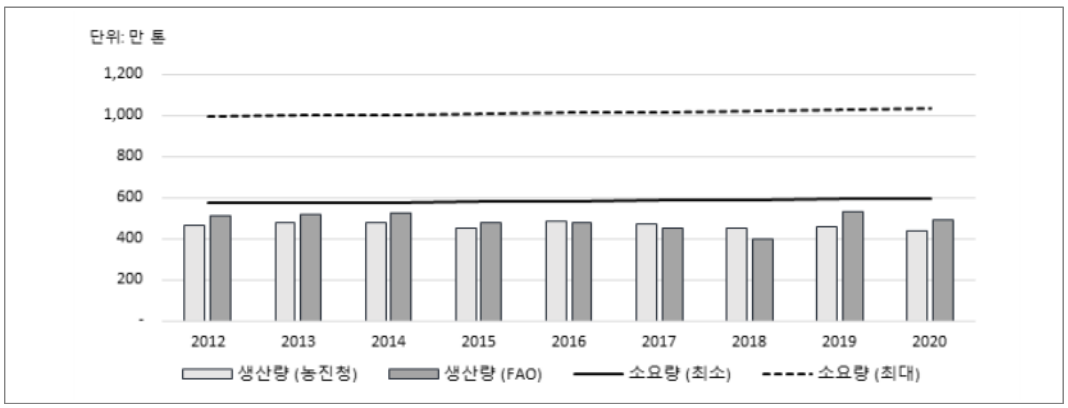


표 2 북한의 식량 생산 및 소요량 추이(2012~2020년)

단위: 만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	농진청[1]	467	480	480	451	482	470	455	461	440
	FAO[2]	513	521	526	477	478	452	397	529	489
소요량	최소[3]	573	575	578	581	584	586	589	592	595
	최대[4]	993	998	1,003	1,008	1,013	1,017	1,022	1,027	1,032

주: 1)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작황 추정에 관한 보도자료, 각년도
2) FAOSTAT; 단, 2020년 수치는 FAO의 2020/21년 수급 전망치 자료를 차용(FAO GIEWS Update, 14 June 2021).
3) FAO의 2020/21년도 북한 식량소요량 추정치를 이용(FAO GIEWS Update, 14 June 2021). 각 연도 수치는 인구에 비례해 산출.
4) 2020년도 남한의 1인당 곡물 총소요량을 북한 인구에 적용해 산출(국가통계포털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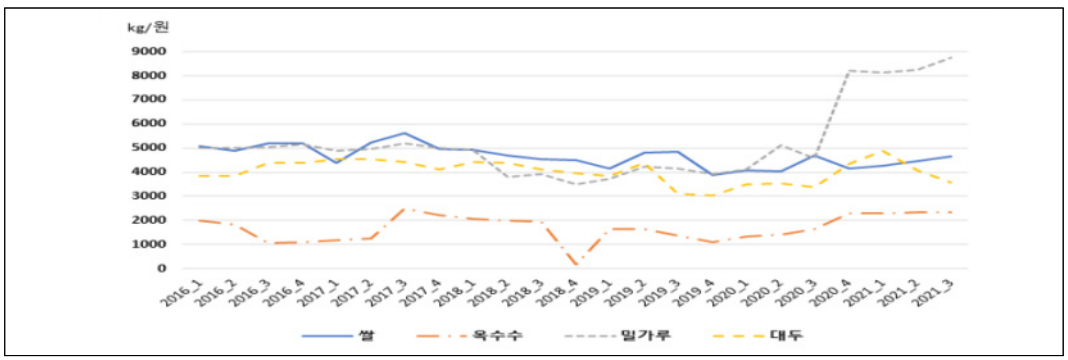
국제기구가 조사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를(FAO, Statistical Yearbook 2021)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북한의 식량수급 불균형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8~2020년 평균 영양부족 비율은 북한 전체 인구의 42.4%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8.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2000년대 초 35.7%에서 오히려 더 증가한 수치이다.

2.3. 식량의 시장가격

2016년 대북 제재는 북한 시장의 식량가격 변동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시장가격 동향을 보면 계절변동을 제외하고 모든 식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그림2).

2020년 이후 북한 시장의 식량 가격은 미세한 상승세를 띠고 있으나, 이것을 코로나 봉쇄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019년 말 하락했던 가격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밀가루의 시장가격은 2020년 말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봉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밀 작황 저조와 이에 따른 국제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북한의 주요 곡물 가격 추이(2016년 1분기~2021년 3분기)



주: 북한 내 6개 시장의 각 분기말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데일리NK 제공.

이와 같이 북한의 시장 식량 가격은 무역 제재와 코로나 봉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식량 가격 안정의 첫 번째 가능성은 수급 안정이다. FAO가 추정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상승했다면 식량 공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식량과 주요 전략물자의 경우 시장 거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이 크게 불안정해질 경우 이들 물자의 가격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개연성이 있다.

2.4. 화학비료 수입

북한의 식량·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재 중 하나는 화학비료이다. 중요한 농업생산자재인 화학비료의 연간 총공급에서 수입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비료의 원활한 수입은 북한의 식량 및 농업생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북 제재는 이러한 비료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이래 2019년까지 중국으로부터 화학비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봉쇄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3〉을 보면 2020년 대중 비료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해 전년도의 12.6%에 불과했다. 2021년 들어서는 전반기에 수입이 일시 회복되었으나 3분기 들어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 비료 수입 변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기대가 가능하다. 2021년 전반기 비료 수입 증가는 2020년 수입 감소와 재고 감소에 따라 선택된 봉쇄 해제의 결과로 추정된다. 비료 수입 감소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의 식량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거나 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21년 3분기의 수입 급감 현상이 중국의 비료 생산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면, 2022년의 비료 수입과 농업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표 3 북한의 대중 화학비료 수입액 비교(2015년 1분기~2021년 3분기)

단위: 천 달러

연도	N(3102)	P(3103)	K(3104)	기타(3105)	합계
2015	17,926	0	28	1,547	**19,501**
2016	33,042	26	67	4,482	**37,617**
2017	30,738	0	29	5,887	**36,654**
2018	80,744	3	49	3,979	**84,775**
2019	29,944	0	138	13,035	**43,117**
2020년 1분기	150	0	0	1,046	1,219
2분기	2,520	0	0	664	3,165
3분기	1,020	0	0	50	1,070
4분기	0	0	0	0	0
2020	3,690	0	0	1,760	**5,450**
2021년 1분기	5,040	0	0	4,183	9,223
2분기	6,127	0	0	8,842	14,969
3분기	0	0	0	15	15
2021 소계	11,167	0	0	13,040	**24,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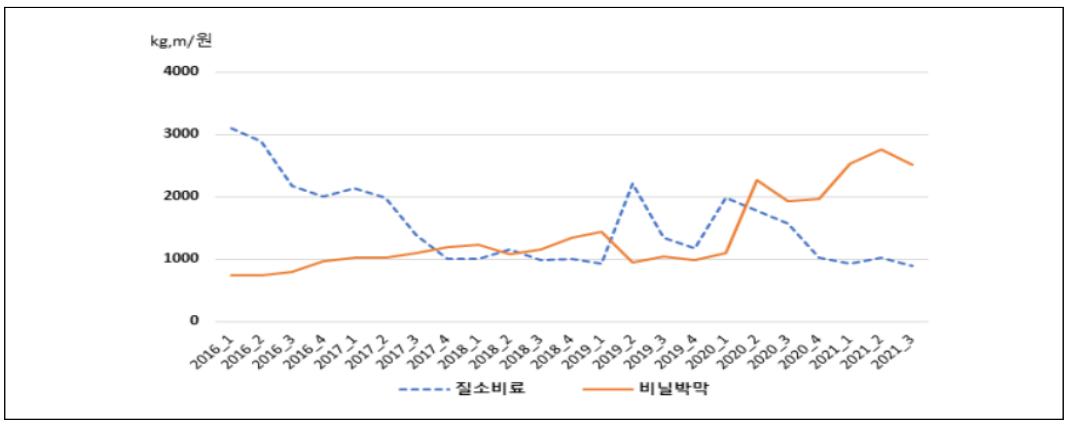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http://stat.kita.net, 접속일: 2021.12.10.)

2.5. 화학비료 시장가격

화학비료의 시장가격 역시 2016년 제재 강화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료의 시장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2020년 코로나 봉쇄의 영향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9년 일시적으로 가격 등락이 있었지만 2020년 들어 다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3).

이와 같이 비료 가격도 식량과 마찬가지로 일시 부침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반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비료 수급이 안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2016년 이후 석탄 수출 금지에 따라 화학비료 생산에 잉여 석탄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국내 비료 생산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개입으로 가격 통제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화학비료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수입과 공급 감소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견되면 시장가격을 통제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략물자가 아닌 비닐박막의 가격 상승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그림3).

그림 3 비료와 비닐박막의 시장가격 추이



주: 북한 내 6개 시장의 각 분기말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데일리NK

3 2020년 이후 농정 전략과 키워드의 변화

2016년의 제재 강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북한은 국경봉쇄를 단행했다. 이는 북한 경제와 농업에 부정적인 쇼크를 주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 생산, 시장지표로 판단할 때 상반되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근 북한이 공개한 농정 전략과 농정시책의 키워드를 검토하면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위기를 맞았던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농정 전략은 대개 위기를 맞아 실천적 농정으로 변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의 농정시책 키워드는 '고난의 행군', '농업은 경제건설의 주공전선', '작물 다양화', '우량 종자 공급', '감자 재배 확대', '풀먹이 집짐승', '대규모 물길 건설' 등 농정 전략과 시책들의 실사구시 전환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안정기에 접어든 2012년에는 경제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농정 전략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개혁과 전환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농정 키워드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조응해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포전책임담당제', '농업과학기술', '농업개발구 설치', '황폐산림 복구' 등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2020년 들어 북한의 경제 및 농업정책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과거로 회귀하는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2020년 초 개최되었던 제8차 당대회와 그 후속 회의에서 등장한 중요한 키워드는 '농업부문 계획은 허풍', '제2의 고난의 행군', '자력갱생' 등이었으며, 2021년 9월에 행한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는 농업발전전략으로 9개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농업과 식량부문의 정책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3)]

4 진단, 전망, 정책과제

4.1. 진단

이용 가능한 수량지표로 판단할 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봉쇄 효과로 식량과 농자재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 수입 감소로 인해 10여만 톤가량의 공급 감소가 나타났지만,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중이 작아 식량의 총공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0년 식량 생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봉쇄에 따른 생산 감소라는 간접적 영향과 이례적으로 높았던 전년도 생산 수준의 기저효과가 함께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김정은 위원장은 이 시정연설에서 "인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시기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농업발전전략으로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벼, 밀·보리 농사로 방향전환 구상', '새로운 수매의 전형단위와 본보기단위 창조' 등 9개 시책을 정리해 제시한 바 있음(이 글의 후미 부록 참조).

가장 중요한 농업투입요소인 화학비료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비료 총공급에서 수입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작년과 올해 비료의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만, 비료의 시장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 국내 생산 증대 개연성과 시장가격 통제 개연성이 추정된다.[4)]

이와 같이 수량지표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정황들은 북한의 식량·농업 부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 각종 회의나 담화 속의 농업·식량 부문 정책 변화와 최근 FAO가 발표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보면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4.2. 전망

단기적으로 2021/22년 식량 수급은 올해에 비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화학비료 수입량이 증가해 투입재 공급 사정이 개선되었고 기상 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또한 엄혹한 상황에서 증산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높은 강도로 기울였을 것이므로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코로나 봉쇄를 풀더라도 북한의 농업 생산과 식량 증산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과거 북한 농업을 저생산 상태로 만든 이유와 다르지 않다. 국내 산업의 위축과 외화 부족으로 기본적인 투입재조차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해 농업생산기반, 시설, 기계를 갱신하거나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 황폐, 경사지 개간, 하상 상승으로 농업생산에 기상피해가 일상화되고 있다. 정부는 무리한 농정시책으로[5)] 개인은 무분별한 소토지 개간으로 토양보호와 국토보전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위기 이후 30년간 북한의 식량 생산은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식량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4.3. 정책과제

북한 경제와 농업의 근본 문제는 '부진한 개혁'과 '자본의 부족'에 있다. 개혁은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부족한 자본은 북한 스스로의 역량으로만 조달하기 어

4) 전략품목(식량, 화학비료, 에너지 등)에 대한 선택적인 시장가격 통제가 있을 경우 가격 안정과 수급 상황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식량은 국내 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입 비중이 매우 낮지만 화학비료는 총소요량에서 수입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임.

5) 유기 및 무기비료의 충분한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옥수수 농사 확대와 이모작 확대는 농지 약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염소와 같은 초식가축의 대규모 사양도 인근의 토지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렵다. 실효성 있는 자본 조달을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또 그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농업분야의 대북 협력은 '북한의 농업발전'과 '호혜적인 경협'을 함께 고려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협력 정책과제로는 '개발 촉진을 위한 물자지원(식량 및 비료) 프로그램'의 준비와 추진이다. 이는 대북 개발원조를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계가 깊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었던 '미공법 480호' 제3관의 개발지원사업을 참조할 수 있다. 농업분야의 상업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면밀히 준비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방식의 농업협력단지(특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교류·교역·투자의 장애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4대 경협합의' 후속 협상 착수와 입법 추진이다. 장차 남북 간에 상업적 교역을 촉진하면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통일 전 동서독 간 교역에서 시행되던 '스윙 차관 시스템' 도입 기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차 이루어질 남북 간 교역에서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부록 〉

북한 농업발전전략의 주요 농정시책과 검토[6)]

☐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 정책의 주요 내용

- 품종배치, 파종시기 조절, 선진영농기술과 방법 연구 적용
- 물문제 해결, 과학적 물관리체계 – 관개구조물, 설비, 저수지, 물길 정비보강
- 기상관측수단 현대화

○ 정책에 대한 검토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에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중부 이남에서만 생산 가능했던 작목이나 품종의 생산이 가능해짐. 곡물의 이모작이나 밭작물의 다모작이 확대될 수 있음. 농업용 에너지 소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재해성 이상기후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 이전까지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기상변화(가뭄, 폭우, 폭풍, 고온 등)로 인해 작물 생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의 대응과 적응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정책 방안들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들이 자본, 물자, 기술, 전문지식이 필요해 북한의 현 상황에서 획기적 수준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움.
- '품종의 재배치'와 '파종시기의 조절'은 자본의 추가공급 없이 가능함. 그러나 이 방책은 단기적인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는 없음. 언제 발생할지,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돌변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작목과 품종을 바꾸어 식재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임.
- 따라서 '품종의 재배치'와 '파종시기의 조절'은 단기적인 재해성 이상기후의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일 개연성이 높음.

6) 김정은 시정연설에 포함된 주요 농정시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평양 중앙통신, 2021.9.30.)

☐ 소출이 높은 종자의 육종과 개량

○ 정책의 주요 내용

- 우량 종자의 개발과 공급

○ 정책에 대한 검토

- 1990년대 식량위기 이후 지금까지는 우량 옥수수 종자와 씨감자 공급을 주로 강조해 왔음.
- 이번에는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추어 기상변화에 대한 적응 품종, 기름·당 작물 품종, 밀·보리 종자의 개발과 공급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됨.

☐ 벼농사와 밀·보리 농사로 방향 전환 구상의 피력

○ 정책의 주요 내용

- 논벼와 밭벼 재배면적 확대
- 밀·보리 파종면적 2배로 확대

○ 정책에 대한 검토

-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곡물의 이모작 면적을 크게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실질적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생산요소(특히 비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모작 확대는 필연적으로 농지 토양의 약탈을 수반할 것임.
- 둘째, 농기계, 운반수단,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 농촌의 현실에서는 모든 농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음. 기계동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북한 농장들은 밀·보리 수확과 벼·옥수수 식재기 동안 집중될 농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한다면 수확후 손실 증가는 불가피함.
-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북한 지역의 이모작 가능지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기후상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음.
- 넷째, 밭벼 재배면적 확대는 다른 밭작물 재배면적의 축소를 의미함. 한정된 농지자원에서 남새 및 과수원 전문농장의 확대, 특용작물 생산 확대를 꾀하는 농업정책과 상호 배치될 수 있음.

☐ 축산부문 대응

○ 정책의 주요 내용

- 사료단위를 낮추기 위해(곡물사료 요구를 낮추기 위해) 염소, 소 마리수를 증대, 토끼사육 전군중운동으로 전개
- 젖생산 3배로 확대
- 수의방역사업 개선

○ 정책에 대한 검토

- 곡물 사료를 절약하기 위한 소, 염소, 토끼 사육에 대한 북한 농업의 정책적 강조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일로서 새로운 것이 아님. 현 상황에서 소 사육 증대는 곡물사료 증투 없이 불가능하며, 염소 사육 증대는 산림녹지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한계가 있음. 토끼 사육 군중운동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새롭지 않음.
- 젖생산 3배 확대도 소, 염소 사육 확대 혹은 사료 공급이 보장되어야 가능함.
- 수의방역사업의 개선 역시 자본, 물자, 기술, 전문지식이 필요함. 북한의 현 상황에서 획기적 수준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임.

☐ 과일 및 남새

○ 정책의 주요 내용

- 집약화, 대규모 전문농장 건설
- 기름, 당 등 공예작물 생산 강조

○ 정책에 대한 검토

- 과일 및 남새 전문농장 건설은 시범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기름작물(콩, 유채, 땅콩, 참깨, 들깨) 외에 새로운 작물의 재배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최근 거론되는 해바라기, 유모란, 수유나무, 기름밤나무 등의 식재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생산 증대는 가능할 것임.

☐ 농업부문의 새로운 전형단위, 본보기단위 창조

○ 정책의 주요 내용

- 국가적 수요를 보장하면서도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게 수매방법을 개선

○ 정책에 대한 검토

- 식량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적 수요 보장을 위한 식량 수매 확대'와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인센티브 농민분배 확대'는 대립되는 정책임.
- 이를 위한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를 만들어 이 농장들에 투입재를 특별공급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북한 농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움. 이는 이미 2012년 '포전담당책임제' 이래 시행되었던 정책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님.
- 특히 시정연설 내용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 본성에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라고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식량의 분배·수매 방식 개선 시도에는 명백한 이념적 제약이 있음.

☐ 농업 관련 과학기술 육성

○ 정책의 주요 내용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한 해결을 요하는 과학기술문제(예를 들면 농업과학기술)를 시급히 해결
- 우량 종자의 육종과 개량, 선진영농기술과 방법 연구, 수의방역사업 개선, 기상관측수단 현대화

○ 정책에 대한 검토

- 모두 자본, 물자, 기술,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정책임. 북한의 현 상황에서 획기적 수준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임.[7)]

7) 기타 농정시책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농촌 개변'과 '농업 관련 국토관리'에 관해서는 검토 생략

PART 2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의 기상

KREI

북한매체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농업 정책

◆ 김정은의 현지지도 및 북한 주요간부의 현지파악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08.01)

○ 김덕훈이 평안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요해하면서, 문덕, 숙천, 대동군 농장들도 돌아보았음.

- 김덕훈은 농업지도일군들이 올해 농사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지속되는 폭염과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농작물들의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함으로써 안전한 수확고를 담보할 데 대하여 강조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도안의 농장들이 생육후반기비배관리에 집중하고 경제지도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작전과 지휘를 현실에 보다 접근시키고 부문, 단위들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원활히 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음.
- 이밖에도 김덕훈은 남양제염소,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을 방문함.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로동신문, 08.07)

○ 김덕훈이 평안남도 안의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건재, 농업 등 여러 부문의 단위들을 현지에서 요해함.

- 김덕훈은 북창군과 덕천시의 여러 협동농장의 당면한 영농실태와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막이 정형을 점검함.
- 이밖에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순천제약공장, 보산제철소 등을 방문하였음.

김덕훈 내각총리 함경남도의 큰물피해복구사업 현지료해(로동신문, 08.12)

○ 김덕훈이 함경남도 영광군, 신흥군, 단천시, 홍원군의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홍수피해 복구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홍수피해복구 중앙지휘조의 작전과 지휘를 현장에 접근시켜 복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고 해결해주는 문제, 물에 잠겼던 농작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우는 문제, 앞으로 예견되는 폭우와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병행시키는 문제 등을 토의함.
- 한편 김덕훈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생산토대를 보강확대하는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로동신문, 08.21)

○ 김정은이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사업을 현지지도, 현지에서 정상학, 조용원, 리히용을 비롯한 간부들과 건설에 참가한 단위의 지휘관, 책임일군들이 맞이함.

- 김정은은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영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의 건축발전과 우리 당의 건설정책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함.
- 이어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미학성에서 뿐아니라 매 주택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통수단 배치와 보통강반의 공원들을 더 잘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보통강의 수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세울 것을 촉구함.
-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를 심의할 것을 지시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로동신문, 09.03)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9월 2일 단중앙위위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총비서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함.

- 먼저 전국적인 국토관리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고 도, 시, 군들의 역할을 높여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함.
- 최근 위험도수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이상기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5개년 계획기간에 강하천정리와 사방야계공사, 제방보수와 해안방조제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정상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함.

- 이밖에 가을걷이와 탈곡에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양곡수송과 가공, 공급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함.

김덕훈 내각총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09.15)

○ 김덕훈이 룡천군 학흥리와 동하리, 염주군 내중리를 돌아보면서 당면한 농사실태를 점검하였음.

-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여 논밭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집중함으로써 다음해 농사준비도 예견성있게 갖출 것을 지시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가을걷이와 탈곡에 역량을 총동원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경영관리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와 보통강반의 공원들에 대한 원림록화를 주변풍치와 어울리면서도 독특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었음.
- 한편 김덕훈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아 연구형대학, 일류급대학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실행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도 협의함.

김덕훈 내각총리 농업, 경공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09.24)

○ 김덕훈이 농업, 경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김덕훈은 숙천군, 평원군, 사리원시, 황주군, 재령군, 연안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황해남도 안의 여러 농장을 돌아보면서 농작물의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알곡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것과 함께 노동력과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와 탈곡을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고 건조와 보관에 힘을 넣어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농업부문 일군들이 다음해 농사준비를 예견성있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밀, 보리 파종면적을 늘이고 씨뿌리기와 비배관리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함.
- 한편 김덕훈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일용품공장, 보통강신발공장, 평양인견사공장도 방문하였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로동신문, 09.30)

○ 김정은이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회의에 참가하여 참가한 대의원들을 축하하고 격변하는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였음.

-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농업발전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이상기후에 견뎌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함.
- 농작물 배치를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파종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과학적인 물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설정하는 한편,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군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며 사료단위를 낮추고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함.
-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는 농업부문의 새로운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수매방법을 바로 정하고 옳게 실시할 것을 지시함.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10.15)

○ 김덕훈이 평안북도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함.

- 곽산군 초장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공정별로 알심있게 하여 애써 가꾼 곡식을 적기에 말끔히 거두어들일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정주시, 곽산군, 박천군의 양정사업소들에서 김덕훈은 공화국 정부의 시정방침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시, 군양정사업소들을 잘 꾸리고 양곡가공공정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전개하며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농장들에서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다음해 농사준비를 빈틈없이 하며 양정사업소들에서 낟알건조와 보관, 가공의 질적수준을 보다 높일데 대하여 강조함.

김덕훈 내각총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기간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로동신문, 10.19)

○ 김덕훈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기간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를 돌아본 김덕훈은 제철, 제강소들에서 철강재 생산의 지속적 장성을 위해 설비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생산공정의 집약화를 완강하게 밀고나가며 에너지 절약형 제철산업에 대하여 언급.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공장의 생산실태를 요해한 김덕훈은 자체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기술개조사업을 농업, 경공업, 제약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기초화학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 데 대하여 언급함.

- 장진강발전소를 돌아보면서 수력구조물 보강과 발전기대보수를 질적으로 하며 물확보를 잘하여 전력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공업도들이 들고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특히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함.
- 한편 김덕훈은 금야군의 농사형편과 고원군 양정사업소 양곡가공공정의 현대화사업, 신흥군의 홍수피해 복구정형을 점검함.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로동신문, 10.27)

○ 10월 26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김덕훈의 지도아래 전형철, 박정근을 비롯한 내각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직속기관, 성기관 일꾼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방청함.

- 회의에서는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총화하고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며 올해 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음.
- 3/4분기간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일련의 결함과 편향들을 자료적으로 통보하고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경제지도 일꾼들의 무책임한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뿌리 뽑을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보고에서는 연말 경제조직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기어이 완수하여,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데 대하여 강조함.

김덕훈 내각총리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료해(조선중앙통신, 11.02)

○ 김덕훈이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의 완공단계에 들어선 송신, 송화지구를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지어진 거리의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김덕훈은 완공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단위별, 대상별에 따르는 공정계획을 집행하며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마감공사와 원림록화의 질적수준을 보장할 것에 대해 언급함.
- 한편 김덕훈은 순천시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순천시 풍탄협동농장, 평리협동농장과 양곡판매소를 돌아보면서 김덕훈은 벼종합탈곡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함.
- 또한 양곡판매소 운영을 짜고들며 다음해 농사준비를 실속있게 해나가는데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지적함.

최룡해 위원장 평안북도 창성군과 태천군을 현지료해(로동신문, 11.06)

○ 최룡해는 평안북도 창성군과 태천군의 여러 단위를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최룡해는 창성군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의 축산실태와 올해 농사결속, 다음해 농사차비정형을 알아보면서, 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고 적극 일반화하며 농촌특유의 문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켜 나갈것에 대해 언급함.

- 군들의 식료공장, 종이공장과 창성군마대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정권기관과 행정경제기관 일꾼들이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지방의 원료, 원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그 질적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당의 시, 군강화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일꾼들이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되었으며, 모범준법군칭호를 비롯한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결부하여 벌려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이 강구됨.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11.09)

○ 김덕훈이 황해남도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김덕훈은 봉천군,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벽성군, 신천군의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탈곡과 건조, 보관 정형을 살피고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게 하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예견성있게 내밀데 대하여 언급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일 데 대한 문제, 벼종합탈곡기, 이동식벼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을 위한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울 데 대한 문제, 다수확농민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잘할 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함.

-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와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을 현지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함.

김덕훈 내각총리 강원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11.14)

○ 김덕훈이 강원도의 수산부문 사업과 지방공업공장건설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김덕훈은 통천수산사업소와 송도원수산사업소,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 신평발전소 건설현장 등을 방문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고기배들의 기술관리와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어로전

을 련속적으로 벌리는 문제, 물고기잡이와 하륙, 랭동, 보관 등 제반 공정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과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건설을 정해진 기간에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토의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였다(로동신문, 11.16)

○ 김정은이 삼지연시 건설사업 결속과 관련하여 3단계 공사실태와 삼지연시를 현지지도 하였으며, 여기에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김재룡, 박훈과 건설부문 지도간부들이 동행함.

-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어온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올해로 결속됨. 삼지연시 읍지구완공에 이어 백두산밀영동, 리명수동, 신무성동, 5호물동동, 포태동과 중흥리, 흥계수리, 소백산리, 백삼리, 보서리, 통신리를 비롯한 삼지연시의 10여개 동, 리들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공공 및 생산건물, 교육시설, 상하수도계통, 도로와 원림록화, 송전선계통을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가 결속을 앞두고 있음.

- 김정은은 3단계로 건설한 백두산밀영동지구, 리명수동지구, 포태동지구의 주택들과 교육시설, 문화후생시설들, 답사숙영소와 중흥농장지구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대상들을 현지지도하면서 삼지연시건설공사정형과 도시경영실태, 농사실태를 전면적으로 요해함.

- 김정은은 삼지연시 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시켜 지방건설발전과 문명한 전사회 건설을 다그치는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지방의 건설역량과 설계역량을 급속히 강화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현시기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선결적문제로, 전략적과업으로 된다고 말함.

김정은,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10(2021)년 11월 18일– (로동신문, 11.19)

○ 김정은이 11월 18일 진행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서한을 보냈음.

- 서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길은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정할 것을 밝히면서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자는 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함.

- 전국의 200여개 시, 군들이 3대혁명의 기치높이 용을 쓰며 일어나게 되면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농촌들이 현대적인 기술과 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될 것이라며, 특히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시, 군들에는 훈장과 표창을 수여할뿐 아니라 국가적인 우대조치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면서 무슨 일에서나 총화평가가 공정하고 상벌관계가 명백해야 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뒤자리를 차지하는 시, 군당책임비서들, 3대혁명붉은기단위대렬에서 제명되거나 칭호를 박탈당한 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함.

◆ 과학영농

연구도입성과는 량심으로 담보해야 한다–농업연구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로동신문, 09.14)

○ 최근 농업부문에서 도입되고 있는 나노규소비료는 김철진을 비롯한 농업나노기술연구소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하였음.

- 올해 연구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농사에 나노규소비료를 도입하는데서 필요한 나노복합재료와 계면활성제 보장에 대한 과업을 부여받고 최성룡 소장을 비롯한 농업나노기술연구소 과학자들은 나노복합재료와 계면활성제를 최단기간에 생산하기 위한 설비점검을 진행함.
- 전명호를 비롯한 연구소와 시험공장의 과학자들이 설비개조에 진입하여 나노복합재료생산공정을 새로 구축한 결과 품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나노복합재료가 생산되었으며, 제품들에 성분조성표를 달아 각 도들에 공급하고 있음.
- 이어 연구소에서는 직접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그리고 함경북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하여 도들에 갖춰진 생산기지들을 찾아 나노복합재료와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나노규소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 질적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심화하였음.

알곡수확고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대책 강화(로동신문, 09.15)

○ 각 도 농업과학연구소들에서 가을걷이 전까지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액체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어느 한 단위에서 개발한 광합성 강화제를 비롯하여 낟알의 여문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도입함.
- 평안북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벼뿌리활성을 최대로 유지하도록 효과적인 물대기 방법들을 보급하였으며, 요소, 인·비료들을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보장하는 등 생물활성제들을 현장에서 만들어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함.
- 황해남도 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화상회의와 먼거리 영농기술 문답봉사체계를 통하여 변화되는 이상기후조건과 그에 맞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기술지도를 강화함.
- 함경남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도 자체로 만든 다원소광물질비료를 비롯한 비료들과 천알질량을 늘이고 여문률을 높이는데 좋은 성장촉진제들을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도입하였음.

농업발전을 추동해간다-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내나라, 09.29)

○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 나라의 농업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음.

- 연구소에서는 벼모가 모판에서 자라는 전기간 비료를 주지 않고도 모가 자랄 수 있게 하는 벼 모판 종합영양제를 개발완성 하였음. 도입 결과 정보당 생산량이 400㎏ 이상 더 증수되었음.
- 굼벵이, 갈색방아벌레를 비롯한 땅속 해충들을 90% 이상 구제하여 종자를 보호하고 작물의 정보당 소출을 훨씬 늘일 수 있는 현부제형 종자피복제는 사용량이 매우 적고 방법이 간단함.
- 김매기에 효과적인 현부제형 혼합살초제와 불리한 재해성 이상기후 속에서도 논벼, 강냉이, 감자 등의 정보당 생산량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천연유기질영양액비료도 개발함.
- 최근에는 친환경농약들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10여 가지의 농약제품 물성 측정 방법을 규격화 하였음.

효능높은 식물활성비료(내나라, 10.03)

○ 농업연구원 공예작물연구소에서 식물활성비료 《갱생1》호를 개발하였음.

- 여러 아미노산과, 풀보산과 같은 유기산에 필수적인 다량 및 미량원소들과 희토류원소 등을 배합한 이 비료는 알곡 및 야채 생산량을 정보당 각각 110%, 1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광합성능력과 뿌리의 활성을 제고하여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가뭄, 고온, 냉해 등에 대한 견딜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작물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여러차례 시비하면 수확고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지난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비롯한 여러 농업생산단위들에서 확정됨.
- 정보당 사용량이 적고 사용방법이 간단한 이 비료는 과일나무, 화초, 잔디재배에서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버섯재배의 공업화실현에서 한몫하는 연구기지-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로동신문, 10.23)

○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최근 년간 연구소에서는 계절별로 키울 수 있는 근 20종의 우량한 버섯품종들을 육종해내고 그 재배기술을 확립함.

- 새 품종들 가운데는 봄, 가을, 겨울철 재배에 적합한 품종들은 물론 맛과 영양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일러주는 생복느타리버섯과 솔송장수버섯, 주머니버섯, 검정버섯, 노란느타리버섯 등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들이 있음.
- 한편 중앙버섯연구소는 김정은의 영도에 의해 착공 후 3개월 남짓한 기간 준공됨.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되고 각종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제품보관실, 버섯재배장 등 버섯연구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음.

- 김정은이 2013년 10월 현지지도한 바 있는 연구소에서는 지난 기간 여러 식용 및 약용버섯 품종들을 연구확정하여 전국의 버섯재배 단위들에 공급해오고 있음.

우량한 밀, 보리품종육종을 전망성있게-농업연구원 밭작물연구소(로동신문, 11.02)

○ 농업연구원 밭작물연구소에서 우량한 밀, 보리품종들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새롭게 혁신해나가고 있음.

- 리정수 소장은 밭작물연구소에서는 밀연구실과 보리연구실을 각각 신설하고 육종경험이 풍부한 젊은 연구사들을 배합하여 연구역량을 구축한 결과 올해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3개의 밀, 보리계통을 선발해냈고, 우량한 밀, 보리종자들도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빵 생산용 밀 품종을 비롯하여 여러 용도에 알맞는 밀, 보리 종자들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전진을 이룩함.
-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육종연구에 받아들이기 위해 생물공학연구실도 새로 신설. 밀, 보리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에서 집중성이 보장되고 연구사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사업이 진행됨.
- 연구소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에 견뎌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집중하였으며, 과학평의회도 재해성 이상기후에 따라 개체들에서 나타나는 각이한 특성들을 연구분석하고 그에 적응된 품종을 육종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 토론과 논쟁의 마당으로 전환하였음.

큰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정보체계 개발도입(로동신문, 11.05)

○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와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수력발전소의 자연재해 예방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홍수관리 정보체계를 개발·도입하였음.

- 이번에 저수지 유역의 비내림 상황에 따르는 저수지와 물길들의 수위변화와 강수량을 사전에 예측조절할 수 있는 정보체계 개발·도입으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전력생산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지난 3월에 연구에 착수하여 공간정보자료들에 대한 연구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자료기지 작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홍수조절 모의예측방법을 확립함.
- 정보체계의 연동시험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해당 수력발전소에 홍수재해 관리정보체계를 개발·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함.

농업생산의 정보화(로동신문, 11.14)

○ 현시기 농업부문에서 최신정보기술과 정보통신수단들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

- 포전전자지도와 농작물생육 모의기술을 비롯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작물과 품종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포전별, 시기별 영농공정 집행정형과 농작물의 생육상태, 병해충 발생과 가물 등에 의한 재해실태, 작황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들이 이룩됨.
- 필지별 영농 세부계획 작성 프로그램 《구슬땀》을 비롯한 정보기술제품들이 널리 도입되어 농업생산의 정보화 토대가 일정하게 구축되었음.
- 농업과학기술보급 홈페이지 《황금벌》과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프로그램 《황금열매》를 이용한 과학기술보급과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가 진행되어 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들,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이 농업과학기술보급과 경험교류, 현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토의에서 연계를 보장함.

기술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원산시량정사업소(통일의 메아리, 11.24)

○ 강원도 원산시양정사업소에서 볏겨를 연료가 아니라 원료로 전환시키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뒀음.

- 과학기술보급망을 통하여 앞선 재자원화기술들을 참고하면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볏겨가공기술을 확립하도록 한 결과, 볏겨가공을 위한 설비들을 제작하고 집짐승먹이와 농약 생산공정을 완비함.
- 이들이 순수 볏겨를 가지고 만든 집짐승먹이는 소화흡수율에 있어서 알곡먹이에 못지 않고 볏겨로 생산한 농약도 그 효과성이 높음.
- 나아가서 낟알가공부산물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 중에 있음.

다음해 농업생산장성을 위한 과학기술적대책 강화(로동신문, 11.25)

○ 전국 각 도 농업과학연구소들에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량한 논·벼 품종과 밀 품종 육종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기광물 복합영양제와 다기능 종자피복제를 대량 생산하여 시, 군들에 보장할 수 있게 생산공정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의 원료를 이용하여 칼륨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적 담보를 마련하고 생산공정을 구축해가고 있음.
- 평안남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올해 박막을 이용하지 않고 볏모를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재배기술을 연구·도입함. 도의 주요 알곡 생산지들에 파견된 연구소 과학자들은 해당 지역의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십 건의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새롭게 도입한 결과 수만t 알곡이 증수되었음.

- 평안북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올해 지역별 다수확품종들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집중했으며, 다음해부터 다수확품종배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에서 창조된 우수한 농사경험과 선진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자료를 갱신함.
- 황해남도 농업과학연구소에서도 우량한 내염성 벼 품종과 밀, 보리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개선을 이룩하고, 저수확지에서 알곡 소출을 높일 수 있게 재배기술지표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올해 안에 끝낼 것으로 예상됨.

2 농림축산업

◆ 농업

농업부문에서 병해충피해막이대책 강화(류경, 08.06)

○ 각급 식물방역 단위들에서는 담당지역에 나가 예찰초소들을 전개하고 필요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면서 메뚜기, 2세대 벼 대벌레, 강냉이 대벌레 등의 발생 방지사업에 집중함.

- 평양시와 평안북도의 식물방역소들에서 농작물이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생육시기 별에 따르는 방역사업을 선행시켰으며,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의 식물방역소들에서도 살충력이 강한 벼짚우림액, 목초액 등을 만들어 병해충 피해막이에 이용함.
- 강원도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초당주액에 의한 해충유인방법을 병해충 피해막이에 이용함.

각지 농촌들에서 가을남새씨뿌리기 한창(류경, 08.16)

○ 각지 농촌들에서 가을무 씨뿌리기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배추모 옮겨심기도 본격 진척되고 있음.

- 평양시 농장들에서 수천 정보의 밭에 관수체계를 갖추고 필지별, 품종별에 따르는 부식토, 비료의 배합비율을 지키고 관수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씨뿌리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평안남도 순천시, 덕천시, 문덕군, 증산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앞그루작물 철수를 위한 일별계획을 세우고 수확하는 대로 밭정리를 진행하면서 씨뿌리기를 매일 수백 정보씩 진행함.
- 황해북도 사리원시, 연탄군, 남포시의 강서구역, 천리마구역 등지에서는 고랑관수, 청풀깔기 등을 하고 각종 병충해피해를 없애기 위한 사업에 집중함.
- 자강도, 강원도 등지에서는 유기질 거름내기를 하고 종자선별과 소독을 하면서 씨뿌리기를 진행함.

기름문제해결을 위해 투쟁-자강도(통일의 메아리, 08.21)

○ 자강도에서 해바라기를 기름작물의 기본품종으로 정하고 그 재배를 하여 먹는기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피마주를 재배하여 비누를 비롯한 여러 소비품을 생산함.

- 고풍군에서는 월명리지구 하천제방공사를 진행하여 얻어낸 새땅과 읍지구와 농촌리들의 비경지, 가정세대들의 텃밭 등에 해바라기 심기를 진행함.
- 송원군에서는 해바라기를 재배하고 있는 월숭리와 회련리, 원대리와 양지리의 경험을 다른 리들에 적용함.
- 희천시와 우시군, 동산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기름작물들에 대한 비배관리와 기름생산의 실수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개조함.

매일 수천정보의 강냉이가을걷이 진행-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09.18)

○ 황해남도에서 옥수수 수확을 본격화하여 매일 수천 정보의 가을걷이를 진행함.

-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윤전기재들을 옥수수 수확에 투입하고 하루강냉이수확면적과 담당할 농장들을 확정함.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포전별특성과 작업조건에 맞게 일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시기 수확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알반화 하였음.

양강도에서 감자캐기에 역량 집중(조선의 오늘, 09.23)

○ 양강도 농장들에서 감자캐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감자를 수확하고 있음.

- 삼지연시의 흥계수농장에서는 등판과 덕지대로 이루어진 포전조건에 맞게 감자수확기의 실동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120%로 수행함.
- 중흥, 백삼, 통신농장들에서도 감자를 수확하여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수송함.
- 대홍단군, 백암군에서도 서리피해를 입을 수 있는 포전부터 감자캐기를 진행함으로써 소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수확을 진행함.
- 대홍단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여 트랙터와 감자수확기들의 가동률을 향상시켰음.
- 풍서군, 운흥군, 삼수군, 갑산군 등 여러 농장에서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전개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자를 수확하였음.

전국적으로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결속(로동신문, 10.16)

○ 농업부문에서 전국적인 가을밀, 보리씨뿌리가 전부 결속되었음.

- 평양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밀, 보리파종면적을 1.8배 늘였으며, 만경대구역, 형제산구역, 사동구역에서 가을걷이와 밀, 보리씨뿌리기를 결속함.
- 곽산군, 운전군, 태천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여러 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으면서도 소출이 높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파종을 결속하였음.
- 남포시, 세포군, 고산군을 비롯한 강원도 농촌지역과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지에서도 밀, 보리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냄.

우량품종의 해바라기들을 널리 재배(통일의 메아리, 10.16)

○ 올해 많은 지역에서 해바라기를 널리 재배하였으며, 특히 우량품종의 키낮은해바라기와 간석지용해바라기들을 심어 좋은 결실을 이룩함.

- 이 품종들은 병견딜성과 넘어짐견딜성이 강한 올종들로서 정보당 씨생산량이 일반해바라기들에 비해 1.5배, 최고 1.8배 이상 되고 씨의 기름함량이 풍부함,
- 키낮은해바라기는 뒤그루로 심을수 있어 2모작농사를 하는 농장들에서 재배하였으며, 간석지용해바라기도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으며 염기견딜성이 강한 것으로 하여 재배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 올해 우량품종의 해바라기를 재배한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수확을 진행하였음.

전국적인 벼가을 결속(로동신문, 10.21)

○ 각지 농업부문들인 농업성과 각 도농촌경리위원회 산하 단위들에서 벼가을을 결속하였음.

- 평양시 만경대구역, 역포구역, 형제산구역의 농장들에서는 벼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매일 벼베기계획을 넘쳐 수행함.
- 평안북도 정주시, 룡천군, 운전군, 곽산군 등지와 평안남도 안주시, 숙천군, 문덕군, 평원군의 농장들에서는 볏단을 거둬 들이면서 낟알털기를 동시 진행하였음.
- 리원시, 은파군, 신계군, 배천군, 안악군, 재령군을 비롯하여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시, 군들에서는 비가 자주 내린 조건에서 시급히 곡식을 말리우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가을걷이를, 함경북도, 남포시 등지에서도 벼가을을 마무리하고 낟알털기에 주력함.

공예작물생산을 일관하게 내밀어 성과 달성(조선의 오늘, 10.24)

○ 농업성에서 공예작물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도록 지도사업을 하여 박하, 땅콩, 홉, 기름작물의 생산실적이 지난해보다 향상되었음.

- 순천시, 증산군의 공예전문 생산단위들에서는 박하재배적지를 바로 정하고 토양의 특성에

맞는 종자를 선정하는 한편 공정별에 따르는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계획보다 많은 양의 박하를 수확하였으며, 강동군, 남포시 천리마구역에서도 박하 수확을 진행함.

- 성천군 온정협동농장과 의주군에서도 지력을 개선하여 땅콩생산에서 높은 소출을 기록함.
- 양강도 홉 생산단위에서는 다수확 품종의 홉 재배면적을 늘여 생산 계획을 수행함.
- 허천군, 회령시, 북청군, 동신군에서는 해바라기, 들깨, 참깨 등의 기름작물 생산을 늘여 지방 공업공장들의 원료를 보장하였음.

밀, 보리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 추진(조선중앙통신, 11.09)

○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이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밀, 보리 재배면적이 지난 시기보다 1.7배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음.

- 각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의 농업기상조건과 경작실태 등에 기초하여 밀, 보리 재배적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밀, 보리 재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들을 세웠음.
- 이전에 비해 재배면적을 근 2배로 늘인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는 토양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모작 적지를 바로 정함으로써 늘어난, 밀, 보리재배의 적기를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담보를 마련함.
- 농업성적으로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이는데 필요한 종자를 비롯하여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보장하는 사업이 진행됨.

◆ 임업

올과일생산계획 넘쳐 수행–황해북도에서(류경, 08.21)

○ 황해북도의 과수전문협동농장들에서 올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수안군 과수전문협동농장에서 지난해보다 백수십t 복숭아를 더 수확하였으며, 곡산군 과수전문협동농장에서는 토양미생물 및 습도조건을 개선하여 올과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사리원시 과수전문협동농장에서는 자체로 신양2호 발효퇴비와 쑥 우림액을 비롯한 식물성 농약을 이용하여 증산을 달성함.
- 황주군 봉화과수전문협동농장에서는 병해충구제, 가지자르기, 열매솎음 등을 진행하여 좋은 올과일 작황을 마련함.
- 금천군, 토산군, 봉산군 과수전문협동농장들에서도 살충제와 살균제를 비롯한 여러 농약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해충 구제를 진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 적극 추진-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로동신문, 08.23)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 양묘장에서는 필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수종별, 품종별로 나무모들을 영양관리하는 한편, 영양제와 뿌리내림촉진제가 충분히 확보된 데 따라 김매기, 농약시비, 영양시비를 비롯한 비배관리에 역량이 집중되어 나무모들의 성장과 발육이 좋은 조건이 마련됨.
- 합격모 평가기준에 맞게 생육별, 단계별 나무모들의 사름률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여 포전수로와 암거정리, 옹벽보수 등 대책들을 세워 병해충 예찰·예보체계를 강화함.
- 결과 중앙양묘장에서는 창성이깔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아로니아를 비롯한 50여 종에 2,500만여 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였으며, 국내산 원료에 의한 지효성비료와 살초제 생산을 위한 연구도 진행함.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국토환경보호부문의 양묘장들에서(09.28)

○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양묘장들에서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수십 종의 나무모들을 생산하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여 포전수로와 암거정리, 옹벽보수 등을 진행하고 병해충 예찰·예보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여러 영양제와 성장촉진제를 이용하는 등 단나무를 비롯한 수천만 그루 나무모들을 생산함.
- 강원도 양묘장, 함경남도 리원군 모체양묘장 등 단위들에서도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잣나무, 밤나무, 창성이깔나무모를 생산하였음.
- 평안남도 회창군에서는 산림조성에도 좋고 지방공업원료보장도 할 수 있는 머루, 돌배, 수유나무 등의 모들을 생산한 것을 비롯하여, 평안북도 태천군, 자강도의 양묘장들에서도 나무모들을 생산하고 있음.

림업부문에서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 더욱 강화(조선의 오늘, 10.04)

○ 임업성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하며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작전과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짜고들고 있음.

- 자강도, 함경북도임업관리국에서는 수십km의 임산철길구간에 대한 침목교체를 끝냈으며 고인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에서는 임철대차들을 새로 제작하거나 수리정비를 진행함.
- 수백m의 삭도건설 및 이설공사를 끝낸 금야갱목생산사업소, 송원갱목생산사업소, 정평갱

목생산사업소 등 여러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삭도운반 비중을 확대하였음.

- 혜산림업기계공장과 만포림업기계공장에서도 림철대차바퀴, 축함을 비롯한 윤전기계부속품을 보장하였으며, 밀림기계톱공장에서는 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수십 대의 기계벌목톱을 생산함.
- 임업과학연구소에서는 경제적효과성이 큰 나무품종육종체계를 세우고 나무모성장촉진제와 살충제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임산조림사업소들에서도 생물농약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생산하고 있음.
- 길주합판공장에서는 목삭판생산공정 등 여러 공정을 개조하고 정비보강하여 생산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위연목제품공장과 함흥목제품공장에서는 통나무생산과 목재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있음.

임업부문에서 3. 4분기계획 104%, 9월계획 103%로 완수(통일의 메아리, 10.06)

○ 임업성적으로 통나무생산계획을 지난 3/4분기에 104%, 9월에 103%로 완수함.

- 양강도임업관리국에서 산하 연암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채벌구를 선정하고 마감나르기를 하여 앞장에서 성과를 이룩함.
- 평안남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도임업관리국에서도 작업공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윤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마감나르기를 진행함.

개건된 평안북도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11.10)

○ 평안북도 산림과학연구소가 개건되어 9일 준공식을 진행하였음.

- 준공식에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장세철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김정은이 각도들에 있는 산림과학연구소를 잘 꾸릴 것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올해 연구소 개건공사를 완공할 목표밑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비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공사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잔디를 심어 주변환경을 일신시켰다고 평가함.
- 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역량을 구축하고 수종이 좋은 우량품종의 육종과 산림조성,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도안의 모든 산을 수림화 할 것을 언급함.

국가산림관리종합정보체계 1.0 개발(메아리, 11.10)

○ 김일성종합대학,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산림관리종합정보체계 1.0을 개발하였음.

- 이 체계는 산림통합경영정보체계, 산림지리정보체계, 산림자원관리지원체계와 기타 체계들로 되어 있음.

- 산림통합경영정보체계에는 산림부문 기관, 기업소들의 인력, 산림경영계획, 설비 및 물자보관관리, 재정관리, 채종, 조림, 림농, 산림보호상태 등이 자료화 되어있고 갱신이 가능함.
- 산림지리정보체계에는 전국의 모든 임반, 소반에 이르기까지 산림주제지도가 화상자료로 구축되어 있음.
- 산림주제지도에는 각 지역의 산림자원상태, 산림조성방법, 변동자료들과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의 자료들이 등급별로 구분함.
- 기타 체계들에는 산림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국내의 과학기술자료, 연관부문의 자료들이 반영된 기술도서, 정기간행물, 제품들이 동화상, 사진, 전자문서로 탑재되어 있음.

10여개의 우량한 과일품종 육종(조선중앙통신, 11.24)

○ 최근 나라에서는 기후풍토에 맞으면서도 정보당 수확량이 많은 10여개의 우량한 과일품종을 육종하여 국가품종으로 등록하였음.

- 계룡길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새로 육종한 과일품종들은 사과, 배, 복숭아, 추리, 살구 등 7개 수종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는 우리 식의 육종방법으로 당함량이 18%이상 높은 단살구품종을 연구육종하여 현실에 도입하였음.
- 단살구는 이전의 품종에 비해 병견딜성이 강하고 해거리가 없으며 가물과 습기에도 잘 견디는 것으로 하여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함.
- 붉은추리는 색이 고울 뿐 아니라 알당 무게가 많이 나가면서도 밀식재배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높은 것으로 하여 재배가치가 큰 과일품종으로 인정됨.
- 당함량이 20%이상에 달하는 포도술용포도품종도 연구하여 과수단위들에 공급되고 있음.
- 연구집단은 양강도 삼지연시를 비롯한 북부고산지대에 퍼진 과일나무생육상태와 병해충발생동태를 수집,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비배관리대책을 세웠음.
- 현재 농학자들은 생물공학적으로 추위견딜성이 강하면서도 맛과 무게, 수확고에 있어서 종전 품종들에 비해 우월한 새 과수품종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축산업

맛좋고 영양가높은 젖제품을 어린이들에게 정상공급-자강도에서(류경, 08.02)

○ 자강도에서 일일 유제품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향상시켰음.

- 강계염소목장에서 풀판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방목지들을 증설하고 우량품종의 염소를 확보함으로써 매일 산양유 생산계획을 166%로 넘쳐 수행함.

- 목장에서는 유제품 가공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진행하여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하였으며, 요구르트를 비롯한 유제품들을 생산하였음.
- 만포시, 위원군, 초산군, 장강군, 성간군 등지에서도 염소 사육두수를 늘이고 유제품을 생산함.

새로 일떠선 북청돼지공장 준공(로동신문, 08.11)

○ 북청돼지공장이 공장구역 내 나무심기와 주변지대정리를 끝내고 준공하였음.

- 공장은 위생통과실, 비육호동, 종축호동들로 이뤄져 있으며, 사료가공과 운반계통, 고기가공, 유기질비료생산공정 등을 갖췄음.
- 공사는 함경남도와 북청군에서 시멘트와 강재, 목재 등을 확보하고 건설, 북청군에서 수백 ㎥ 규모의 기초파기를 마무리하고 벽체축조, 지붕공사 등을 진행함.

그림1 새로 준공된 북청돼지공장

자료: 로동신문, 2021.08.11

젖제품생산을 늘여간다(내나라, 08.11)

○ 각지 축산기지들에서 유제품 증산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 삼훈목장에서는 멸균 및 접종, 정제공정을 새롭게 완성하고 활성이 높은 젖산균을 도입하여 버터, 치즈 등 여러 유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애국풀》, 자주꽃자리풀을 비롯한 먹이풀을 재배하고 가공하여 염소의 증체률과 번식률을 향상시킴.

- 평안북도에서는 신의주청년염소목장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목장으로부터 시, 군, 협동농장 축산기지들에 이르기까지 능력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젖소, 염소 마리수와 방목지를 늘이며 유제품 설비들 정비보강을 진행함.
- 함경남도 함흥시청년염소목장과 함주군 평풍덕염소목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자연풀판을 조성하고 있고, 함경북도 청진염소목장에서는 먹이생산 공업화 사업을 진행함.
- 황해남도에서는 계남목장을 비롯한 여러 목장의 유제품 생산을 늘여 해주시내 탁아소, 유치원들에 공급하였음.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은률광산 등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들에서도 유제품 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생산을 향상시키고 있음.

수의약품생산기지가 일떠섰다-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08.14)

○ 황해북도에서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수의약품 생산기지를 완공하였음.

- 새로 완공된 수의약품 생산기지에서는 집짐승 전염병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10여 가지 수의약품을 생산함.
- 수의약품 생산기지는 축산물 생산을 늘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축산기지건설과 개건현대화사업 적극 추진(통일의 메아리, 08.26)

○ 평안북도에서 축산기지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올해 도에서는 운전삼광축산전문농장건설과 구성닭공장, 신의주닭공장, 군민룡천돼지공장 개건현대화목표를 수립함.
- 나아가서 집짐승 먹이생산공정을 구축한 평북돼지공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자체의 힘으로 축산토대를 그쯘히-강계돼지공장(로동신문, 09.17)

○ 강계돼지공장에서 먹이첨가제 생산기지, 뽈물등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공장에서 올해 초 우리나라에 흔한 원료를 이용하여 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먹이첨가제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먹이첨가제를 생산해내기 위한 설비 제작에 성공한 공장에서는 먹이첨가제 및 단백먹이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음.
- 뽈물등에 생산기지를 갖춤으로써 단백먹이 해결에서 성과를 이뤘으며, 뽈물등에를 이용한 단백먹이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장치 등을 제작함.

그림2 강계돼지공장에 건설한 뿔물등에생산장

자료: 로동신문, 2021.09.17.

당의 육아정책관철에서 발휘된 훌륭한 기풍–은정구역에서 염소목장과 젖가공기지를 일떠세운 과정을 놓고(로동신문, 09.24)

○ 국가과학원(은정구역)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수백마리 능력의 염소목장과 산양유 가공기지가 완공됨으로써 구역 안의 어린이들에게 산양유제품을 사철중단없이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염소목장은 배산동 지구의 야산에 600여㎥ 토량굴착공사와 850여m의 석축공사, 근 1km에 달하는 도로공사, 480여㎡의 염소우리를 비롯한 10개 대상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함.

- 산양유 가공기지 구축에는 기계공학연구소, 열공학연구소, 과학실험설비공장, 조종기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가 투입되어 산양유 가공에 필요한 접시형 원심분리기와 진공농축기, 분무건조기, 산양유분말 포장기를 비롯한 12종의 설비들을 연구제작을 진행함.

- 분유 생산에서 제일 걸린 고리로 되어있던 분무건조기가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제작되고 열공기를 이용하는 분무공정이 확립된 것이 성과로 꼽힘.

함경남도에서 젖제품생산에 력량 집중(조선의 오늘, 09.30)

○ 함경남도에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유제품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인흥젖소목장에서는 젖소들의 증체률을 높여 유제품 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함주군 평풍덕염소목장에서는 염소마리수를 늘이고 산양유 제품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췄으며, 함흥시청년염소목장에서는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인공 및 자연풀판을 전망성있게 조성하였음.

- 북청군 청해농장은 농장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공급하여 본보기 단위로 선정되었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 목장에서는 염소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산양유 생산을 진행하여 기업소 안의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흥산은하피복공장 축산기지에서도 자체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유제품 생산실적을 향상시켰음.
- 단천시, 신포시, 정평군, 덕성군, 금야군을 비롯한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축산업 발전 및 유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에서 분발하고 있음.

젖제품생산토대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는다-함경북도에서(로동신문, 10.08)

○ 함경북도에서 화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염소목장들의 건설 및 개건·현대화 사업을 진행되도록 하였음.

- 청진시염소목장 개건현대화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속에, 능력이 큰 먹이가공장 건축공사가 완성되고 기본생산건물과 보조생산건물에 대한 마감공사가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진행되었음.
- 청진시 라남구역에서 염소목장에 여러 동의 염소우리를 건설하고 풀판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더 많은 젖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김책시에서도 목장건설 위치를 확정하고 1,000여 마리 염소를 기를 수 있는 우리와 산양유 가공장 등을 건설함.
- 온성군에서도 이미 있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여러 동의 염소우리와 수의방역실, 사무청사 등을 완성하였으며, 어랑군과 경성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 구역에서도 염소목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10.14)

○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2일과 13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발표회에는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농업연구원 축산학연구소, 평양농업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안악군 구와협동농장을 비롯한 20여개 단위 과학자, 기술자, 현장 일꾼 등이 참가함.
- 축산업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와 생산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50여건의 론문들이 제출된 이번 발표회는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소개선전하고 보급·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됨.
- 젖소의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우유 생산량을 늘이며 새끼돼지의 병을 치료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밝힌 연구논문들이 높게 평가됨.

광포오리공장 선덕종금직장 고니작업반 고니사 준공(로동신문, 10.25)

○ 광포오리공장 선덕종금직장 거위작업반에 거위사육장이 새로 건설되었음.

- 거위 사육장에는 야외와 실내에 여러개의 호동과 새끼호동, 위생통과실 등 거위 사육에 필요한 조건이 구축되어 있음.
- 거위 사육장 건설로 희귀한 관상용조류이며 고기맛이 좋고 약용가치가 있는 검은고니를 공업적 방법으로 사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도수의방역소 새로 건설-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11.20)

○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해주시에 도수의방역소를 완공하였음.

- 언덕에 건설된 2층짜리 청사와 여러 보조건물에는 약품생산실과 검사실, 약품저장고와 고려약초제분실 등을 갖추고 있고 각종 설비들과 실험기구들이 마련함.
- 도수의방역소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도에서는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축산물생산을 늘일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함.

개건현대화된 구성닭공장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11.25)

○ 평안북도에서 구성닭공장을 개건 하였음.

- 공장에서는 수십 개 생산호동들을 개건하고 자동화,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첨가제 및 발효먹이 생산장, 메탄가스발전소, 유기질복합비료 생산기지 등을 새로 건설함.
- 고리형 순환 생산체계를 세우고 닭호동들의 온습도, 먹이공급 등을 자동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내원료에 기초한 먹이첨가제 및 발효먹이의 공업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단백먹이보장을 위한 뿔물등에 서식장도 구축하였음.
- 설비현대화에 필요한 수십 종에 수백 대의 설비들을 제작·설치 하였으며 공장구내를 포장하고 나무들을 심어 면모도 일신시켰음.

그림4 개건현대화된 구성닭공장

자료: 로동신문, 2021.11.25.

축산기지건설 적극 추진-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11.26)

○ 평안남도에서 영원군에 10개 축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사들과 보조 건물들을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완성된 축사는 돼지, 염소, 거위를 비롯한 집짐승을 기를 수 있는 호동들과 건초 및 풀절임저장고, 오수정화장 등을 갖추고 있음.

개건현대화된 신의주닭공장 준공(로동신문, 11.28)

○ 신의주닭공장에서는 국내원료에 의한 먹이첨가제 및 발효먹이의 공업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뿔물등에서식장, 대용먹이생산장을 건설하였으며 통합조종실 등을 꾸려 닭호동들의 온습도, 배풍, 먹이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고리형 순환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배합사료운반과 배설물처리를 위한 벨트콘베아화가 실현된 가금생산기지에 알깨우기실, 수십개의 닭, 오리호동이 개건되고 과학기술보급실, 액체배양실, 광물질첨가제생산실, 알포집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장 등이 구축. 또한 공장구내에 양어장을 건설하고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였음.

염소목장건설 힘있게 추진-황해북도 곡산군(통일의 메아리, 11.30)

○ 황해북도 곡산군에서 염소목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계수리 제5작업반구역에 새로 건설되는 염소목장에는 목장종업원들의 살림집들과 함께 어미염소우리, 새끼염소우리, 건조실, 놀이장 등으로 설계됨.

- 굴착작업과 기초공사, 벽체쌓기를 끝내고, 공사는 마감단계에 진입하였음.

◆ 기타

새로운 장미모생산방법 확립(려명, 08.27)

○ 최근 장미모 생산방법이 새롭게 확립되어 실천에 널리 도입되고 있음.

- 평양시 녹화생산사업소에서는 겨울철에 온실에서 가지심기 방법으로 장미모를 키울 수 있다는 착상을 한데 기초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음.

- 실한 장미가지들을 선택하여 활성제로 처리한 다음 알맞는 관리를 하는 새 장미모 생산방법으로는 꽃피는 시기를 훨씬 앞당기면서도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장미꽃을 피울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과거 방식 대비 생산주기가 짧고 품이 적게 드는 등 경제적 실리가 큰 생산방법이라고 함.

올곡식과 올과일생산목표점령을 위한 2021년 사회주의경쟁총화 진행(로동신문, 09.07)

○ 올곡식과 올과일 생산목표점령을 위한 2021년 사회주의 경쟁총화가 화상회의로 9월 6일 진행되었음.

- 화상회의로 진행된 총회의에는 농업성과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꾼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근맹위원회 해당 일꾼들, 경쟁참가단위의 일꾼들이 참가하였으며, 농업부문 경쟁참가단위들에서 올곡식과 올과일 생산목표점령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편향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총화되고 경쟁순위가 발표되었음.
- 복숭아의 품질과 맛을 판정한 결과 과일군, 온천과수농장, 북청군, 사리원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우수하게 평가됨.

○ 올곡식생산목표점령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에서는 함경남도, 평양시, 신천군, 금야군이 앞자리를 차지하였음.

- 본보기협동농장들사이의 경쟁순위를 보면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이 1등,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이 2등,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이 3등으로 평가됨.
- 알곡생산계획이 1만t이상 되는 농장들사이의 경쟁에서는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이 1등,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이 2등, 재령군 래림협동농장이 3등을 차지함.
- 올과일생산목표점령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순위는 올과일 정보당수확고와 품질과 맛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가 이뤄졌음.
- 과수부문경쟁순위는 대규모과일생산단위들인 과일군, 북청군, 고산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1부류로, 농업성 과수관리국의 과수농장들을 2부류로 하여 순위를 결정함.
- 1부류에서는 과일군이 1등, 북청군이 2등, 고산과수종합농장이 3등으로 평가됐으며, 2부류에서는 온천과수농장이 1등, 덕성사과농장이 2등, 단천과수농장이 3등으로 평가된 것을 비롯하여 31등까지의 순위를 발표함.

자강도에서 년간 공예작물생산계획 초과완수(류경, 11.01)

○ 자강도에서 공예작물 생산에서 년간계획을 101%로 초과완수하였음.

- 석포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 수십 정보 면적에 우량품종의 박하를 심었으며, 격리식기름분리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새로 제작설치하여 박하기름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2배 향상시켰음.
- 창관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 100여정보의 약초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정보당 수십t의 유기질거름을 내고 작물배치를 하여 근 20종의 약초작물을 재배함.
- 초산공예전문협동농장과 회양공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농장에서 맡겨진 기름, 약초, 기호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

- 고풍군에서는 해바라기를 비롯한 기름작물을 생산하여 군식료공장에 공급. 전천군, 위원군 등에서도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예작물 생산에서 실적을 기록하였음.

잠업부문에서 누에고치생산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다수확자 지난해에 비해 1.3배로 장성(조선의 오늘, 11.20)

○ 각지 잠업부문들에서 다회누에치기방법을 도입하여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50여개의 작업반, 분조가 다수확을 거두었으며 다수확자 대열이 지난해보다 1.3배로 장성하였음.

- 함경남도에서 누에치기전 소독회수를 늘이고 누에병발생률을 줄여 지난해보다 수십t의 고치를 증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단천시, 정평군, 요덕군, 수동군에서는 연간 누에고치생산계획을 각각 106%, 124%, 103%, 101% 완수함.
- 정주시, 태천군 등 평안북도의 고치생산 단위들에서도 우량품종의 나무모심기와 가지휘여 묻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뽕나무그루바꿈을 진행하고 지력을 높여 뽕잎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함.
- 평양시와 황해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도 고치생산에서 결실을 이룩. 은천군, 평원군, 강남군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밀식뽕밭면적을 늘여 정보당 수백kg의 고치를 생산함.
- 개천시, 박천군, 금야군, 김화군 등의 작업반, 분조에서 계절별,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깊은층비료주기와 병해충구제를 진행하여 높은 수확고를 기록함.
- 사리원시, 회령시, 옹진군, 동림군, 룡천군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는 연간 1t 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한 노력혁신자들을 배출함.

해바라기농사를 실속있게-함경북도(통일의 메아리, 11.25)

○ 함경북도에서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해바라기 농사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도에서는 다음해 올해의 1.5배나 되는 많은 면적에 해바라기를 심기를 목표로 세우고 그 준비를 진행함.

- 회령시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축적된 해바라기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우량품종의 해바라기 종자를 받아 들였음. 또한 잎따주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하여 정보당 해바라기씨 생산량을 종전보다 향상시킴.
- 무산군과 연사군을 비롯한 도 안의 여러 군들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해바라기 재배면적을 늘이고 생산을 확대함.

문답, 8월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메아리, 11.28)

○ 평양8월풀가공공장에서 단맛감을 생산하는 원료인 8월풀이 어떤 작물인지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내용이 기사를 아래와 같이 서술함.

- 8월풀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초본식물로, 잎의 단맛이 세고 쑥잎처럼 생겼다는 의미에서 사탕쑥이라고도 하며, 8월풀의 마른잎에는 6~8%의 당이 들어있으며 8월풀을 가지고 만든 8월풀당(모노시드)가루는 사탕보다 당도가 300배가 높은데, 8월풀 1정보에서 3.6t의 마른잎을 거둔다면 180~200㎏의 8월풀당가루를 생산함.
- 이것은 50~60t의 사탕과 맞먹는 양으로, 8월풀당은 인체에 나쁜 작용을 하지 않아 여러 식료품들에 첨가제로 쓸수 있으며 김치 등에 넣으면 달면서도 오래동안 시어지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써도 착용함.

3 농업기반·농자재

◆ 농업기반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강구–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류경, 08.12)

○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남도 회창군에서 옹벽쌓기 및 장석입히기, 홈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을 진행하고 낙석위험구간을 제거하며 사방야계구조물들에 대한 안전상태도 점검하였으며, 성천군에서는 수 km 구간 수십개소 사방야계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였고 물도랑, 배수로 정리를 끝냄.
- 평안북도 박천군,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등에서는 윤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강바닥파기, 물길곧추펴기를 비롯하여 강하천정리를 추진하고, 물뚝공사를 진행함.
- 평안북도 신의주시, 운산군, 태천군, 평안남도 평성시, 함경북도 연사군 ㄹ등에서 물도랑정리와 안전보호말뚝설치, 다리난간 개건을 비롯하여 도로, 다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함.
- 해안연선을 끼고있는 지역들에서는 해안방조제, 방파제를 비롯한 시설들의 보수, 보강 등 해안구조물 공사를 내미는 한편 긴급정황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기술혁신으로 생산토대 튼튼히 구축–해주관개기계공장(조선의 오늘, 08.25)

○ 해주관개기계공장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생산성이 1.5배로 향상되었음.

- 해주관개기계공장 주물작업반에서는 새 열풍용선로를 제작설치하고 앞선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대형양수기 생산을 향상시킴.
- 가공작업반에서는 여러 대의 공작기계를 원상복구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 일정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함.

- 공무작업반에서도 기술개건을 다그치면서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
- 공장에서는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박막과 여러 규격 비닐관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재자원화 공정도 새롭게 확립하였음.

남새밭관개체계환원복구사업 결속(통일의 메아리, 09.07)

○ 평양시 주변 수천 정보 규모 밭면적에 남새밭관개체계 환원복구사업이 결속되었음.

- 밭면적이 많은 사동구역, 역포구역, 강남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수원확보와 물길보수 및 건설, 양수동력설비설치를 진행함.
- 만경대구역, 낙랑구역, 형제산구역, 순안구역과 강동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체로 보막이와 물주머니, 물길보수를 진행하고 이미 있던 양수장들을 개건하면서 공사를 하였음.
- 평양농기계부속품공장과 구역, 군관개관리소들에서도 양수설비들의 제작과 관개구조물 건설에에서 성과를 이룩함.

갑문구조물보수공사 힘있게 추진(통일의 메아리, 09.26)

○ 대동강의 물관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여러 갑문사업소에서 갑문구조물보수공사가 추진되고 있음.

- 서해갑문사업소에서는 수천㎥의 막돌 및 거석투석을 결속하였으며, 미림갑문사업소에서 수문하류보강에 필요한 수백㎥의 부재생산 및 조립을 끝내는 등 여러 갑문사업소의 콩크리트구조물 보수가 진행됨.
- 갑문사업소들을 담당한 육해운성에서는 해당 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갑문구조물들의 변위상태와 세부상태 등을 측정한 것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안을 세워 보수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갑문구조물들의 상태측정에 필요한 장치, 설비들을 보강하는 사업과 대동강갑문구조물관리체계개발을 위한 지도서가 작성되는 등 해당 준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평양시에서 수천정보의 남새밭관수체계 완성(류경, 10.17)

○ 평양시 안의 농장들이 밭 관수체계를 완성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음.

- 역포구역에서 양수장건설과 개건보수, 관수시설들의 완비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사동구역에서 고랑관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수방법도 실정에 맞게 도입함.
- 만경대구역에서는 시설물건설 및 보수의 질적수준을 보장하였으며, 낙랑구역, 형제산구역에서도 보막이와 물주머니, 물길보수를 진행하고 이미 있던 양수장들을 개건함.

- 평양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물길 및 구조물공사를 다그쳤으며 포전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기 위한 물관리체계도 수립하였으며, 순안구역, 강남군을 비롯한 구역, 군들에서도 남새밭 관수체계를 완성하였음.
- 평양농기계부속품공장과 각 구역, 군관개관리소들에서도 양수설비들의 제작과 관개구조물 건설에서 실적을 올려 남새밭관수체계 확립에 기여함.

함경북도에서 치산치수사업에 력량을 집중(통일의 메아리, 10.17)

○ 함경북도에서 가을철국토관리 총 동원기간 40여종 6,10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 25만여㎥의 강바닥파기, 10만여㎡의 장석입히기 등을 진행하였음.

- 김책시, 어랑군산림경영소들에서는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종자를 마련하고 수백 만 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냈으며, 명간군 산림경영소에서 자체로 수백㎡의 수지경판온실을 건설하고 계획보다 많은 나무모를 더 생산함.
- 회령시에서는 삽차, 대형화물자동차 등 윤전기재들을 동원하여 10여 일 동안에 80여m의 구간에서 3만 5,000여㎥의 강바닥파기를 하였으며, 3,000여㎡의 장석공사를 끝냄.
- 강하천들의 바닥파기를 한데 맞게 연사군, 경흥군에서 성토 및 장석공사를 동시에 밀고 나갔으며, 청진시 포항구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강하천정리를 잘하여 물통과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온성군, 부령군, 경성군에서 수십정보의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골막이, 기슭막이 등을 진행함.
- 김책수산사업소에서는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백 개의 뿔부재를 생산하고 거석을 채취하여 수백m의 해안방파제를 보강하였음.

가을철국토관리사업 활발히 전개–평양시에서(류경, 10.25)

○ 평양시에서 9만여㎥의 강바닥파기와 많은 구간의 도로포장과 보수 등을 마무리하는 등 성과를 거뒀음.

- 만경대구역에서 계획된 강바닥파기를 제일 먼저 결속한 것을 비롯하여, 순안구역, 형제산구역, 역포구역, 강남구역에서도 하천바닥파기와 장석공사를 완성함.
- 선교구역에서 구획도로포장과 불비한 구간들에 대한 보수를, 용성구역에서도 구역안의 도로개건사업을 진행함.
- 중구역에서 걸음길보수와 공원, 유원지정상관리를, 서성구역에서는 도시원림녹화수준을 제고함.
- 대동강구역과 낙랑구역에서도 옹벽쌓기와 오수 및 우수망 정리, 녹지관리를 진행함.

강하천정리 본격적으로 추진(조선중앙통신, 10.26)

○ 전국적으로 9월 초부터 10월 25일 기간 420여 만㎥의 강바닥파기와 530여만㎥의 제방쌓기, 160여 만㎡의 장석쌓기공사가 진행되어 600여㎞ 구간의 강하천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함경북도에서 20여개 대상에서 수십만㎥의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 수십만㎡의 장석쌓기공사를 결속한 것을 비롯하여, 평안북도 태천군, 황해남도 옹진군, 개성시에서도 물줄기를 곧게 펴고 제방을 든든하게 쌓는 등 강하천정리공사를 진행함.

올해 전국적으로 2천여정보의 새땅찾기 진행(로동신문, 11.04)

○ 각 도,시,군들에서 올해 새땅찾기 사업을 전개하여 2천여 정보의 새땅을 찾아냈음.

- 남포시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천리마구역, 온천군 등 구역, 군들에서 농경지와 강하천주변 등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 새땅찾기계획을 150% 이상 넘쳐 수행함.
- 황해북도 신계군, 황주군, 상원군 등에서 새땅찾기사업에서 여러 하천 주변을 정리하여 새땅찾기에서 성과를 거둠.
- 평안북도 피현군, 대관군, 태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벌려 수백 정보의 새땅찾기를 하였음.
-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새땅찾기목표를 130% 넘쳐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은률군, 옹진군, 안악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최뚝, 돌각담, 웅뎅이 등을 정리함.
- 평안남도 회창군, 성천군, 대동군, 덕천시 등에서 저수지와 강하천주변을 비롯한 곳곳의 새땅을 찾았으며, 평양시,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새땅을 확보함.

다음해 농사를 위한 관개용수보장대책을 빈틈없이-농업성(통일의 메아리, 11.13)

○ 농업성에서 다음해 농사준비와 관련하여 관개용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두벌농사면적이 늘어난데 맞게 성에서는 소요되는 관개용수양을 타산하고 해당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각급 농업지도기관과 관개관리소들에서 저수지 언제와 수문, 취수탑을 비롯한 구조물 보수공사를 결속하였으며, 땅이 얼기 전 물길가시기를 끝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개천-태성호, 백마-철산물길을 비롯한 중요물길들과 지선, 간선물길들의 현존상태를 요해한데 기초하여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농자재

경제적효과성이 큰 열처리기술 도입-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로동신문, 08.07)

○ 해주 트랙터 부속품공장에서 플라즈마에 의한 기통토시열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실리를 얻고 있음.

- 지난 시기 공장에서 생산한 기통토시의 질은 높지 못하여 황해남도 안의 트랙터들의 가동률 향상에 지장을 줬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에서 기통토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고, 평양기계대학 교원, 연구사들인 한인구, 로정호, 김광수, 박호림과 연계 하여 플라즈마에 의한 기통토시열처리기술을 도입함.
- 열처리기술을 새로 도입한 결과 기통토시의 수명이 종전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고, 열처리 시간은 1/10로 단축되었으며, 노력과 전기도 절약하게 되었음.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선 경험을 받아들여-각지 농기계작업소들의 생산토대축성을 위한 사업추진정형을 놓고(로동신문, 09.03)

○ 각지 농기계작업소들에서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와 부속품생산, 농기계제작을 다그쳐 중요영농작업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음.

- 강남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과학연구집단과 연계하여 각종 낡은 공작기계들을 개조하였으며, 만경대구역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단위들도 과학자들과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함.
- 곡산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지난 시기 각종 설비들을 환원복구한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생산건물을 건설하였으며, 기술자들은 압연설비를 갱신하였음.
- 옹진군농기계작업소와 구장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여러 설비를 개조하는데 좋은 경험을 도입하여 생산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숙천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단위들도 노력과 자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혁신성과를 이룩함.

강원도에서 농기계출동식 련이어 진행(로동신문, 09.05)

○ 가을걷이를 앞두고 강원도 시, 군들에서 농기계 출동식이 연이어 진행되었음.

- 출동식은 이동식 탈곡기들과 트랙터들의 가동율을 높여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철에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됨.
- 도에서는 이동식 탈곡기들과 트랙터들의 대수와 상태 등을 따져보고 가을걷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수리·정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함.
- 출동식에서는 시안의 이동식 탈곡기와 트랙터의 수리·정비실태와 함께 예비부속품, 영농자재확보에 대한 료해사업도 진행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지표별 부속품생산 1.2배 장성-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조선의 오늘, 09.05)

○ 사리원 트랙터 부속품공장 주물직장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용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주물소재들을 보장함.

- 1,2가공직장에서 각종 치차류들과 기관본체, 기통머리 등의 일생산계획을 110% 이상 수행하였음.
-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피스톤가공속도를 2.5배 향상시켰고, 지난 시기 가공하기 어려웠던 여러 부속품을 생산하여 도안의 농촌들에 공급함.
- 공무동력직장, 공구지구직장에서도 부속품 제작에 필요한 공구들과 지구장비들을 생산보장하였음.

함경남도에서 농기계전시회 진행(조선의 오늘, 09.16)

○ 함경남도에서 농기계전시회가 진행되고, 도안의 시, 군들과 여러 단위에서 개발제작한 80종에 130여점의 농기계들이 출품되었음.

- 논밭갈이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기계들과 축산, 과수, 관개, 양정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계들, 중소농기구들의 수리에 필요한 지구장비, 부속품들, 중주파유도로 등이 전시됨.
- 지대적 조건에 맞는 자동식, 반자동식, 수동식기계들과 노동력 절약형의 기계, 다기능화된 기계들이 출품된 전시회에서는 각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기술들에 대한 교류사업이 진행되었음.
- 함흥연결농기계공장에서 제작한 소형벼수확기와 함주군에서 내놓은 이동식 벼 탈곡기를 비롯하여 당면한 가을걷이 등을 적기에 질적으로 결속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여러 농기계와 농기계수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이동수리차와 초미분쇄기, 가마니짜는기계, 젖가공설비 등도 높은 실용성으로 호평을 받음.

호평받는 새형의 소형벼수확기(통일의 메아리, 10.08)

○ 해주농기계공장에서 새로 제작한 소형벼수확기가 여러 이점으로 하여 지금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물론 다른 농촌들에서도 그 수요가 높아가고 있음.

- 공장에서는 우선 종전 농기계의 칼날부분을 개조하여 영농작업수행과정에 빈번히 나타나던 칼날의 변형을 막을 수 있게 하였으며, 벼를 베는 작업과 볏대를 나르는 작업을 하나의 동력전달장치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작업능률을 높이면서도 무게를 절반으로 줄였음.
- 새로 제작한 소형벼수확기는 경제적 실리가 큰 것으로 하여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용자들의 평가도 좋으므로 공장에서는 새형의 소형벼수확기를 더 많이 농촌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그림5 해주농기계공장에서 생산한 소형벼수확기(위)와 소형벼수확기를 활용하여 수확하는 모습

자료: 조선의 오늘, 2021.10.02./ 로동신문, 2021.10.06.

림업부문 기계공장들에서 설비관리사업 개선강화(통일의 메아리, 11.10)

○ 임업부문 기계공장들에서 설비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혜산임업기계공장에서는 선재압연기, 선반, 천정기중기 등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고 여러 지구장비를 새로 갖추고 각종 기계설비와 부속품을 생산 보장함.
- 만포임업기계공장에서는 임철기관차의 주요부속품들에 대한 기술적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주파열처리장치를 도입함.
- 무산임업기계공장, 함주임업기계공장에서도 화물자동차들의 정상운행을 위한 부속품생산용 자재를 자체로 확보하고 용선로, 중주파유도로 등의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진척시켰음.

주타격전방에 더 많은 농기계와 부속품을(통일의 메아리, 11.14)

○ 각지 농기계공장들에서 다음해 농사차비에 필요한 농기계와 부속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해주농기계공장에서 새산공정을 개조하고 각종 지구장비를 갖춘 성과에 토대하여 초형정밀주조방법 등을 받아들여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각종 치차들과 베아링을 비롯하여 부속품을 생산함.
- 곽산연결농기계공장에서는 재자원화기술을 확립하고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을 보장하였음.

- 신원련결농기계공장, 함흥련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한 각지 농기계공장들에서도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함.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메아리, 11.22)

○ 해주농기계공장을 비롯한 각지 농기계공장들에서 농기계와 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진입하였음.

- 해주농기계공장에서는 초형정밀주조방법 등 여러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생산품의 질을 높이면서 그 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며, 각종 치차들과 베아링을 비롯하여 부속품을 생산함.
- 곽산연결농기계공장에서는 새로운 재자원화기술을 확립하고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원가를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을 보장하여 생산을 진행함.
- 신원연결농기계공장에서는 제관, 가공 등 생산공정에서, 함흥연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한 각지 농기계공장들에서도 농기계와 부속품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함.

◆ 기타

과학기술로 생산정상화를 적극 추동(로동신문, 08.11)

○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과 삼지연들쭉음료공장, 삼지연장공장에서 정비보강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생산공정들에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함.

-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는 증기공정에서 각종 바킹들을 국산화하였으며 열교환기 등을 개조하고, 전동기들을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여 생산토대를 구축하였음.
- 삼지연들쭉음료공장에서도 들쭉단졸임마개봉합기와 정밀려과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췄으며 첨가제를 개발도입하였으며, 수지병 재자원화 생산공정 토대를 구축하였음.
- 삼지연장공장에서는 회전원통식마쇄기를 창안제작하여 분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된장을 생산하였음.

평양곡산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효소생산공정 확립(통일의 메아리, 09.14)

○ 평양곡산공장에서 자체로 이성화효소 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였음.

- 공장에서는 이성화효소는 포도당을 옥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공장에서는 옥당생산에서 중핵으로 되는 이성화효소를 국산화하는 것을 올해의 중요한 기술혁신목표로 내세우고 협의회들을 통해 이성화효소 생산공정확립을 위한 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김.
- 우선 이성화효소 생성균을 배양하는데 성공하였고, 이 성과에 토대하여 옥당생산용포도당

이성화효소를 공업적 방법으로 제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 설계가들은 균의 종배양과 본배양, 려과, 세척, 원심분리 등 생산공정설계를 맡았고, 4.15 기술혁신돌격대에서 설비제작을 진행하여 배양탱크들과 이성화효소성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였음.
- 공장에서는 이성화효소를 담체에 고정화시키는 기술적 문제 또한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과 연계하여 해결함.

유명한 포도술생산지-강계포도술공장(내나라, 09.21)

○ 강계포도술공장은 인풍술(브랜디), 포도술과 더불어 전국에 알려진 기업소로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처음 고장에 흔한 산열매나 산과일들을 가공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을 시작한 공장은 점차 포도술전문생산기지로 전환하였으며 발효, 숙성, 증류 등 공업적인 포도술생산체계를 확립한 공장에서는 붉은 포도술, 흰포도술, 인풍술 등 과일술들을 생산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포도종자를 개량하고 비배관리를 잘하여 우량품종의 포도를 수확하는 것과 동시에 포도술생산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강계포도술의 특성을 살리고 보존해나가고 있음.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메아리, 10.16)

○ 올해에 함경남도, 양강도에서 김치공장건설을 끝냄으로써 현재 전국의 모든 도에 전통음식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생산기지가 완성되었음.

- 신의주김치공장에서는 진공포장기 등 여러 설비를 설치하고 수백㎡의 남새온실을 새로 꾸린 것을 비롯하여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추진함.
- 남새세척기개조를 끝낸 강계김치공장에서는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김치의 고유한 맛이 잘 살아나게 하면서도 늘어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주김치공장에서도 염도계, 당도계, 항온건조기 등 설비들을 갖춰놓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식료공업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사리원시에서 당생산공정의 기술개건공사 결속(로동신문, 10.23)

○ 얼마전 사리원시에서 당생산공정의 기술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식료공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 사리원 어린이 식료품공장 당작물 가공분공장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건공사가 추진되고, 착즙공정과 세척공정을 비롯한 전처리공정의 기술개조사업과 건물개건공사가 동시 진행됨.

- 사탕무우림공정의 능력과 실수률을 종전보다 끌어올리며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및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사업이 결속됨으로써 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재자원화하여 발효식초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들도 구축되었음.

도서집필에 바쳐진 애국의 마음–중앙식물원연구소(조선의 오늘, 11.20)

○ 최근 중앙식물원연구소에서 도서 《조선초본식물검색》(1)을 새로 집필편찬하여 출판하였음.

- 연구소의 식물분류 및 표본연구집단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초본식물들을 전문검색하여 이용할수 있게 하기 위한 도서집필을 목표로 나라 방방곡곡에서 자라는 초본식물들을 찾아내서 표본을 채집하고 매 식물종수와 그에 따르는 개개의 식물체들에 대한 문헌자료들을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함.
- 결과 우리 나라에 있는 수백종의 초본식물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알기 쉽게 서술한 도서 《조선초본식물검색》(1)을 집필편찬하여 출판함.
- 연구소는 나라의 식물자원을 분류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조선식물지》와 《식물도감》 등 많은 도서들을 집필편찬하여 나라의 원종식물을 보존하고 식물자원을 늘이는데 이바지하고 있음.

국내매체 보도 동향[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남북 및 국제관계

◆ 남북관계

국민 절반 이상 남북관계 전망 '부정적'(뉴스1, 08.02)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전망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잘 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40.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5.5%였음.
- 연령별·지역별 조사에서 50대(59.8%)와 대구·경북(63.2%)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70.2%, 84.4%였음.
- 반면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55.5%)와 광주·전라(53.0%)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음.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긍정 비율이 각각 66.1%, 76.0%로 집계됨.

경원선 복원사업 6년만에 재개 움직임(강원일보, 08.02)

○ 통일부의 요청으로 국가철도공단이 6년만에 처음으로 철도 공사부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면서서울에서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 공사가 중단 6년만인 올 하반기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1) '서울평양뉴스(SPN)' 나정원 박사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재정리 한 것임.

- 강원도와 철원군은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올 10월까지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사요리, 외촌리, 내포리 일원과 동송읍 관우리, 강산리, 중강리의 경원선 철도건설사업 편입부지에 대해 감정평가 후 보상을 마친다는 계획을 발표함.
- 2015년 8월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착공 이후 실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통일부, 12억들여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7곳 증설 완료…총 20곳(뉴스1, 08.20)

○ 정부가 기존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13곳에 더해 전국 7곳에 상봉장을 증설하는 작업을 완료함.

- 정부는 이산가족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에 화상상봉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남북협력기금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증설공사에 착수했었음.
- 다만 올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쉽지 않아 보임. 통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는 남북 간 행사 추진 합의,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 1~2달 동안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절차가 있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 추석까지는 성사가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기도 해 다른 인도주의적 사안보다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대전에 '옥류관' 차린다는 대북사업가 제재 위반 소지 없는 단독 사업(뉴스1, 08.26)

○ 북한의 대표 음식점 '옥류관'의 대전 분점 건립을 추진 중인 (사)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뉴스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저희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단순히 옥류관 브랜드를 사용한 분점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금전적 이익이 흘러갈 일은 없습니다." 라고 발언함.

- 그는 "남한에 북한 옥류관을 짓는 사업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던 2018년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음. 하지만 남북, 북미 관계가 불과 몇년 새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옥류관 관련 사업 역시 일단 중단된 상태임.
- 안 회장은 3년 전과 달라진 남북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옥류관 대전점의 건립 소식과 함께 제기된 '대북 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선 "북측 인원이나 물자가 남한으로 내려오거나 남한 옥류관에서 발생한 이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동업 형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음.
- 그는 또 현재 남북 정세를 고려해 아태협 자체적으로 분점을 먼저 내려 했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땐 다시 원래 구상대로 '본점'을 건립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힘.

남북협력기금 1.9% 증액…4년째 1조원대 유지(연합뉴스, 09.02)

○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 2,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 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힘.

- 사업비는 1조 2,67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 5,0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 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 원(46.5%), 남북 사회 문화교류 사업 221억 원(1.7%) 순이었음.
- 구체적으로 경제교류협력 대출 사업은 올해 148억 2,700만 원에서 내년 250억 원으로 101억 7,300만 원 늘었고, 경제교류협력 보험 사업은 올해 42억 7,500만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57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됐음.
-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도 올해 190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20억 9,500만 원으로 29억 9,8000만 원 증액됐음. 국민들이 DMZ를 횡단하며 분단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64억 원이 신규 배정됐음.

'끝끝내 못 보고'…올해 이산가족 신청자 2천300명 세상 떠나(연합뉴스, 09.20)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으나 사망한 신청자 수는 총 2,258명인 것으로 집계됐음.

-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총 13만 3,530명인데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5.4%(4만 7,318명)에 그침. 나머지 64.6%는(8만6천212명) 이미 세상을 떠남. 생존한 신청자 대부분도 초고령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임. 90세 이상은 27.6%, 80대는 38.5%로 8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지난 7월 27일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반짝 살아나기도 했지만,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전면 통제하면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北 거부에도…정부, 100억 민간 대북지원사업 결정(서울경제, 09.24)

○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함.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보임.

- 정부는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음.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

북지원 사업자를 지원하게 됨. 특히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할 예정임.

- 통일부는 이달부터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격을 갖춘 단체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임. 민간단체들은 구상 중인 대북지원 사업이 북한과도 합의된 것임을 증명할 합의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야 하는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마저 반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은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독려하는 한편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명확히 하며 북한에 협력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임.

당구공은 왜 北에 갔을까…대북교역 2년새 5분의1토막(중앙일보, 10.03)

○ 남북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남북교역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경준 국민의힘이 관세청·통일부로부터 받은 남북교역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의 금액은 총 389만 6,000달러로 전년(666만 8,000달러) 대비 41.6% 감소했음.

- 지난해 반출 금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2018년 반출 금액(2,073만 2,000달러) 대비 81.2%나 급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반출 건수도 2018년 487건, 2019년 385건, 2020년 43건으로 계속 줄고 있으며, 올해 반출 규모는 8월까지 총 6만 7,000달러(1건)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임.
- 지난해·올해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들은 정부·민간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로 수술용 장갑·소독제·붕대·외과기기·결핵약·비타민 같은 의료용품과, 마스크·온도계·약물키트·시약 같은 방역물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외 육류·생선·야채·라면·빵·초코파이·커피 등 먹거리와 양말·의류·화장지·샴푸·세제·고무장갑 같은 생필품을 비롯해, 금속공구·기계류·전기제품·차량부속품, 게임기·당구공·완구·퍼즐·운동용품 같은 놀이기구 등이 들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음.
- 통일부는 반출을 승인한 물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급 주체, 북한 내 수령인 등 관해서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유 의원에게 보낸 답변 자료에서 “반출 물품은 △온실 등 농업 물자 지원, △보건 의료 물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통제 관련 물품 지원, △북한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관련, △북한 내 식수위생 사업 등 인도협력 분야, △취약계층 영양지원, △의약품 지원 등”이라고 밝힘.

○ 국내로 들어오는 반입 물품의 금액도 2018년 총 1,054만 달러(212건), 2019년 20만 6,000달러(49건), 2020년 7,000달러(2건)로 급감했음.

- 올 8월까지 반입 물품도 1,000달러 미만으로 2건에 불과함. 지난해 반입 물품은 금강산 생수 1만 5,000㎏(6,000달러), 소주 248㎏(1,000달러)임. 통일부는 “사회·문화·종교 목적”이라고 설명했음. 올해는 여성용 의류 2㎏과 케이스·가방류 1㎏이 반입됐음.

○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다음 해인 2017년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면서 교역 규모(반출+반입)가 91만 1,000달러로 줄었음.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로 남북 교역금액이 3,127만 2,000달러까지 늘었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때 최고 27억 1,130만 달러(2015년)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임.

-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하고 특히 지난해 6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9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코로나19까지 터지며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교역은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됨.

남북통신연락선 55일만에 복원…정부 관계복원 토대 마련(뉴스1, 10.04)

○ 통일부는 10월 4일 오전 남북통신연락선 개시통화가 다시 이뤄졌다고 밝힘. 단절된지 55일만의 복원임.

-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면서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통신선이 복원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의 입장 등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음.

-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보이는 이날 통신선 복원에까지 '입장 없음'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읽힘.

韓 온실가스 감축에 北 산림복원 활용하자…남북 윈윈, 성사 가능성은(뉴스1, 11.02)

○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함.

- 문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글래스고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후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남북한이 다를 수 없다"며 북한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COP26 개최를 계기로 글래스고에서 남북이 산림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힘.

- 기후대응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앞다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남북이 서둘러 협

력하자는 의미로 읽힘. 남북관계 경색으로 산림협력도 중단된 이같은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남북간 산림 협력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민감해 하지 않는 분야를 언급함으로 인해 비핵화 협상 재개 테이블로 북측을 이끌어 내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됨.

젊은세대 '통일 선호' 18.6%…정부 'MZ세대 통일의식' 고민(뉴스1, 11.15)

○ 통일연구원이 2014년부터 진행한 'KINU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변화와 크게 상관없이 2016년 이후 우리 국민 중 평화공존을 선호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고 통일을 선호하는 비율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평화공존 선호 비율은 2016년 43.1%→2017년 46.0%→2018년 48.6%→2019년 9월 50.7%→2020년 6월 54.9→2020년 11월 55.0%→20201년 4월 56.5%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통일 선호 비율은 37.3%→31.7%→32.4%→28.8%→28.1%→26.3%→22.3%→25.4%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MZ세대'로 통칭되는 1981년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였으며, 2991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는 60.4%가 평화공존을 선호함. 통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8.6%에 그침.
- 이 연구실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일이 유일한 대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통일의 대안이 있다면 한국인들은 기꺼이 그러한 대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변화하는 국민들의 통일관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규정했음.

기재부, 북한에 광역두만개발계획 재가입 촉구(파이낸셜뉴스, 11.24)

○ 정부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북한 재가입을 촉구함. 기획재정부는 동북아 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제21차 총회가 지난 11월 23일(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힘.

-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의장국인 러시아 주최로 GTI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정책 대응 사례 등을 논의했음.
- 윤 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GTI의 국제기구 전환 ▲북한의 GTI 재가입 ▲글로벌 공급망(GVC) 개편 과정에서 GTI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음. 북한의 경우 당초 GTI 회원국이었으나 국제사회 제재 등에 반발해 2009년 11월 탈퇴했음.
- 회원국들은 총회를 통해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촉진, 인프라 연결 강화 등 공동 대응을 지지하고 지역 통합 촉진과 동북아의 경제적 번영을 기대하는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했음.

화성시, 북한 해주시에 '남북협력 사업 제안'(파이넨셜뉴스, 11.29)

○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청에서 경기도 화성시가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와 5대 분야 14개의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화성-해주 남북협력 제안'을 발표함. 226개 지자체 중 남북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화성시가 처음임.

- 화성시는 올해 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5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왔음. 특히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자문이 더해져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성 높은 제안들이 완성됐음.
- 화성시가 발표한 제안은 농업·보건, 환경·경제, 도시협력, 사회문화, 화·해사업 5대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됐음. 각 사업들은 1단계 생활협력, 2단계 상호교류, 3단계 투자협력, 4단계 이익공유로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도록 했음.

◆ 북미관계

미 정보당국자 미, 북한 핵보유국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08.04)

○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워싱턴 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야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절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우선 핵보유국 인정이 한국과의 동맹을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핵 보유를 생각하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음.
- 사일러 담당관은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수많은 '당근'이 제시됐지만, 비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는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 체제보장 같은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 기회를 허비해 버렸다"며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이 믿을만한 비핵화의 길로 내려설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함.

美, 北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이데일리, 08.04)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 접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접촉했고 반응에 대해 업데이트할 것은 없다"며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는 만남을 언제 어디서든 할 준비가 돼 있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그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지난 6월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대로 우리의 제안은 그대로"라면서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남북의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 간 통신선 복구를 환영한다고 덧붙임.

미 국무부 북미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연합뉴스, 08.25)

○ 미 국무부는 홈페무이지를 통해 공개한 북미 양자관계 개황(Fact Sheet·팩트시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미국은 이 지역의 더 큰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동맹국, 지역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다"고 명시함.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7월에 국무부가 공개했던 개황과 비교하면 북미 관계 내용이 약 4천 자에서 300자로 확 줄었음. 2017년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한 서술이 모두 빠짐.

- 북한을 지칭하는 단어는 'North Korea' 대신 대외 공식 명칭인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모두 바꿨음.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을 'DPRK'로 지칭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대북 지원, 양자 경제 관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양자 대표단 등의 항목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바이든 정부도 북한 여행금지 유지…1년 또 연장(연합뉴스, 09.02)

○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17년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할 것이라고 함.

-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는 북한 여행의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1년 간 여행 금지 조처를 내렸고,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했음.

-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의 유지를 결정한 것임. 국무부는 미국 국민에게 신체의 안전에 시급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체포, 장기 구금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함.

- 하지만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지난 8월 17일 국무부와 간담회에서 지원단체(NGO)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행금지 조처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음.

미 국무부, 현상유지로 보이기 원치 않아…북에는 구체적 제안(중앙일보, 10.15)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미국 국무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 '현상유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으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답함.

-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좀처럼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를 북한에 협상 의제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으며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음.

美국무부, 北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 중요(한국경제, 11.01)

○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안팎과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에 계속해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힘.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토머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진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도 강조함.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중국 기업 등 자산 11억원 몰수(경향신문, 11.03)

○ 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미국 내 자산 총 95만 5,880달러를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림. 미 국내법에 따라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 등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

- 판결문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은 중국 통신회사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장비를 파는 과정에서 관련자금을 제재 대상인 북한조선무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면서 미 자금세탁방지법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음.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2010~2015년 사이 19차례에 걸쳐 총 776만 달러를 ZTE에 전달했음.

- 미국 검찰이 지난 9월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라이어 인터내셔널 측은 몰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소송에도 응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음. 이번에는 중국 기업과 국적자의 자산이 미국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몰수할 수 있게 됐음.

- 대북제재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 중국측 자산이 실제 미국 국고로 환수된다면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함께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자산몰수를 통해 제재 이행의 고삐를 조이고 나선 것임.

미 국무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국제의무 지켜라(뉴스1, 11.17)

○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중국 내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송환

에 계속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 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함.

- 지난 8월 유엔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의 명의로 중국 내 북한인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진정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법적 근거를 요구했음. 이에 중국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답변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미국, 北 안보리 결의 준수하면서 비핵화 협상 임해야(뉴스1, 11.26)

○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국제원자력기구(IAEA) 담당 참사관 대행은 미국은 지난 9월 65회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IAEA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북한의 최근 핵 활동과 비핵화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사안을 다루고자 한다고 덧붙임.

◆ 북중관계

주중 북한대사·中공안부장 회동…접경지역 안정 공동수호(연합뉴스, 08.30)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와 자오커즈(趙克志) 중국 공안부장이 베이징에서 북중 접경지대 안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함.

- 자오부장은 중국은 두 나라 정상 간의 중요 합의를 이행하고 전략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으며, 리 대사 또한 북한도 중국과의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함.

끈끈해지는 북중…베이징서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경축연회 열어(연합뉴스, 09.20)

○ 중국이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정권 수립(9월9일) 73주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며 끈끈한 양국 관계를 과시함.

-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창건 73돐에 즈음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경축연회를 마련했다"며 "리룡남 중국 주재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다"고 보도함.

- 중국 측에서는 린쑹톈(林松添) 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공산당 대외연락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중앙군사위원회 간부 등이 참석함.

- 린 회장은 "(북한이) 지난 73년간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며 "중조(북중) 친선은 국제정세와 시대의 변천 속에서도 끊임없이 강화되어 공동의 재부로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리 대사도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의 의도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 동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함.

北대외경제상, 투자유치 의지 표명…대외경제 협력여건 조성(연합뉴스, 09.24)

○ 중국 매체 지린(吉林)일보에 따르면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은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13회 중국-동북아시아 박람회 개막식 축하서신을 통해 북한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외국과의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에 전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를 피력했다고 함.

- 북한은 앞서 변호사들을 앞세워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중국 대도시를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등 외자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인 바 있음.

- 윤 대외경제상은 서신에서 "북한은 세계 각국과의 대외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며 "동북아국가, 나아가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경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상호존중 원칙에 따라 상호신뢰를 심화하면 세계 평화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중 우호협력 관계의 전면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속에 북한 측 고위급 인사의 방중은 없었고, 랴오닝성 선양(瀋陽) 주재 구영혁 북한 총영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 관광총국 관계자, 외국기업의 관광인프라 투자 환영(연합뉴스, 09.27)

○ 북한 국가관광총국 선양(瀋陽)판사처 김성일 대표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문화관광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북한 국가관광총국 관계자가 "외국기업이 북한

관광지와 관광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외자 유치 의사를 밝힘.

- 앞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도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중국-동북아 박람회 당시 축하서신을 통해 "세계 각국과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중 국경 봉쇄가 여전하지만, 개별관광은 현금다발(벌크캐시)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제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므로 북한 측은 향후 봉쇄 해제를 염두에 두고 최근 중국 동북 3성의 다자 행사에서 계속해서 투자유치 의사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임.

김정은, 시진핑에 축전…북중친선, 동지로서 끊임없이 발전(한국경제, 10.0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축전이 중국의 국경일, 신중국 건설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전달됐다고 설명했음.

- 김 총비서는 축전에서 "우리는 동지로서, 벗으로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함. 이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반중국 대결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북한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밀착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시진핑, 중북관계 고도 중시…김정은과 함께 전략소통 강화노력(연합뉴스, 10.23)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건국 72주년 국경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전략적 소통을 비롯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함. 이는 지난 10월 1일 김 위원장의 축전에 화답한 것이라고 덧붙임.

- 시 주석은 답전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축하하면서 "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굳건한 영도 밑에 조선 인민이 단결하고 분발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음.
- 중국과 북한은 미중 및 북중 갈등이 심화하는 속에서 계기 때마다 최고지도자 간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으면서 밀착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제재 완화 추진에 고위급 회동…눈에 띄는 中 대북행보(연합뉴스, 11.01)

○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최근 베이징에서 직접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를 접견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최근 중국의 대북 행보가 인적교류와 대북 제재 완화 등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이 주목됨.

- 양 정치국원은 서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보다 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회동은 주목을 받음.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와는 다른, 북중 당 대 당 특수 관계를 재확인시키면서 북한을 예우하는 모양새였음.
- 대북제재 일부 완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제출,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 등 중국의 이 같은 대북 행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우선 한미간에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등의 흐름 속에서 중국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북한, '전통우방' 중국·러시아 대사 잇달아 만나 협력 강조(연합뉴스, 11.06)

○ 북한 외무성은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대사를 만났고, 임천일 외무성 부상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와 만났다고 밝힘. 외무성에서 박 부상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임 부상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등을 각각 담당함.

- 외무성은 중국대사 면담에 대해 "쌍방은 전통적인 조중(북중)친선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러시아대사 면담은 '조중'을 '조로'(조러)로, '협조'를 '협력'으로 단어만 바꿔 같은 내용으로 소식을 전함.
- 중·러 대사 면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교활동이 제한적인 속에서도 전통 우방 국가들과 친선 협력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 북러관계

북한, 러시아와도 대면외교…주북 러시아대사관서 사진전(연합뉴스, 08.04)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20돌과 씨비리 및 원동(시베리아·극동) 지역 방문 10돌을 기념하여 지난 8월 3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사진 전시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함.

- 전시회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고, 임천일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등이 초대됐음.
- 참가자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담보"라며 "조로(북러) 최고위급 상봉과 회담들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성과적으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김정은, 푸틴과 광복절 축전교환…피로 맺은 친선 강화발전(연합뉴스, 08.15)

○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양국 친선관계를 부각하며 협력 의지를 과시함.

-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요한 것은 준엄한 그 시기에 굳건해진 훌륭한 친선의 전통이 오늘도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고있는 것"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매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축전을 교환해왔음.
- 최근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쿠바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연대를 부쩍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 북한 외무성은 1946년 평양역 3·1절 기념행사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김일성 주석의 목숨을 구한 구소련 군인을 조명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양국 친선을 부각하기도 함.

북, 동해 '해양권'위한 협의회 진행(통일뉴스, 08.23)

○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조선동해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협의회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조선동해 우리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의 불법침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토환경보호성,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기관 일꾼들과 전문가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고 밝힘.

- 이번에 북한에서 개최한 협의회는 영토에 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영유권을 넘어서 '경제적 주권'에 관한 '해양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수역을 확정하고 이를 고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토의된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음.
- 협의회에서는 '조선 동해 북측 경제수역'을 "독도와 일본의 도고섬의 등거리 중간선, 독도와 일본의 헤구라섬의 등거리 중간선 그리고 조로(북러)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에 의하여 경계지어"진다고 했으며 협의회에서는 "조선동해 우리 경제수역에서 우리의 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심중하게 토의되었다"고만 짧게 알렸음.
- 한·일 양국은 동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합의하고 이를 제외한 수역에서 자국 어선과 국민에 대해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는 공해 성격의 한일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 영토인 독도 중심으로 영해 12해리 이내에서는 타국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함. 도고섬은 일본 시마네현 북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오키제도의 섬으로 한일중간수역의 최남단, 이시카와현에서 북쪽으로 50km 위치에 있는 헤구라섬은 중간수역의 최동단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 러시아 수교 73주년 맞아 전략적 협력 강화(연합뉴스, 10.12)

○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과 로씨야(러시아)는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과 변천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정상적인 접촉과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쌍무관계와 국제문제들에서 전략적 협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음.

- 러시아는 소련 시절이던 1948년 10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관계를 형성했으나 양국 관계는 중·소 분쟁으로 부침을 거듭했고 한러 수교로 더 악화했다가 2000년 2월 경제협력을 골자로 한 '조로(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과 같은 해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방북으로 점차 회복됐음. 이어 2019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는 빠르게 개선되며 한반도 문제와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러, '대북제재 완화'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안(뉴스1, 10.31)

○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러 양국이 마련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며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민간영역을 상대로 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음

- 이와 관련 중·러 양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 건설·난방·철도장비와 가전제품, 공구, 컴퓨터 등 민수품의 대북 판매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음. 중·러 양국은 특히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함.

○ 중·러 양국은 지난 2019년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적이 있음. 그러나 당시엔 "미국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보리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이 전했음.

- 그러나 소식통은 "중·러 양국의 제안을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승인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음. 소식통은 특히 미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러 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음.

- 북한은 지난 9월에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이달 19일에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있는 사항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 10여명 귀환(뉴시스, 11.25)

○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 10여 명이 열차 편으로 본국으로 귀환함.

- 이에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뉴스사이트 NK뉴스(NK NEWS)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 10여 명이 열차편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를 포함해 2명의 외교관만이 남게 된다고 전했음.
- 이어 팔레스타인 대사도 곧 북한을 떠날 예정이라면서 북한에는 중국, 쿠바, 이집트, 라오스, 몽골리아,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의 외교관들만 남게 된다고 밝혔음.

◆ 기타국제관계

IOC, 北 내년말까지 자격정지…2월 베이징올림픽 참가 제동(연합뉴스, 09.09)

○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함.
-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됨.
-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음.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게는 IOC가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음.
-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으며, 이에대해 IOC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IAEA, 북한 결의안 채택…북한, 구체적 CVID 조치 나서야(VOA, 09.25)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5차 총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며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이번 결의안은 먼저, 영변 5MW 원자로 가동,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작업과 일치하는 새로운 징후 등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고 또 이런 활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평가에도 주목함.

-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핵 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함.
-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함.
- 아울러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방식의 포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모든 회원국에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주북 EU회원국 외교관 전원 철수…루마니아 대사관도 문 닫아(연합뉴스, 10.14)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북한주재 공관을 운영하던 루마니아마저 대사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짐.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직원 2명을 지난 10월 9일 중국 국경을 통해 철수시키고 문을 닫았음.

- 루마니아 외교부는 "북한 당국이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평양에 위치 한 루마니아 대사관의 활동은 10월 9일 중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음. 그러면서 "(북한) 현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관련) 제약은 순환 근무를 시행하려는 루마니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 당국의 규제로 인력 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사관 운영을 중단했음을 시사했음.
- NK뉴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쿠바, 이집트, 라오스, 몽골,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등이 북한 공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존 에버라드 전 주북 영국대사는 NK뉴스에 "스웨덴이 1970년대 평양 대사관 문을 연 이래 서방 외교관이 북한에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며 "북한의 고립이 두드러지게 깊어졌다"고 말했음.

유엔총회 제1위원회, 북핵·미사일 폐기촉구 결의안…北반발(연합뉴스, 10.29)

○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밝힘.

- CTBT 결의안은 그간 6차례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키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거나 북한에 대한 이중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긴장을 고조할 뿐"이라며 "한반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적대적 태도"라며 "우리는 비난하면서 미국과 미국에 굽신거리는 세력들이 행하는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했음.

◆ 북한 경제 사회 일반

北 자본주의, 여성들의 지옥…정작 北은 성차별 일상화(뉴시스, 08.01)

○ 북한 외무성은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75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여성 존중과 여성 학대'라는 글에서 "여성 중시, 여성 존중의 정치가 구현된 사회주의가 여성들의 천국이라면 여성 천시, 여성 차별의 사회적 풍조가 만연된 자본주의는 여성들의 지옥"이라고 밝힘.

- 아울러 북한은 지난 6월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처음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VNR)' 보고서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로 이미 오래 전에 성평등을 달성했고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대부분 성취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미국의소리 방송은 "북한이 지난 1월 개최한 8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행사 단체사진을 보면 여성은 극소수만 포착됐고 지난 3월 종료된 제1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단체사진에 여성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여성 성평등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함.

북한 표현의 자유 전 세계 유일하게 '0점'(연합뉴스, 08.03)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가 최근 발간한 '국제 표현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점수는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세계 최하위였음. 조사대상국 중 0점은 북한이 유일함. 시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가 각각 1점을 받았고, 중국은 2점을 기록했음.

-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점수에 따라 '위기-매우 제한적-제한적-약간 제한적-개방' 등 5단계로 분류했음. 북한과 함께 '위기' 단계에 속한 나라는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이란, 쿠바 등 35개국이었음.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위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95점을 받은 덴마크와 스위스였고,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가 94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표현의 자유 점수는 83점을 기록해 미국·호주·페루와 함께 31위를 차지했음.
- 이 단체는 언론의 자유와 학문·문화 표현의 자유, 인터넷 검열, 정치적 표현에 따른 체포, 언론인에 대한 탄압 등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점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음.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 역성장…김정은 집권 10년 우울한 경제 성적표(중앙일보, 08.03)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았던 2020년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자연재해,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 블룸버그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이 4.5% 줄었다고 전했음. 북한의 지난해 실질 GDP는 31조 4,000억 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의 33조 8,000억 원보다 줄었음.
- 북한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에서 "자연재해와 회복 능력 약화, 부족한 농자재, 낮은 기계화 등으로 2018년 식량 생산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시인한 것을 들어 식량 사정이 긴박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음.

일본 언론 北 식량난에 군량미 판매…무상배급 기대한 주민 불만(한국경제. 08.09)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식량 판매소에서 군량미였던 쌀과 옥수수가 시장 평균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음.

-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봉쇄, 작년부터 계속된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량부족으로 북한 각지에서 쌀값이 급등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 이 비축한 식량을 방출하라는 지시가 포함된 '특별명령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 내년 초까지 약 400만t의 군량미가 방출될 계획이지만, 무상 배급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게 해당 매체의 전언임.

'함남 수해' 북한, 함북에도 폭우…화대 395㎜ 등 많은 비(뉴스1, 08.12)

○ 조선중앙TV는 함경남도에 내린 폭우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함경북도 지역에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까지 물에 잠겼음.

- 매체에 따르면 8월 초 폭우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렸음. TV는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8월 11일 오후부터 비가 사납게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음. 이어 "앞으로 함경북도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면서 "특히 국부적 지역에선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라고 전함.
- 함북 화대군에는 395㎜, 명천군 보촌리는 179㎜, 경성은 145㎜, 김책은 118㎜ 등의 비가 내렸음. 보도된 영상에는 물에 잠긴 거리와 물길을 헤치고 나가는 차량, 우산을 쓰고 힘들게 걸음을 옮기는 주민의 모습 등이 담겼음.

- 신문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 해당 지역들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냉한현상과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한국은 '동물성' 밥상, 북한은 '식물성' 밥상?(중앙일보, 08.1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9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식단의 서구화에 따라 지난 40년간 한국인들의 육류·우유류·설탕·지방의 섭취는 늘고, 양곡 섭취는 크게 줄었음. 반면 북한의 전반적인 영양 공급은 먹거리가 부족하던 한국의 70년대 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 1인당 연간 쌀 공급량은 1980년 132.9㎏에서 2019년 70㎏으로 절반 가까이(47.3%) 줄었음. 쌀을 포함한 전체 곡류는 같은 기간 185㎏에서 133.2㎏으로 28% 감소했음. 반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13.9㎏→68.1㎏), 계란(5.9㎏→10.8㎏), 우유류(10.8㎏→ 71㎏), 어패류(22.5㎏→ 42.3㎏) 등 축수산물의 1인당 공급량이 모두 늘었음. 설탕류도 1980년 10.3㎏에서 2019년 24.4㎏으로, 유지(油脂)류는 5㎏에서 27.5㎏으로 크게 증가했음.
- 이는 경제 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식습관이 서구화하면서 식단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됨. 외식산업이 발전해 육류를 파는 음식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북한의 1인당 연간 주요 식품 공급량을 보면 곡류가 178.9㎏, 고구마·감자 등 '서류'가 61.3㎏으로 한국보다 각각 1.3배·5.3배 많았음. 그러나 육류 공급량은 13.4㎏으로 한국의 5분의 1이 안됐고(19.7%), 우유는 2.9㎏으로 한국의 4%에 불과했으며 계란·어패류·유지류 공급도 한국에 크게 못 미쳤음. 전반적인 영양 공급이 곡류 의존도가 높고, 육류 소비가 적었던 한국의 70년대 후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 방울도 아깝다…석유부족 시달리는 北, 폐유 재활용 안간힘(연합뉴스, 08.21)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폐유를 재이용하니 얼마나 좋은가'란 기사를 통해 폐유의 불순물을 걸러 재사용을 독려함.

- 신문은 "한번 이용하고 버리던 폐유를 재자원화할 수 없겠는가"라며 "폐유를 재자원화한 제품의 기술적 지표가 새 제품 수준에 도달했으며 실수율은 80% 이상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설명함.

○ 작년부터 폐유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돼 왔고 폐유로 비누나 농약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는 정화해 터빈유로까지 재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음.

- 이는 대북 제재로 원유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며 경제 되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전력 공급은 급선무였기에 폐유 재이용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읽히고 있음.

- 이번 폐유 재이용이 화력발전소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임.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음. 김정은 국무위원장마저 올 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음.
- 다만 재활용된 폐유가 문제없이 작동할지는 미지수임. 노동신문 역시 "터빈유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본인자인 불순물을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당초 실험에서 실수율이 50% 정도였다고 언급했음.

北도 최대 관심사는 경제(서울경제, 08.22)

○ 현대경제연구원이 북한 당국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및 방향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의 관심이 원자력 활용 증대, 산림 조성, 주택·식수난 해결 등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음.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은 대외 이미지 제고와 대북 개발 협력 유인 등을 위해 유엔에 SDGs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북한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념에 따른 북한식 사회주의 완성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전 국가적인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17개 목표, 95개 세부 목표, 132개 이행 지표를 설정했음.
- 북한의 SDGs 상위 목표는 인민정권 강화와 인민대중 제일주의 구현, 과학과 교육에 기반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 및 지식 기반 경제 구축, 완전히 발달된 사회주의 문화 건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원은 17개 SDGs 이슈 중 15개가 경제와 연계될 만큼 북한 당국의 관심이 경제에 집중돼 있다고 봤음.
- 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재개될 남북 경협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가 적용돼 경제·사회·환경 부문에서 조화를 이루고 남북이 상생·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힘.

北, PCR 설비 개발 주장…국산화 등 자립경제 강조(뉴시스, 08.23)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이 기술 국산화, 비용 절감 등 성과를 언급하면서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분야별로 성과를 소개함.

- 비상방역전과 관련해 북한이 PCR 검사 설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전력공업과 관련해서는 "수력터빈 모형 시험장을 새로 꾸리고 모형 터빈 정확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도입했고 합리적 운영낙차 조절법, 종합효율특성 시험 방법도 확립했다"고 소개함. 이어 "전기연구소에서는 북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대용량 화력터빈 발전기에 성능 높은 수자식 여자조종장치를 개발 도입해 전력 생산의 정상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이바지 했다"고 전했음.
- 아울러 "자동화연구소에서는 보일러연소 자동조종 체계를 개발하고 어느 한 화력발전소 보

일러에 도입함으로써 연소 효율을 종전보다 훨씬 높여 많은 석탄과 중유를 절약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함. 이외에도 수해 조절 모의 예측 방법 및 관리정보체계를 개발해 수력발전소에 도입했으며 채광법 개선, 포집기 구조 개조, 벼 품종 개량, 가죽 가공 약제 국산화 등 실적이 있었다고 언급함.

북한서 화장품 산업 비약 성장…공화국의 립스틱'은 옅은 색(연합뉴스, 08.24)

○ 전영선 건국대 연구교수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에서 경제 돌파를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화장품 산업의 성장으로 여성들의 '선택할 권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전교수는 "북한은 화장품에 인증이나 특허 등을 적극적으로 출원하고,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도 변화를 주는 등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 내에서 허용되는 화장 스타일이 '사회적 미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음.

○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여성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개성을 표출하기보다는 여성성이라는 한계에 더 갇히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음.

- 토론을 맡은 통일연구원 이지순 연구위원은 "예의와 도덕으로 여성의 화장을 강조하는 것은결국 여성의 신체를 미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라면서 "여성성 안에 여성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으며, 전 교수도 "(북한의 화장 문화에는)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 것으로, '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여성을 여성성이라는 틀 안에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분석을 내놨음.

북한군, 경제회생 위해 물자방출·복무단축·무기생산 축소(연합뉴스, 08.31)

○ 조남훈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북한군의 조치'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들어 군이 물자와 인력을 방출하면서 경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자원 투입은 전쟁예비물자 방출, 병사 복무기간 단축, 재래식 무기 생산 감소 등 세 가지로 이뤄졌다고 분석함.

- 조원장은 우선 지난 6월 김 위원장이 '특별명령서'를 통해 식량·물자 부족 상황에서 전쟁예비물자를 방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쟁예비물자 방출에 대해 "현재의 식량·물자 부족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장기간의 전면전에 필요한 상당량의 전쟁예비물자를 더 이상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음.

- 또 군이 병사의 복무기간을 9~10년에서 7~8년으로(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줄여 조기 전역을 통해 생산 현장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꾸준히 늘던 전차와 장갑차 보유 대수

가 2014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 생산을 줄였다고도 추정했음.

- 그는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핵 능력 강화로 인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꼽으면서 "핵 개발을 통한 대미·대남 억제 능력 향상을 믿는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보유와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음.

백신 안 받는다던 北 돌연 선진 방역기술 적극 받아들여야(뉴시스, 09.04)

○ 북한 노동신문은 '천백번 각성 또 각성하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 부문을 비롯한 연관 단위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방역체계와 질서를 더욱 완비하며 선진적인 방역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리 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여지가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됨.

- 한편, 북한은 백신 도입 전까지 접경 봉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변이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함.

북한, 수해로 '국토환경 관리'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 삼아(아시아경제, 09.06)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의 경제정책 집행에서 제일 우선적인 중심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토관리 사업은 열을 투자해 백을 지키고 천을 얻는 일"이라며 "우리 국가가 빠르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반드시 자연의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신문은 "(국토관리사업은)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거창한 자연개조사업으로, 모든 시·군에서 자체 힘으로 추진하고 시·군 책임 일군(간부)들이 자기 지역의 국토관리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했음.

- 북한이 국토환경 관리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임. 2019년에는 태풍 '링링'이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도를 덮치면서 농경지 4만 6,200여 정보(약 458㎢)가 침수·매몰 피해를 보았고, 지난해에는 8월 장마와 9월 잇단 태풍으로 황해북도에서 주택 730여 채가 물에 잠기고 함경도에서는 주택 1,000여세대가 붕괴했음.

올해 1~7월 北中무역, 전년比 82%↓…생필품 수급불안 심화(뉴시스, 09.07)

○ 올해 1~7월 북중 무역규모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통제 등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8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방역 통제로 인한 북중 무역 감소로 쌀, 식료품, 의약품 등 생필품 수급 불안정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음. 다만 북한 내 수해 규모는 예년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통일부는 진단했음.

-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북한 내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 "7월

가뭄, 폭염에 이어 8월 초순 함남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으나 피해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음.

- 통일부는 지난해 8~9월 수해 규모를 주택 1만 6,680여 세대·공공건물 630여 동 파괴·침수, 농작물 피해 3만 9,296정보, 도로 6만m·다리 59개·철길노반 3,500 여m 유실·붕괴 등으로 추산했음. 반면 지난 8월 함남 지역 피해는 주택 1,170여 세대 파괴·침수, 농경지 수백 정보 매몰, 도로 1만 6,900m·다리 여러 개 유실·파괴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음.
- 북한 내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수급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물가,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민생고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함. 북중 무역액은 지난 1~7월 미화 약 8,666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1% 급감한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함.
- 통일부는 "지난 1~7월 북중 무역액은 코로나19 이전 동기 대비 규모의 약 15분의 1에 불과하다"며 "북중 무역 감소로 곡물, 생필품 도입이 급감하면서 쌀, 식료품, 의약품 등 중심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음.

제품 전시장까지…북한의 건강장수식품 '강냉이' 사랑(뉴시스, 09.08)

○ 북한 대외용 월간지 조선은 9월호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을 소개했는데, 올해 식량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건강장수식품'으로 강냉이(옥수수)를 조명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전시장은 지난 2016년 7월 문을 열어 강냉이가공식료품에 대한 개발·전시, 강냉이 음식 및 차 판매를 하는 장소로 1층에 자리 잡은 상점에서는 청류경제기술사에서 개발, 생산한 다종다양한 강냉이 가공식료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2층에는 강냉이를 특색 있게 가공하여 만든 여러가지 요리를 판매하는 식사실을 갖추고 있음.
- 옥수수는 쌀이 부족한 북한에서 주식 역할을 하는 주요 작물로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을 조명하고, 영양가와 해독 작용 등 강냉이 효능을 자세히 전달하는 기사 내용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인민 식생활 향상성과를 내라고 강조하는 노동당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옥수수를 이용해 만든 가공 식품의 생산과 소비도 장려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음.

북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1천명당 17명…한국의 6배(UPI뉴스, 10.06)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2021년 세계아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한 해 평균 6.5%p 감소했음.

-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지난 2000년 1,000명당 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7명으로 줄어듬. 하지만 이 수치는 2000년 8명, 2019년 3명을 기록한 한국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임.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000년 1,000명당 33명에서 2019년에는 13명으로 줄었음.

○ 2020년 기준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72세로, 한국의 83세보다 11년 짧았음. WHO가 지난 5월에 발표한 '2021 세계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21)'에서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2019년 기준)은 72.6세였음.

-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77만 9,000명으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18세 미만을 622만 5,000명, 5세 미만을 174만 6,000명으로 추정했음.
- 지난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매해 인구 증가율이 0.6%에 그친 가운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 증가율은 그보다 절반이 더 낮은 0.3% 수준으로 추정했음.

○ 이외 2020년 기준 북한 아동의 소아결핵 예방접종 BCG와 뇌척수막염균 예방 접종률은 각각 99%,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DTP3 예방 주사 접종률이 98%로 조사했으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북한 여성의 74%가 노동(경제활동)을 남성은 전체의 88%가 일을 하고 있다고도 발표함.

북한, 평양서부 끝자락에 또 주택 대단지 건설…만경대 부근(연합뉴스, 10.10)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등에 따르면 북한이 평양 서쪽 변두리 지역이자 김일성 주석의 출생지인 만경대 인근 대평지구에 현대적 주택 건설을 위해 수만㎡ 규모의 지대 정리가 이뤄졌으며, 고층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함.

- 대평지구는 평양 서쪽 변두리 지역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와 가까움. 평양 도심에서 남포시 소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남포항 방향으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함.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선에 있고 이제 강소의 옛 명칭은 강선제강소임.

○ 북한은 올해 안에 평양에 주택 1만세대, 5년 안에 5만세대를 짓겠다는 목표를 잡고 수도 곳곳에서 건설사업을 진행 중임.

- 지난 3월 착공식을 열고 평양 동남부에 위치한 송신·송화지구를 가장 먼저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김일성 주석이 살던 '5호댁 관저'가 있던 도심에는 경루동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이고 보통강 강안 다락식(테라스형) 주택구 조성에 나섰음.
- 이외에도 평양비행장으로 향하는 길목의 북부 변두리 서포지구, 서쪽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금천지구, 금수산태양궁전 북쪽에 1998년 9월 개통된 8㎞ 길이의 9·9절 거리에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 위치로 볼 때 도심지 경루동을 제외하고는 대평지구를 비롯해 송신·송화·서포·금천지구 등은 모두 평양 외곽에 해당해 서민들을 위한 주거구역이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이처럼 최근 주택 건설에 공을 들이는 것은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주

택을 대거 공급해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음.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설사업을 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북한 선전매체,'오징어 게임'인기에 주목…남조선 실상 폭로(뉴스1, 10.12)

○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 이유를 "극단한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이 만연된 남조선과 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파헤쳤기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밝혔음.

- 매체는 "1등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경기규칙을 만들어놓고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경기를 오락으로 여기며 쾌락을 느끼는 경기조직자인 부자의 형상을 통하여 권력자의 횡포와 전횡이 난무하는 사회, 돈 없는 사람은 부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기쪽처럼 취급받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격분을 자아내게 한다고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TV극을 본 관람객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남조선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취업, 부동산, 주식 등 치열한 경쟁 속에 탈락자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 남조선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승자로 된 인간은 패자들의 시체 위에 서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사는 현실이 저주스럽다', '지옥같은 공포'라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라고 평함.

- 매체는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작품에 대한 평가를 간접 인용하긴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임.

북한 원화, 경제난에도 올해 달러 대비 25% 급등…왜?(뉴시스, 10.15)

○ 북한의 '장마당' 환율을 추적하는 2개 매체(데일리NK, 일본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올해 북한 원의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25% 급등했음. 지난해에도 북한 원은 15% 뛰었음.

- 원/달러 환율은 2013년 초 이후 8,000원선에서 거래됐지만, 지난해부터 월평균 4,723원으로 급락했음. 원화 가치는 2012년 6월 이후 최고로 치솟기도 했음. 최근 원/달러 환율은 5200원 선임.

○ 원화 강세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발하면서 원화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90%씩 급감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까지 거의 사라졌음.

-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경제학교수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원화가치의 급등은 북한

내부에서 외화의 매력이 사라진 데다 정부가 외화사용을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한국 국가싱크 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무역이 급감한 와중에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 경제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며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

2011년 착공 북한 정방산 호텔이 10년 만에 지어진 이유는(뉴스1, 10.27)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방산 기슭에 현대적인 호텔이 준공됐다며 준공식 개최 소식을 보도했음. 이에 따르면 호텔은 3개 호동의 건물로 구성됐으며 운동실, 수영장도 갖추고 있음.

- 정방산 호텔 착공식 보도가 지난 2011년 9월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호텔 건설에 무려 10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1년 5~10월 어느 시점에 호텔 건설이 시작됐지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중단돼 건물 뼈대가 노출돼 있었다고 보도했음. 북한 매체들은 2016년부터 종종 기사를 통해 호텔 건설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도해 왔지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음.

○ 10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호텔 건설을 이제 와서, 그것도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완공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는 북한이 올해 강조하는, 핵심 과업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어 보임. 북한은 최근 들어 부쩍 수도 평양뿐 아니라 지방 경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호텔 역시 지역 발전 차원에서 완공을 서둘렀을 수 있음.

- 특히 호텔을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 '지역 인민 생활 향상' 방침에 따라 내수용으로 건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북한 전문 관광 회사인 고려투어스(Koryo Tours)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 역시 "이 호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지 주민들만을 위한 호텔 같다고 NK뉴스에 말했음.

北 내각전원회의, 3분기 경제 사업 점검·소비품 확충 논의(뉴시스, 10.27)

○ 북한이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경제 사업을 점검하고 소비품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함.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을 총화했다"고 보도했음.

- 회의는 김덕훈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내각 총리가 지도했으며, 전현철·박정근 부총리 등 내각 성원들이 참여함. 내각 직속기관과 성 기관 간부,

시·도·군 인민위원장 등은 방청했음.

- 보고에서는 분기 간 경제조직 사업성과가 언급됐고, 국산화·재자원화 분야 성과 평가가 이뤄졌음. 또 경제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 편향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일부 간부들의 무책임한 사업 기풍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북, 가부장적 분위기 팽배로 생계·양육 아내가 도맡아(연합뉴스, 11.04)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에서의 결혼 생활' 토론회에서, 지난 2017~2019년 탈북한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 남녀 3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한 탓에 대부분 가사·양육까지 도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0명 중 여성이 생계 부양 주체였다는 응답은 총 28명(47%)으로, 남성이 생계 부양을 책임진 경우(22명·37%)보다 많았음. 보고서는 배급제 중심의 중앙계획경제 체제가 붕괴하며 여성이 장마당 활동 등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경우가 늘어난 반면, 남성은 경제적 기여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성 역할의 재구성이 진행됐다고 분석했음.

-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탓에 가정 내 공정한 가사·양육 분담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가사분담 현황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1명(68%)은 '아내가 전담한다', 8명(13%)은 '주로 아내가 한다'고 답해 전체 80% 이상이 여성이 가사를 떠맡는 것으로 조사됐음.

- 양육의 경우도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41명(68%)으로 공동 분담(4명·7%) 또는 '주로 남편이 한다'(2명·3%)는 응답률보다 훨씬 높았음.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력 변동보다 사회구조와 문화에 뿌리내린 가부장성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력 위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유엔, 북한 주민 42%가 영양부족…필요한 열량 86%만 섭취(연합뉴스, 11.05)

○ 북한 주민 상당수가 수년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세계 식량과 농업 연감 2021'에 따르면 2018~2020년 북한 전체 인구의 42.4%인 1,09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음.

-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전 세계(8.9%)나 아시아(8.2%) 평균치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치(19.0%)를 크게 뛰어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2000~2002년 35.7%, 2004~2006년 33.8%, 2009~2011년 42.6%, 2013~2015년 40.6%, 2015~2017년 41.2%, 2016~2018년 24.9%, 2017~2019 42.6% 등으로 점차 심화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북한인의 2018~2020년 하루 섭취 열량은 2,75㎉로 세계 평균(2,950㎉)보다 30% 가까이 적었으며 북한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 적합성'은 86%에 그쳤음. 필요한 열량의 86%만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임. 한국(3천465㎉)보다는 매일 40.1%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AO는 연감에서 2019년 전 세계 농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2000년과 비교해 73% 성장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 농업 종사자 수는 2000년 1억 5,000만 명에서 20년 만에 8억 8,400만 명으로 다소 줄었음.

북한에도 사진 스튜디오…캐논 카메라로 찍고 포토샵 보정(연합뉴스, 11.06)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동영상을 통해 평양시내의 '동문진기술 교류소'라는 실내 스튜디오를 소개함.

- 내부 안내 데스크 벽에는 '사진기술연구 및 보급 거점', '사진 및 사진기술 교류, 상담, 협력, 협조, 사진 배경 막, 풍경 사진 판매' 등의 설명이 적혔음.
- 천장 레일과 조명 박스 등 촬영 장비는 물론 조화, 책장, 모형 자동차, 탁자, 인형 등 각종 소품이 비치된 것이 한국의 여느 스튜디오와 흡사했으며, 이들은 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다른 장막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함. 마스크를 쓴 사진사는 망원 렌즈를 장착한 일제 캐논 카메라 EOS 5D 마크Ⅳ 모델로 사진을 찍었고 촬영 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색채균형점 등을 보정하는 장면이 이어졌음. 보정에는 미국 어도비 사의 유명 프로그램 '포토샵'을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음.

'철도' 사업 개편 조짐 보이는 북한…'현대화' 또 강조(뉴스1, 11.11)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철도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단계별 실행대책 강구' 제목의 기사에서 철도 운수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며 철도 현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함.

- 신문은 철도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대적인 기계설비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철길 보수와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관차와 객화차에 대한 수리, 그리고 철도 수송능력 관련 규율과 질서 확립 사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함.
- 북한은 지난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철도화물수송법'을 채택했음. 여기에는 ▲수송조직과 지휘 개선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 ▲철도화물소송에서 지켜야 할 원칙 등이 명시됐음.
- 이같은 보도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어서 더욱 주목됨.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관계 경색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임.

얼굴·음성 인식·자동번역…북한 과학계는 AI 열풍(뉴스1, 11.15)

○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가상(비대면)방식으로 개막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1'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음.

- '자력갱생과 정보화 열풍' 주제로 진행된 올해 전람회에는 전국 260여 개 단위에서 1,200여 건의 정보화 성과와 정보산업 및 정보기술 성과, 정보기술제품이 출품됐음. 매체는 특히 인공지능프로그램 경연에 대해 "인공지능기술 수준과 발전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의 성능이 훨씬 제고되어 순위를 가르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지적함.

- 경연은 얼굴인식과 음성인식, 문자인식, 기계번역프로그램 경연 등 6개 분야로 진행됐는데 지난시기에 비해 경연에 참가한 단위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났으며, 한 단위가 2~3개에서 많게는 5개 분야 경연에 참가해 순위권을 다투었다고 함. 매체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인공지능프로그램 경연이 얼마나 인기를 모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전함.

- 전람회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외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 성과들도 소개됐는데,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봇공학연구소는 기계공업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프로그램을, 열공학부는 석탄을 적게 쓰면서도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계산프로그램을, 반도체연구소는 발전기 정상운영관리를 위한 발전기보호용 온도측정 체계를 개발 도입했음.

- 농업 부문에서는 논벼예상수확고 평가프로그램, 이동식 농업기상관측기를, 보건 분야에서 종합병원지원체계와 중환자종합감시체계 관련 정보기술성과들이 눈길을 끌었다고 함.

북한 주재 '이방인'의 삶은… 은행 못 써 돈다발… 물·전기 공급도 어려워(한국일보, 11.23)

○ 북한에 체류했던 외교관 및 국제기구 요원들의 '북한 생활기'가 공개됨. '세계 최고의 운둔 국가'라는 북한의 이명이 허언이 아님을 방증하듯 이들은 입을 모아 북한 당국의 통제를 꼬집었음.

-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비밀 내부 문서를 발췌해 북한에 살고있는 외교관 및 국제기구 파견자들의 어려움을 전함. 대부분 북한 외교관이나 정부 관료들과의 교류와 북한 내 이동이 금지됐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등 북한의 정치나 핵 관련 활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한 일상적인 여행조차도 북한 정부가 보낸 수행원을 동반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구호 요원이나 현지인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의 길도 막혔다고 FP는 전했음.

- 발레리 수키닌 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11년 9월 12일 유엔 안보리 사절단에 “은행 거래가 막혀 직원들 월급이나 생활 경비로 쓸 돈은 러시아 모스크바나 중국 베이징에서 현금 꾸러미로 들고 와야 했다”고 증언함.
- 시리아 대사관은 유엔에 시장에는 외국인이 먹을 만한 식료품이 없고, 소비재나 전기·전자제품 등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비쌌다고 밝혔음. 컴퓨터, 복사기 등 기본적인 사무기 구입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캐런 울스턴홈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011년 당시 물과 전력공급이 일정치 않아 영국, 독일, 스웨덴 대사관이 있는 외교단지는 발전기 한 대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음. 쿠바와 몽골 대사관은 그마저도 발전기가 고장나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도 전했음.

◆ 북한 농림수산 축산업, 기타

북한, 해외기구와 환경분야 협력 단체 만들어(연합뉴스, 08.11)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는 "2017년 8월에 창설된 평양국제환경협조사를 세계 여러 나라 비 정부기구 및 단체들과 환경보호·자연보호 분야에서의 협조를 진행하는 비정부단체"라고 소개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대상 계획들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그 이행에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을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함.

- 협조사는 습지보호구의 고니·기러기·비오리 등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과 기후변화 등 계획의 개발·이행, 백두산 환경보호와 칠보산 생물권보호구 생태보존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진행한 토론·전시회 협력 등 역할을 했음.
- 또 북한 내 단체의 기술 자문을 하고, 생태·환경 관련 도서 출간과 대중선전 활동도 벌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국제 사회의 생태·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전국적 산림복구 진행하는 북한 유훈 관철이자 당 정책 옹위(뉴스1, 08.25)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쓸모있게, 전망성 있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늘의 산림조성은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며 산림복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신문은 후대들에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산림조성 사업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내려온 교시이며 또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함.
- 불법 개간과 마구잡이 벌목으로 산림이 황폐해진 북한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산림조성에 사활을 걸고 기사를 통해 산림조성이 새 국가경제발전 계획의 하나라

는 사실을 환기하며 올해가 5개년 계획의 첫해인 만큼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 튼튼하게…유제품 공급 박차(뉴스1, 08.27)

○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이라는 제목으로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및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양육조건 개선을 당의 중차대한 과제로 내세운 북한이 어린이 식료품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소개함.

- 해당 매체에는 생산 및 연구에 집중하는 공장 근로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젖떼기 시기 식료품'이라는 코너에서 판매 중인 애기젖가루(분유), 영양암가루(이유식), 콩가루, 펩티드영양제, 펩티드뼈가루 등의 사진이 다수 실렸음. 매대에는 홍당무, 종합냄새, 사과, 과일향 등 다양한 향과 맛 제품이 전시됐고, 어린이들을 위한 간유사탕 등도 눈에 띄었음.
- 북한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평양시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어린이 성장·지능 발달에 좋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품질과 가짓수를 늘려 각 가정과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음.
- 해당 기사들은 양육조건 개선을 천명한 당의 육아 정책 강화 기조를 주민들에게 선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풀이됨. 다양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당의 정책과 사업을 체감하게 도우면서임.
- 메아리는 "더 많은 젖제품(유제품)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양강도 인민위원회 과장의 다짐을 전하고, 지난 7월에는 함경북도·황해남도·자강도 등 각지에서 원만한 유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함.

북한, 동해서 더 많은 물고기잡이 어로전투 벌여(연합뉴스, 10.28)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집중적인 어로 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데 대한 시정방침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동해지구 수산 단위들이 물고기잡이에 일제히 진입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어로작업을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신문은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함경남도수산관리국, 통천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등 관련기관들이 벌이는 활동을 전하며 "모든 관리국, 사업소가 어황 자료를 공유하고 중심어장을 찾아 물고기잡이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어선 가동을 위한 연료 보장 대책, 어장 분석, 탐색선 운영, 부두에 하역한 생선 신속 처리 등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소개함.
- 대북 제재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은 수산업을 통해 외화벌이 등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어민들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김 위원장은 3년 전 동해

지구 시찰 당시 "매일, 매달 물고기 잡이 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해 어업 현황을 직접 챙기고 있음을 나타냈음.

北식량난 심각…김정은, 낱알 한톨까지 확보해라(연합뉴스, 10.28)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낱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전함.

- 국정원은 북한이 식량난 타결을 위해 전군 전민 총동원령을 내려 예년보다 이른 10월 20일께 벼 추수를 완료했고, 올해 전체 식량 작황은 일조 시간 증가로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이와 더불어 올해 북·중 무역액은 9월까지 1억 8,500여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1/3수준이며, 2019년 동기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음.
- 하 의원은 "경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북한 중앙은행이 용지와 특수 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에까지 애를 먹고 있다고 예를 들었음. 특히 필수 약품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보고 내용임.
- 지난 8월에는 북한 의류생산 2위 업체인 남흥청년화학공장이 한정된 설비와 자원에도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 과부하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음.
- 이에 북한은 대외 교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지난 7월 이후 선박편을 통한 인도 물자 반입을 확대했고, 8월부터는 의료 방역 물자 반입도 일부 허용했음.
- 다만, 국정원은 "방역을 위한 반입 물자가 항구에 적체되면서 유일한 북중 교역 통로이자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포화 상태"라며 "평북 룡천항 추가 개항을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음. 국정원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 간 열차 운행이 오는 11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음.

북한, 개정 산림법에 남벌·도벌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연합뉴스, 11.04)

○ 북한 영문 주간지 평양타임스는 지난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개정한 산림법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개정 산림법에서는 '산림 관리 지침과 통제'를 다룬 제6장은 처벌 관련 규정으로 "산림 관리상 드러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 조직, 개인에 대한 처벌과 형사 책임"을 담고 있음.

- 처벌과 형사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기업소와 주민들 사이에서 자재 부족과 생활고로 땔감이 부족하면서 산림을 남벌하거나 도벌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해 이에 대한 노동교화 등 강력한 처벌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개정 산림법은 또 산림 조사와 관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산림을 조사할 때는 항공사진이나 위성 이미지 분석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과학·합리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 개정 산림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전국의 산림 자원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산림 관리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행해지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모으고 있음.

북한 올해 쌀 생산량 136만t…작년보다 3만8000t 감소…美 농무부(뉴시스, 11.06)

○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가 발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2021년~2022년 양곡연도 북한의 쌀 생산량이 도정 후 기준 136만t으로 예상됐다고 전함. 경제조사 서비스는 전년 같은 기간 쌀 생산량 추정치를 139만 8,000t으로 잡았음.

- 보고서는 금년 전 세계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25만 1,000t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이라크 등 10개국의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음.
- 북한은 2021년 들어 가뭄과 폭염에 이어 홍수 피해를 겪었고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지역에 집중된 장마는 쌀 작황에 영향을 미쳤음. 게다가 추수 기간인 10월 중순에는 북한 전역에 저온 주의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서리 피해가 잇따랐음.
-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분을 86만t으로 추정하면서 석 달치 식량이 모자란다고 지적했음.

북한, 이상기후는 기정사실…국토관리에 요행 바라선 안돼(연합뉴스, 11.16)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바라지 말아야 할 요행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해성 이상기후가 들이닥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기지역, 자기단위의 국토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시기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최근 국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일부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리지킴이나 하다가 장마철을 넘기면 숨을 돌리고 큰물(홍수 피해를 당하면 구구히 변명이나 하는 것은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였으며, 강 하천 정리공사에 필요한 돌을 사전에 확보한 평양시 락랑구역이나 제방축조공사 등에 필요한 화물차를 사전에 동원한 평안북도 태천군 등을 모범사례로 내세우며 산사태 예방과 산림·농경지 보호를 위한 국토관리에 매진할 것을 독려했음.

김필주 평양 과기대 부총장, 한국 갯벌 규조류 1900만톤 탄소흡수력(헤럴드경제, 11.27)

○ 김필주 평양 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은 인천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한 '해양바이

오 경제와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해 한반도의 갯벌 생물 다양성 세계 1위와 갯벌 규조류의 1,900만톤 탄소 흡수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힘.

- 김 부총장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갯벌은 세계 1위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거대한 갯벌을 형성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전세계가 큰 고민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 "195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함.
- '식량안보에 대한 기후변화 시대의 효과와 지속가능한 갯벌관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 부총장은 "평양과기대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와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갯벌에 서식하는 미세한 크기의 규조류가 연간 약 1,9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갯벌을 합하면 더 많은 블루카본(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갯벌) 지역을 확보할 수 있어 생태계를 치유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은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0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서해 갯벌의 잠재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갯벌 규조류를 활용한 탄소중립 방안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언하고 향후 기회가 되는대로 북한 황해도 갯벌과 함께 '쌍둥이 갯벌'로 UNESCO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환경 한반도'로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중국 '요소' 수출 제한에 북한 '유기질 비료' 생산 안간힘(뉴스1, 11.29)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모범 사례로 들며 력 개선을 위한 '유기질 비료'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간 국경봉쇄 조치 장기화와 최근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 등의 여파로 북한도 화학비료 생산이 어려워지자 유기질 비료 등 대용 비료 생산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임.

- 신문은 농민들에게 ▲인회석·카리장석·질석, 고회석 등 각 지역의 원료를 이용한 비료 생산과 ▲우렁이 유기농법 확대 등 지효성 비료 생산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면서 거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음.
- 아울러 신문은 집짐승 우리와 퇴적장, 갯바닥, 아궁, 구들골(방고래) 바닥 등 농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열두 바닥'의 흙이 비료적 가치가 큰 거름이라고 소개하는 기사도 실으며 "한 줌의 거름이라도 더 생산하겠단 높은 각오를 안고 자기 집과 마을 주변에서 원천을 깡그리 찾아 거름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음.
- 화학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은 매년 자체 생산한 유기질 비료를 농촌에 공급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중국 당국이 화학비료의 핵심 성분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기질 비료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음.

북한의 기상[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2021년 7~9월 북한의 기상경과 특징

1.1. 기상경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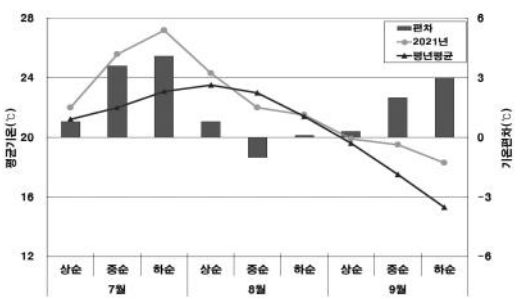
○ 북한의 7~9월 평균 기온은 22.2℃로 평년(20.7)보다 1.5℃ 높았음. 최고 기온은 27.4℃로 평년(25.7)보다 1.7℃ 높았음. 최저 기온은 18.3℃로 평년(16.7)보다 1.5℃ 높았음.

- 월별 평균 기온은 7월 24.9℃, 8월 22.6℃, 9월 19.2℃이었으며, 7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8℃ 높았음. 최고 기온은 7월 30.0℃, 8월 27.5℃, 9월 24.6℃이었으며, 7월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3.6℃ 높았음. 최저 기온은 7월 20.9℃, 8월 19.0℃, 9월 14.9℃이었으며, 7월의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2.2℃ 높았음.
- 농업기후지대별(7개)로 살펴보면, 평균 기온의 경우 모든 기후지대에서 평년보다 1.2 ~ 1.9℃ 높았음.

표 1 북한의 평균기온

단위: ℃

구 분	7월	8월	9월	평균
2021년	24.9	22.6	19.2	22.2
2020년	22.1	23.7	17.9	21.2
최근 5년	23.2	23.6	18.2	21.7
평년	22.1	22.6	17.5	20.7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용석 연구사가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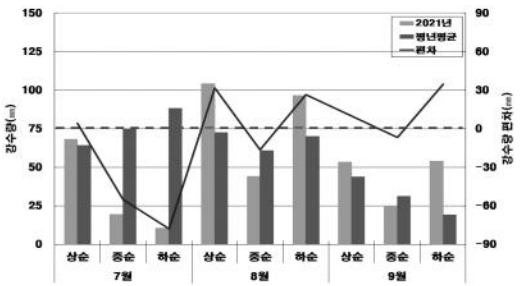
○ 북한의 7~9월 누적 강수량은 474.0㎜으로 평년(523.9)보다 49.9㎜ 적었음.

- 월별 강수량은 7월 97.7㎜, 8월 244.7㎜, 9월 131.6㎜이었으며, 7월은 평년 대비 43.1% 수준으로 평년보다 적었고, 8월과 9월은 각각 120.4%와 140.3% 수준으로 평년보다 많았음.
- 농업기후지대별(7개)로 살펴보면, 동해안 북부 냉해지대에서 평년 대비 164.3%로 평년보다 많았고 그 외 대부분 기후지대에서는 평년 대비 56.5 ~ 89.0%로 평년보다 적었음.

표 2 북한의 강수량

단위: ㎜

구 분	7월	8월	9월	합계
2021년	97.7	244.7	131.6	474.0
2020년	176.5	545.2	243.2	964.9
최근 5년	224.7	274.9	116.8	616.4
평년	226.9	203.2	93.8	523.9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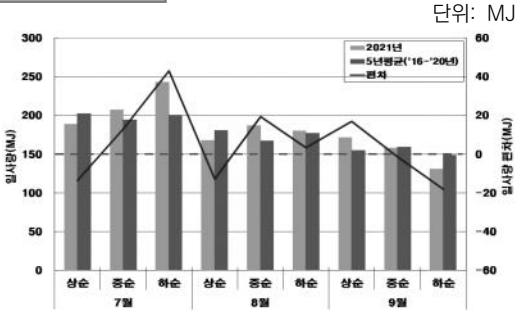
○ 북한의 7~9월 누적 일사량은 1633.7MJ으로 최근 5년 평균(1583.6) 보다 50.1MJ 많았음.

- 월별 일사량은 7월 639.1MJ, 8월 534.4MJ, 9월 460.2MJ이었으며, 각각 최근 5년 평균 대비 107.1%, 101.9%, 99.5% 수준으로 일사량이 비슷하거나 다소 많았음.
- 농업기후지대별(7개)로 살펴보면, 모든 기후지대에서 최근 5년 평균대비 100.7 ~ 106.5%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많았음.

표 3 북한의 일사량

단위: MJ

구 분	7월	8월	9월	합계
2021년	639.1	534.4	460.2	1633.7
2020년	596.2	457.7	421.9	1475.8
최근 5년	596.7	524.4	462.5	15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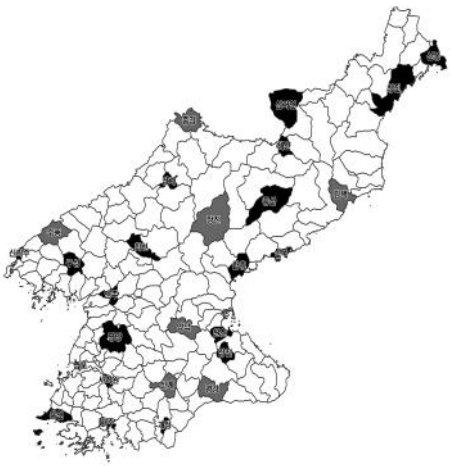
자료: MT-CLIM 4.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정

○ 금년에는 태풍의 피해는 없었으나 7월의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일부 밭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9월에는 일부 지역에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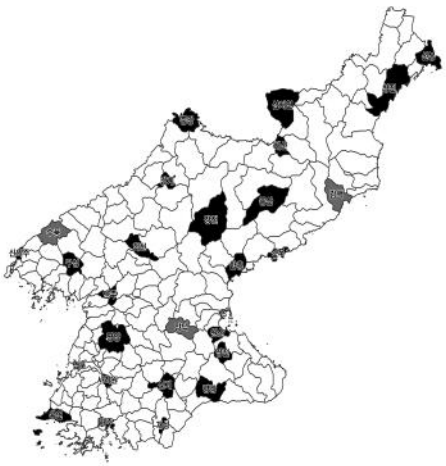
1.2. 지역별 평년대비 기상 분포도(27개 지점)

그림 1 월별 평균 기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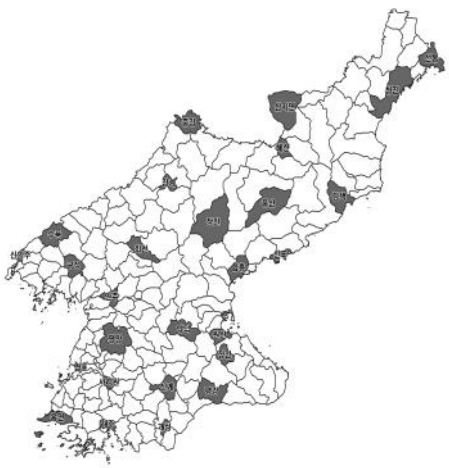
〈7~9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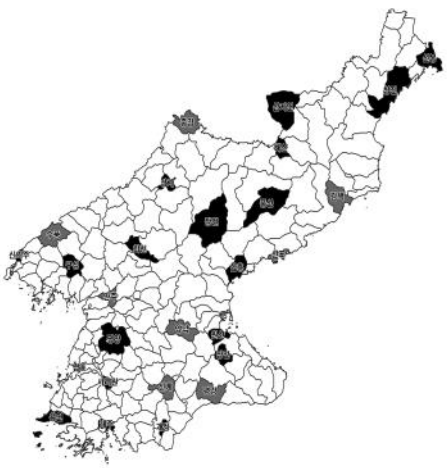
〈7월〉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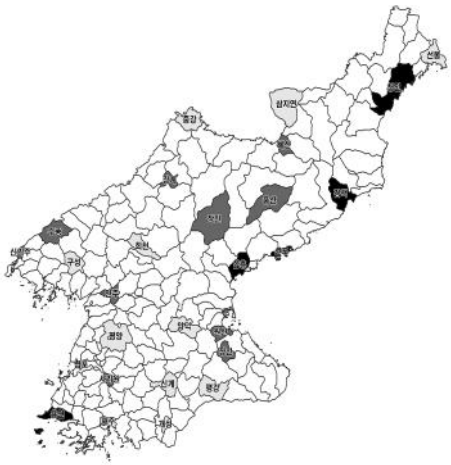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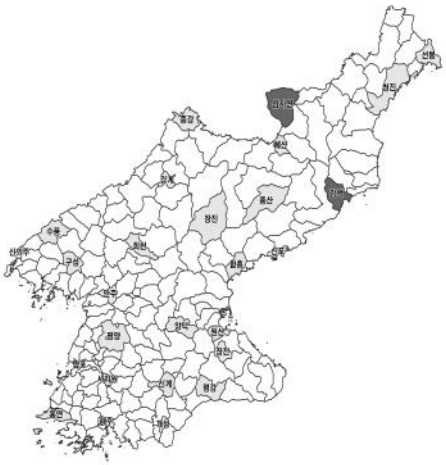
■평년보다 높음 ■평년과 비슷함 ■평년보다 낮음
※ 기온의 평년 비슷 범위: 평년평균±1σ 범위내에 구간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그림 2 월별 강수량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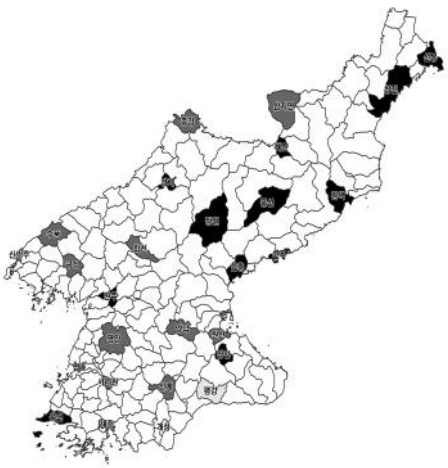
〈7~9월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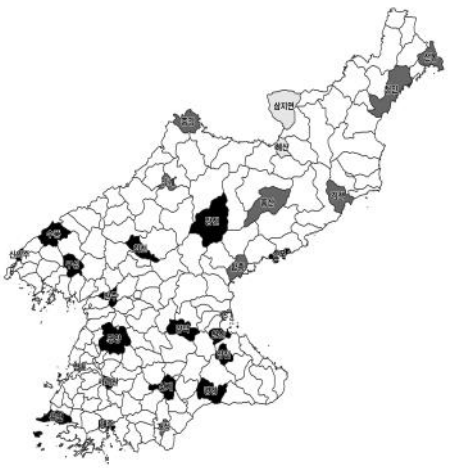
〈7월〉



〈8월〉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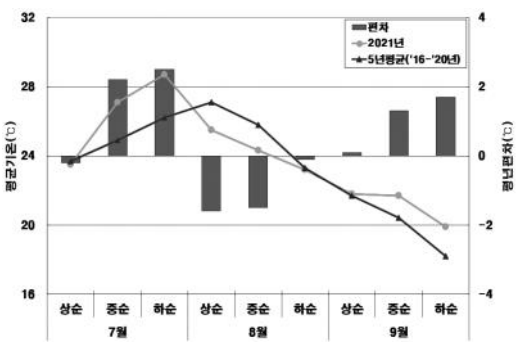
■평년보다 많음 ■평년과 비슷함 ■평년보다 적음
※ 강수량의 평년 비슷 범위: 평년강수량의 33~66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구간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2 2021년 7~9월 북한의 농업기후지대별 기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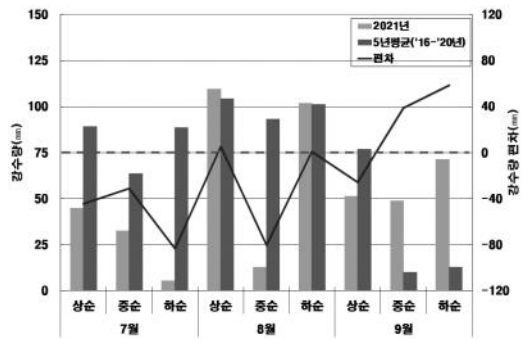
그림 3 서해안수양산이북지대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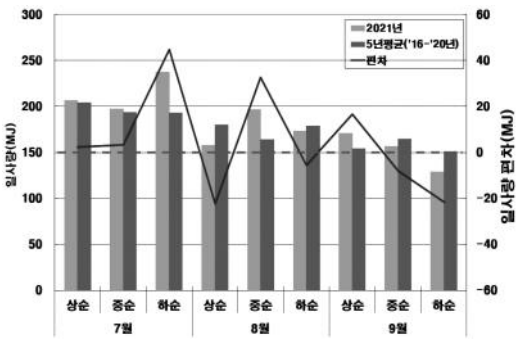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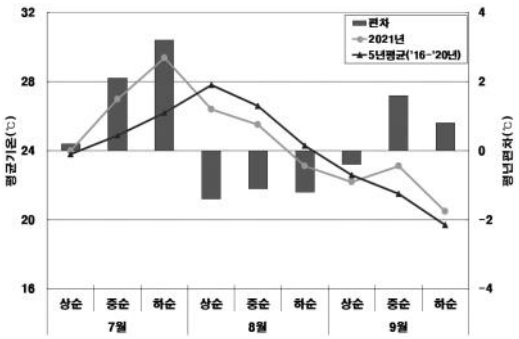
기상요소	2021년				2020년				최근 5년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평균기온(℃)	26.4	24.3	21.1	23.9	23.7	25.1	19.8	22.9	24.9	25.4	20.1	23.5
최고기온(℃)	31.2	28.9	26.4	28.8	28.4	28.5	24.9	27.3	29.6	30.0	26.0	28.5
최저기온(℃)	22.7	21.0	17.0	20.2	19.8	22.7	15.7	19.4	21.5	21.9	15.6	19.7
강수량(㎜)	82.2	223.8	171.2	477.2	194.0	737.3	171.9	1103.2	241.3	298.3	99.3	638.9
일사량(MJ)	641.0	527.2	456.1	1624.3	595.7	426.3	435.5	1457.5	590.5	522.3	469.3	1582.1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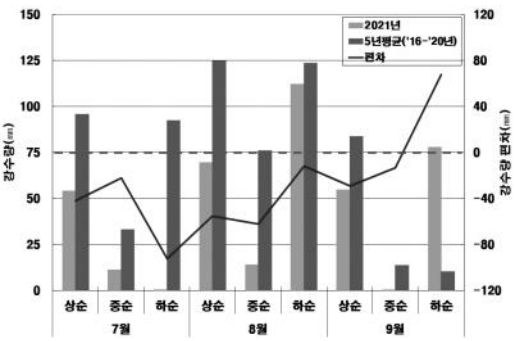
그림 4 수양산이남지대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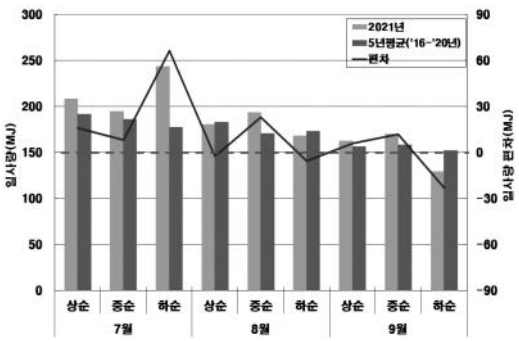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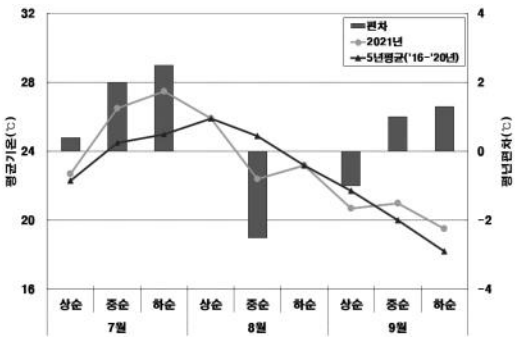
기상요소	2021년				2020년				최근 5년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평균기온(℃)	26.8	25.0	21.9	24.6	23.6	25.3	20.8	23.2	25.0	26.2	21.3	24.2
최고기온(℃)	31.1	29.3	26.6	29.0	27.6	28.1	25.2	27.0	28.7	30.3	26.2	28.4
최저기온(℃)	23.3	21.8	18.0	21.0	20.4	23.4	17.3	20.4	21.8	22.9	17.0	20.6
강수량(㎜)	65.3	195.5	132.9	393.7	202.0	629.9	177.2	1009.1	221.3	324.4	107.5	653.2
일사량(MJ)	645.9	541.8	461.7	1649.4	571.7	414.2	429.6	1415.5	555.3	526.7	466.3	1548.3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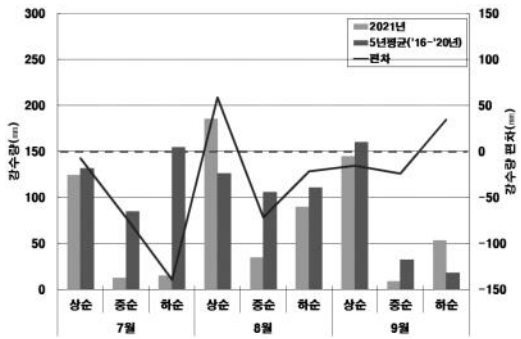
그림 5 동해안남부지대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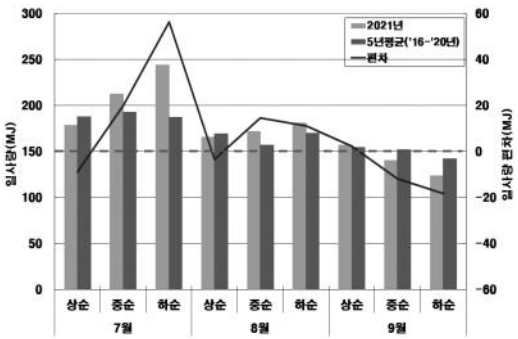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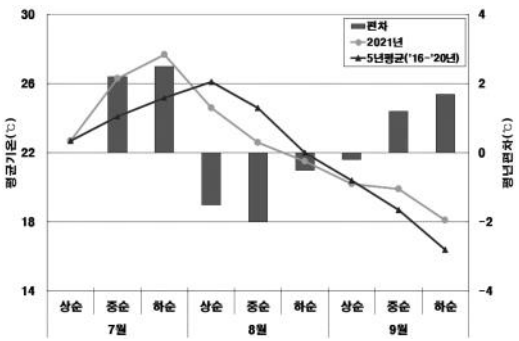
기상요소	2021년				2020년				최근 5년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평균기온(℃)	25.6	23.8	20.4	23.3	22.2	24.7	19.7	22.2	23.9	24.7	20.0	22.9
최고기온(℃)	30.0	28.1	24.9	27.7	26.2	28.7	24.2	26.4	28.1	28.8	25.0	27.3
최저기온(℃)	22.0	20.6	16.9	19.8	18.9	22.0	16.2	19.0	20.6	21.6	16.0	19.4
강수량(㎜)	151.4	309.3	206.4	667.1	392.9	595.2	556.5	1544.6	370.7	343.1	210.5	924.3
일사량(MJ)	635.4	518.7	420.6	1574.7	541.2	441.6	428.0	1410.8	567.8	496.2	448.5	1512.5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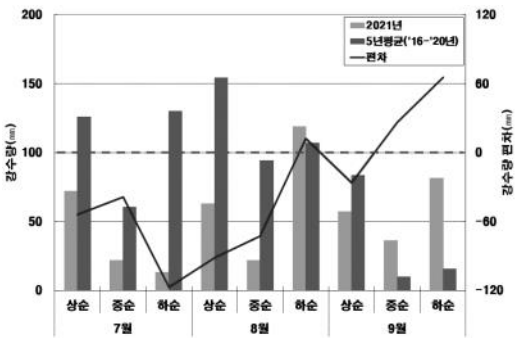
그림 6 중부산간지대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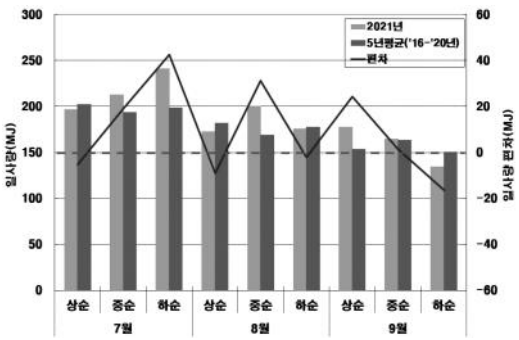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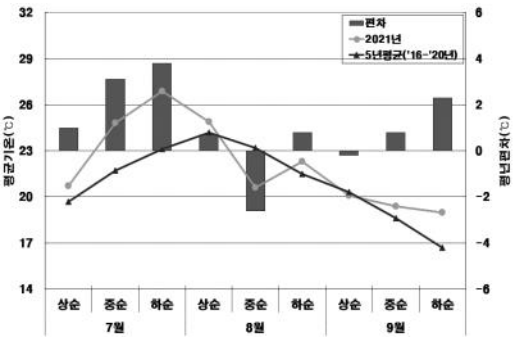
기상요소	2021년				2020년				최근 5년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평균기온(℃)	25.6	22.9	19.4	22.6	22.9	24.1	18.1	21.7	24.0	24.2	18.5	22.2
최고기온(℃)	31.2	28.2	25.4	28.3	28.0	27.7	23.5	26.4	29.0	29.3	25.3	27.9
최저기온(℃)	20.8	18.9	14.7	18.1	18.6	21.4	14.0	18.0	20.0	20.4	13.4	17.9
강수량(㎜)	106.1	203.1	174.0	483.2	182.5	852.5	182.1	1217.1	316.3	354.8	108.4	779.5
일사량(MJ)	650.4	548.2	476.0	1674.6	601.1	440.4	431.4	1472.9	594.1	528.1	466.7	1588.9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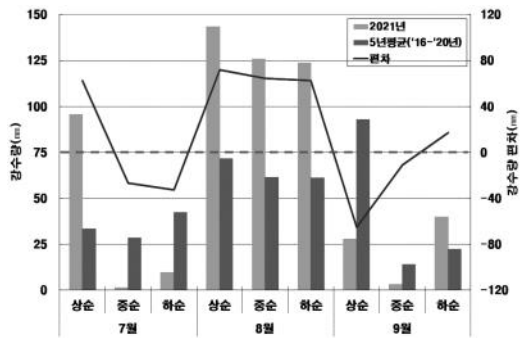
그림 7 동해안북부냉해지대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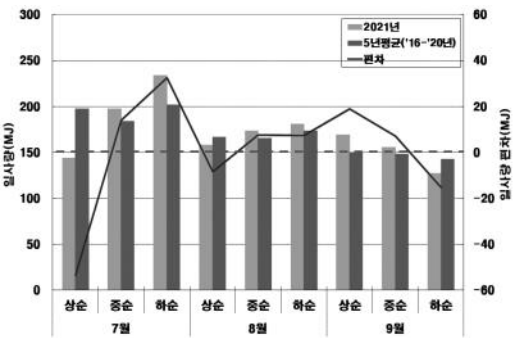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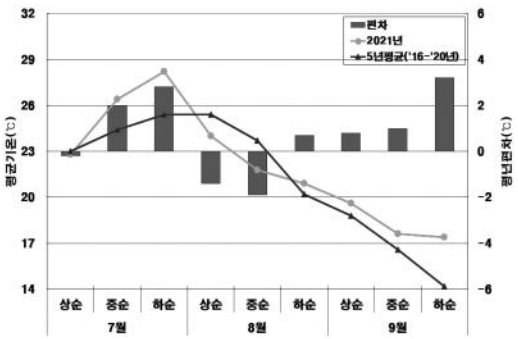
기상요소	2021년				2020년				최근 5년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평균기온(℃)	24.1	22.6	19.5	22.1	20.8	23.1	18.2	20.7	21.5	23.0	18.5	21.0
최고기온(℃)	27.2	26.3	23.7	25.7	24.4	27.0	22.5	24.6	25.3	27.0	23.8	25.4
최저기온(℃)	21.5	19.1	15.5	18.7	18.2	20.4	14.7	17.8	18.9	20.0	14.1	17.7
강수량(㎜)	106.5	393.0	70.8	570.3	70.5	200.7	318.5	589.7	103.7	194.3	129.1	427.1
일사량(MJ)	575.3	512.1	451.7	1539.1	556.8	472.7	388.1	1417.6	582.4	505.6	441.1	1529.1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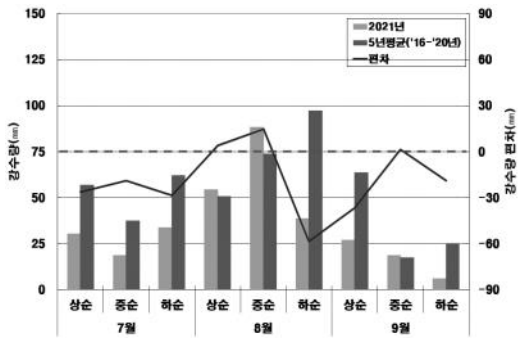
그림 8 북부내륙지대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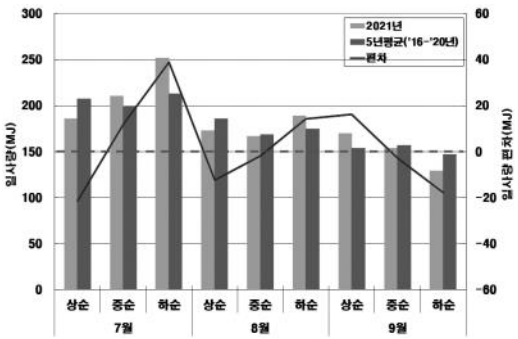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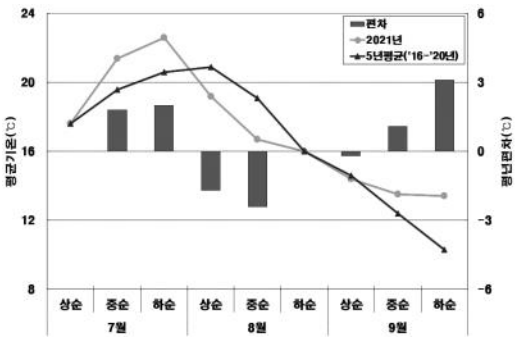
기상요소	2021년				2020년				최근 5년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평균기온(℃)	25.8	22.2	18.2	22.1	23.6	24.2	16.5	21.4	24.3	23.1	16.5	21.3
최고기온(℃)	32.7	28.7	24.8	28.7	31.0	29.7	22.6	27.8	30.6	29.1	24.1	27.9
최저기온(℃)	20.3	17.7	13.3	17.1	18.1	20.5	12.8	17.1	19.2	18.8	11.2	16.4
강수량(㎜)	82.1	181.1	51.1	314.3	156.7	195.3	163.7	515.7	155.9	221.2	105.7	482.8
일사량(MJ)	647.6	528.0	451.8	1627.4	614.9	500.1	397.2	1512.2	618.5	528.1	456.4	1603.0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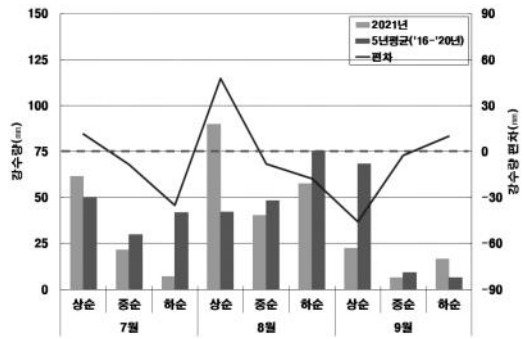
그림 9 북부고산지대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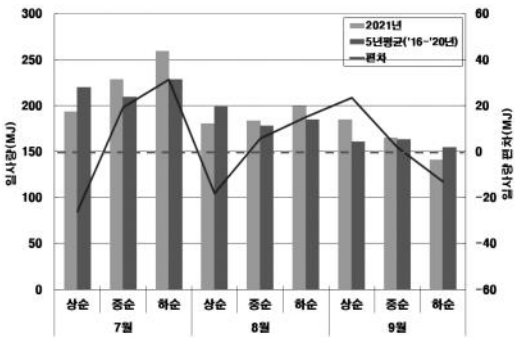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MJ)〉



기상요소	2021년				2020년				최근 5년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7월	8월	9월	평균/누적
평균기온(℃)	20.5	17.3	13.8	17.2	18.2	19.6	12.2	16.7	19.3	18.7	12.4	16.8
최고기온(℃)	27.2	23.1	20.2	23.5	25.3	24.9	17.5	22.6	25.7	24.6	19.7	23.3
최저기온(℃)	15.3	13.3	8.9	12.5	12.1	15.7	8.1	12.0	13.8	14.1	6.8	11.6
강수량(㎜)	89.8	187.5	45.4	322.7	78.9	264.2	199.5	542.6	121.6	165.6	83.7	370.9
일사량(MJ)	680.9	563.3	490.4	1734.6	674.2	531.8	424	1630.0	656.6	560.9	477.9	1695.4

자료: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본 자료 가운데 기온 및 강수량은 기상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북한 27개 관측 지점의 기상자료로 계산되었음. 단, 일사량은 관측값이 아니며, MT-CLIM 4.3(USA) 프로그램에 의해 추정된 값으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되었음.
* 평년은 1981~2010년을 의미하며, 최근 5년은 2014~2018년을 의미함.
* 27개 관측 지점은 다음과 같은 농업기후지대로 구분하였음.

농업기후지대	지역
서해안 수양산 이북지대	신의주, 구성, 안주, 평양, 남포, 사리원, 용연
수양산 이남지대	해주, 개성
동해안 남부지대	함흥, 원산, 장전
중부산간지대	수풍, 희천, 양덕, 신계, 평강
동해안 북부 냉해지대	선봉, 청진, 김책, 신포
북부 내륙지대	중강, 강계
북부 고산지대	삼지연, 혜산, 풍산, 장진

PART 3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북중 교역 동향

KREI

북중 교역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최근 북중 교역 추이 및 개황

◆ 최근 북중 교역 추이

○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입 규모는 2013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나타냄. 2017년 말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급감한 뒤 2018~2019년 수입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1년 들어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입액은 2013년 4분기 정점(10억 3,400만 달러)을 기록한 뒤 2017년 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18~2019년 다소 회복세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음. 20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폭 반등하고 있음.
-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액은 수입규모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다가 2017년 대북제재 실시 이후 크게 하락한 뒤 100만 달러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며, 2020년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가 지속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3분기에 소폭 반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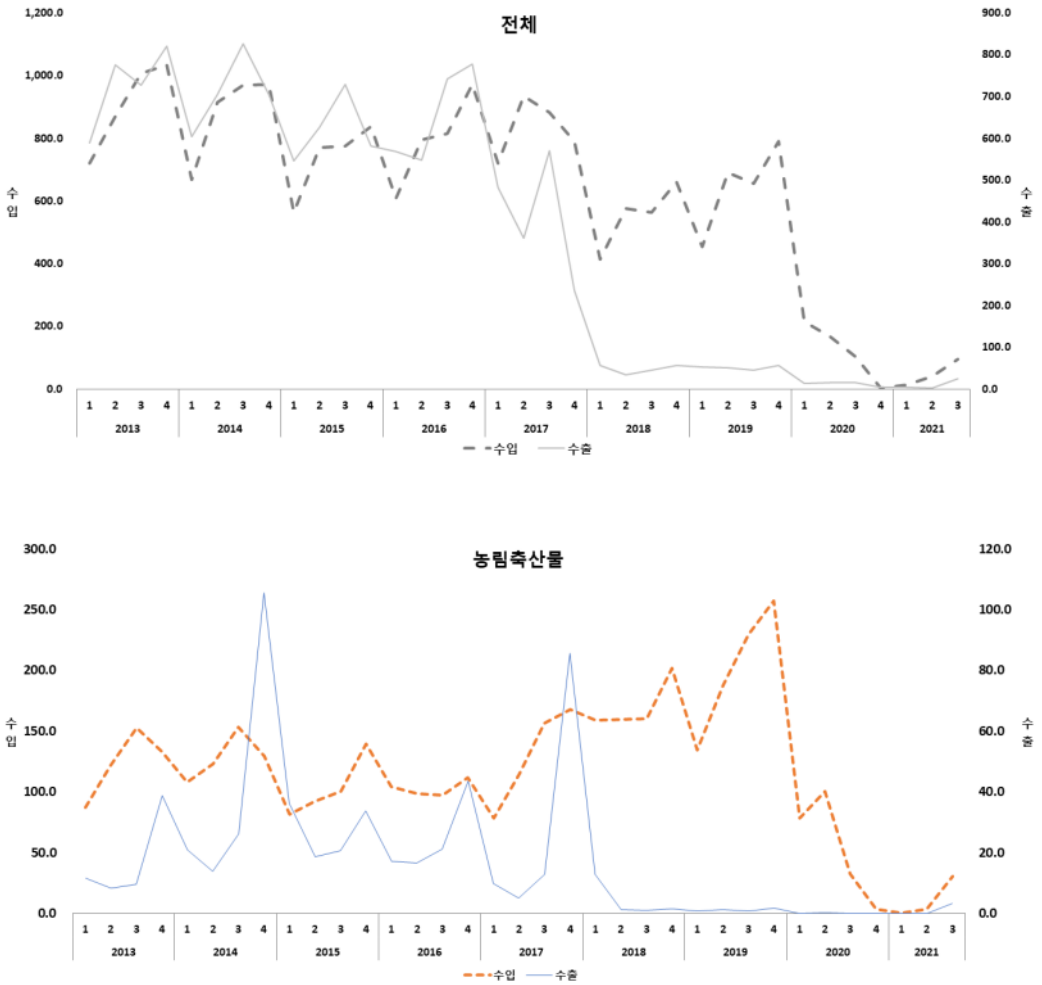
○ 북한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규모는 전체 수출입 규모의 변화 추세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임. 특히 2017년 4분기 이후 2019년 4분기까지 농림축산물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반면 농림축산물 수출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2018년 2분기부터는 거의 실적이 없다가 2021년 2분기 이후 소폭 증가함.

- 북한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17년 1분기 이후 계절성을 제외하고 상당한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분기에는 2억 5,691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백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2021년 1분기 이후 소폭 증가하여 3분기에는 3,019만 달러 수준을 기록함.

- 북한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4분기에 정점을 기록하고 2018년 1, 2분기에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이후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강화됐던 2020년~2021년 2분기에는 농림축산물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3분기들어 소폭 증가하여 327만 달러를 기록함.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2013년 1분기~2021년 3분기)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2021년 3분기 대중국 교역 개황

○ 2021년 3분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1억 1,960만 5,238달러로, 전분기 대비 176.9%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0.7% 감소함.

- 2021년 3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9,497만 1,571달러로 전분기 대비로는 133.8%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8.7% 감소하였음. 주요 수입 품목은 제조담배(HS CODE 2403), 대두유(HS CODE 1507), 의약품 기타(HS CODE 3004),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HS CODE 401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HS CODE 4001) 등이며, 제한된 품목만 수입하던 지난 분기와는 달리 수입 품목이 다양화되고 수입량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교역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3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463만 3,667달러로 전분기 대비 859.9%, 전년 동기 대비로는 49.4% 증가하였음. 주요 수출 품목은 페로실리콘(HS CODE 7202), 전기에너지(HS CODE 2716[1]),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HS CODE 9108), 감자가루(HS CODE 1105), 칼륨비료(HS CODE 3104) 등임.

- 2021년 3분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033만 7,904달러로 전분기 대비 84.8%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6% 축소됐는데,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경 봉쇄 및 검역을 강화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교역 규모가 줄었기 때문임.

○ 2021년 3분기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3,346만 3,812달러로, 전분기 대비 959.0%,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증가함.

- 2021년 3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019만 1,951달러로 수입규모가 적었던 전분기 대비로는 855.5%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7.4% 감소함. 주요 수입품으로는 제조담배(HS CODE 2403), 대두유(HS CODE 1507), 채유용 대두(HS CODE 1201), 사탕수수당·사탕무당·자당(HS CODE 1701), 팜유와 그 분획물(HS CODE 1511) 등 이었음.

- 2021년 3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327만 1,861달러로 국경 봉쇄 등으로 수출 실적이 전무했던 전분기 대비 증감률은 알 수 없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170.4% 증가함. 주요 수출품으로는 감자가루(HS CODE 1105), 맥주(HS CODE 2203), 제조담배(HS CODE 2403), 기타 조제식료품(HS CODE 2106), 조제·보존처리한 감자(HS CODE 2004) 등 이었음.

1)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에너지는 압록강 유역 북중합작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통관실적이라고 함(KITA 북한무역 월간브리프, 2021.04).

표 1 북한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분류		2020년					2021년						3분기 증감률 (B/A)
		1분기	2분기	3분기 (B)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7월	8월	9월	3분기 (A)	
전체	무역액	228.3	184.1	120.5	7.9	539.3	17.5	43.2	20.9	28.8	69.9	119.6	-0.7
	수출	13.0	16.1	16.5	3.8	47.6	4.5	2.6	4.1	6.2	14.3	24.6	49.4
	수입	215.3	168.0	104.0	4.1	491.7	13.0	40.6	16.8	22.5	55.6	95.0	-8.7
	수지	-202.3	-152.0	-87.5	-0.4	-444.1	-8.4	-38.1	-12.7	-16.3	-41.4	-70.3	-19.6
농림축산물	무역액	77.1	101.4	32.6	3.3	214.4	0.0	3.2	1.5	7.9	24.0	33.5	2.6
수출	농산물	0.0	0.3	0.0	0.0	0.4	0.0	0.0	0.0	0.0	3.3	3.3	18,170.4
	임산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축산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합계	0.0	0.3	0.0	0.0	0.4	0.0	0.0	0.0	0.0	3.3	3.3	18,170.4
수입	농산물	71.9	100.5	32.3	3.3	207.9	0.0	3.2	1.5	7.9	19.0	28.4	-11.9
	임산물	1.1	0.0	0.0	0.0	1.1	0.0	0.0	0.0	0.0	0.0	0.0	-
	축산물	4.0	0.6	0.3	0.0	5.0	0.0	0.0	0.0	0.0	1.7	1.8	463.8
	합계	77.0	101.1	32.6	3.3	214.0	0.0	3.2	1.5	7.9	20.8	30.2	-7.4
	수지	-77.0	-100.8	-32.6	-3.3	-213.6	0.0	-3.2	-1.5	-7.9	-17.5	-26.9	-17.4
비중	무역	33.8	55.1	27.1	41.1	39.6	0.0	0.1	0.1	0.3	0.3	0.3	-99.0
	수출	0.0	1.9	0.0	0.0	0.8	0.0	0.0	0.0	0.0	0.2	0.1	22.3
	수입	35.8	60.2	31.3	78.6	43.5	0.0	0.1	0.1	0.4	0.4	0.3	-99.0

주: 1) 비중은 전체 무역/수출/수입액에서 농림축산물 무역/수출/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위의 수치 및 합계는 반올림한 것임.
3) 백만 달러 미만의 숫자를 반올림한 수치이므로 표에 나타난 수치들의 단순 합계와 실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2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

곡물

○ 2021년 3분기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370만 6,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함.

- 코로나19로 북한이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에 곡물 수입이 재개되었음.
- 곡물별 수입 비중(누적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3분기에는 대두 91.7%, 보리 8.3% 순으로 수입되었으며, 쌀과 밀가루, 옥수수는 수입되지 않았음.

표 2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

단위 : 천 달러

품목 (HS 코드)	쌀(1006)	밀가루(1101)	보리(1107)	옥수수(1005)	대두(1201)	합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18년 1분기	398	26,242	260	0	39	26,939
2018년 2분기	1,634	13,377	257	793	106	16,167
2018년 3분기	8,741	9,662	294	103	519	19,319
2018년 4분기	13,862	13,765	191	241	216	28,275
2018년 합계	24,635	63,046	1,002	1,137	880	90,700
2019년 1분기	1,412	15,945	165	395	1	17,918
2019년 2분기	11,820	20,027	455	1,469	304	34,075
2019년 3분기	48,631	16,768	415	1,922	356	68,092
2019년 4분기	15,647	20,438	291	2,517	9	38,902
2019년 합계	77,510	73,178	1,326	6,303	670	158,987
2020년 1분기	589	12,703	175	317	0	13,784
2020년 2분기	0	21,097	314	44	0	21,455
2020년 3분기	0	1,676	241	0	0	1,917
2020년 4분기	0	0	0	0	0	0
2020년 합계	589	35,476	730	361	0	37,156
2021년 1분기	0	0	0	0	0	0
2021년 2분기	0	0	0	0	0	0
2021년 7월	0	0	0	0	0	0
2021년 8월	0	0	0	0	3,400	3,400
2021년 9월	0	0	306	0	0	306
2021년 3분기 소계	0	0	306	0	3,400	3,706
총 계	102,734	171,700	3,364	7,801	4,950	290,549

주: 백만 달러 미만의 숫자를 반올림한 수치이므로 표에 나타난 수치들의 단순 합계와 실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비료

○ 2021년 3분기 북한의 대중국 비료 수입액은 1만 5,000달러로, 전분기 대비 99.9%, 전년 동기 대비 98.6% 감소함.

- 비료 성분별 수입 비중(누적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타 100.0%로, 질소, 인산, 칼륨 비료는 수입되지 않았음.
- 북한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하여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나, 비료 등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교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음.

표 3 북한의 대중국 비료 수입

단위 : 천 달러

품목 (HS 코드)	N(3102)	P(3103)	K(3104)	기타(3105)	합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18년 1분기	5,903	0	0	1,578	7,481
2018년 2분기	45,296	3	26	1,855	47,180
2018년 3분기	20,286	0	21	189	20,496
2018년 4분기	9,260	0	1	354	9,615
2018년 합계	80,745	3	48	3,976	84,772
2019년 1분기	1,397	0	43	2,501	3,941
2019년 2분기	28,214	0	45	9,313	37,572
2019년 3분기	182	0	9	101	292
2019년 4분기	151	0	41	1,120	1,312
2019년 합계	29,944	0	138	13,035	43,117
2020년 1분기	151	0	0	1,046	1,197
2020년 2분기	2,520	0	0	664	3,184
2020년 3분기	1,020	0	0	50	1,070
2020년 4분기	0	0	0	0	0
2020년 합계	3,691	0	0	1,760	5,451
2021년 1분기	5,040	0	0	4,183	9,223
2021년 4월	4,250	0	0	8,681	12,931
2021년 5월	1,877	0	0	161	2,038
2021년 6월	0	0	875	0	875
2021년 2분기 소계	6,127	0	875	8,843	15,845
2021년 7월	0	0	0	0	0
2021년 8월	0	0	0	0	0
2021년 9월	0	0	0	15	15
2021년 3분기 소계	0	0	0	15	15
총 계	125,547	3	1,061	31,833	158,444

주: 백만 달러 미만의 숫자를 반올림한 수치이므로 표에 나타난 수치들의 단순 합계와 실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PART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21.09)

단위: 만 달러

구 분	프로젝트 목 표	모금액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1998년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1999년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2000년	31,376	22,415	71.4	일본 9,568, 한국 5,381, 미국 2,923, 호주 699, EC 5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21, 캐나다 383, 스웨덴 343, 이탈리아 322, 노르웨이 236 등
2001년	38,398	37,760	98.3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6,872, 농협 1,274, Korean Welfare Foundation 740, 이탈리아 708, 굿네이버스 6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617 등
2002년	24,684	36,085	146.2	WFP 9,932, 한국 8,200, 미분류 6,589, 미국 6,349, EC 1,553, 독일 470, 호주 342, 스웨덴 274, 노르웨이 274, 캐나다 273 등
2003년	22,937	18,288 (381)	81.4	미국 3,152, WFP 2,791, 한국 1,683, EC 1,631, Korean Church Federation 1,288,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93, 독일 491 등
2004년	520,880	30,178	5.8	한국 11,774, 일본 4,670, EU 3,000, 미국 1,931, 스웨덴 1,154, 호주 824, 독일 800, 적십자사 662, 캐나다 532 등
2005년	-	4,617	-	유럽연합 1,740, 독일 777, 스웨덴 546, 이집트 388, 노르웨이 352,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덴마크 RC 90 등
2006년	-	5,054 (1,050)	-	한국 2,198(1,000), EU 1,103(50), 스웨덴 507, 노르웨이 403, 덴마크 157, 아일랜드 152, 독일 129, 이탈리아 106 등
2007년	-	11,698 (1,392)	-	사적지원 3,027(1,172), 한국 2,338,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110, 호주 647(62), 스웨덴 628(73), EU 537, 독일 523, 노르웨이 479 등

(계속)

구 분	프로젝트 목표액	모금액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2008년	-	5,670	-	한국 1,532, 사우디아라비아 848, 독일 561,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340, 노르웨이 328 등
2009년	-	6,133	-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900, 한국 1,421, 스웨덴 1,406,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스위스 69 등
2010년	-	2,449	-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344, 스위스 302, 캐나다 244,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미국 60,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2011년	-	8,937 (16)	-	WFP 1,664,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541, EU 1,428, 스웨덴 900, 스위스 838, 호주 705, WHO 690, 노르웨이 266 등
2012년	-	11,779	-	WFP 5,004,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292,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브라질 412, 노르웨이 351 등
2013년	-	6,280	-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510, 한국 1,208,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WFP 466, 러시아 300, 노르웨이 262, 독일 214, 호주 150 등
2014년	-	3,322	-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650, 스위스 504, 스웨덴 489, 캐나다 360, 호주 219, 독일 156, 프랑스 104 등
2015년	-	3,548	-	스위스 1,027,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호주 229, 노르웨이 218, 캐나다 215, 독일 115 등
2016년	14,203.6	4,308 (219)	31.9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305, 스위스 1,038, 독일 365, 스웨덴 318, 러시아 300, 호주 219(219), 캐나다 202, EuropeAid 173 등
2017년	11,350.2	3,940 (122)	34.7	WFP 2,243,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235 스위스 502, 러시아 300, 스웨덴 167(110), 캐나다 149, 미국 100, 프랑스 49(11) 등
2018년	11,121.7	3,816 (233)	34.3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1,000.4, 스위스 532.5, 스웨덴 465.2(200.3), 러시아 400, 캐나다 155.4, 노르웨이 56.9 등
2019년	12,034.5	4,595 (198.1)	38.2	한국 1,171.8(100.0), 러시아 879.5, 스위스 863.5(244.8),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600.0, 스웨덴 512.4(186.7), 캐나다 152.2, 노르웨이 146.5, 독일 124.8(102.6), 프랑스 39.3(11.1), 덴마크 33.7(33.7), 유니세프 31.0, 핀란드 15.6(15.6), 아일랜드 11.4(11.4), 리히텐슈타인 10.1(10.1), 이탈리아 1.2(1.2) 등
2020년	14,669.2	3,847 (1,292)	35.0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589.9, 스위스 (852.2), 독일 104.2, 한국 613.6(572.6), UNICEF 618.2, UNPF 32.9, 러시아 300, 영국 (10), 노르웨이 119, 스웨덴 350.9, 프랑스 227.2, 캐나다 996.1, 불가리아 5.5
2021년	-	1,543 (970.9)	-	스위스 (619.6), 독일 (1.5), 캐나다(117.1), ECHO(118.3), 핀란드(58.6), 노르웨이(23.3), 스웨덴(173.9), UNICEF(430.2)
총 계		297,945.9 (5,651.6)		

주: 1)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부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음. 본 표의 1995~1999년도 지원액은 구 FTS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나, 2000년 이후 자료는 신규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2005년 이후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었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되었음. 2018년도부터 FTS는 프로젝트 기반 소요액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제시하고 있음.
3) 모금액은 프로젝트 모금액 및 긴급구호 자금을 모두 포함함. 또한 실제 지원액과 이행 약속(Pledges, Commitment) 액을 합산하였음(이행 약속액은 괄호로 별도 표기). 예를 들어, 500(100)이면 실제 대북 지원액은 400이며, 이행 약속액은 100임.
4) 2018년도 이후의 실적률은 프로젝트 목표액에서 모금된(실제 지원액+이행 약속액) 금액의 비율임.
5) 2016년도 지원액은 FTS의 구 홈페이지와 신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 후 누락 자료를 보완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https://fts.unocha.org, 2021.10.6).

표 2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2021년 9월)

단위: 달러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분야	지원액	지원내역
DW	독일	식량안보	(15,715)	2021년 평안남북도 주민 식량원조
SDC	스위스	기타	(29,990)	신용공여한도 프로젝트(2019-2021년) 중 2021년 부분
		재난지원	(20,538)	황해지역 홍수 피해 복구SLDM 프로젝트(2020-2021) 중 2021년 부분
		기타	(19,618)	CFPA 평양
	소계		(70,146)	
WFP	스위스	식량안보	(4,424,779)	2021 WFP 긴급 식량 원조
	캐나다	기타	624,512	인도적 지원
		기타	156,128	인도적 지원
	스웨덴	식량안보	(1,141,944)	인도적 지원
	소계		6,347,363 (5,566,723)	
UNICEF	UNICEF	WASH	95,447	WASH
	UNICEF	영양	46,882	영양
	UNICEF	영양	4,159,983	보건
	캐나다	WASH	390,320	WASH
	스위스	보건/영양	(496,689)	COVID-19 대응 필수 영양 지원 강화(2020-2025) 중 2021년 부분
		영양	(662,252)	필수 영양 지원 강화(2020-2023) 중 2021년 부분
	소계		5,851,573 (1,158,941)	
ACT Alliance	핀란드	식량안보	(586,166)	인도적 지원
ICRC	스위스	기타	(530,223)	ICRC Operations Appeal 2021
NRC	노르웨이	기타	233,563	인도적 지원
SRC	스웨덴	기타	(597,443)	인도적 지원
	스위스	기타	12,347	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s
EU	ECHO	기타	(597,372)	인도적 지원
CW	ECHO	기타	(293,083)	Enhancing community resilience through integrated humanitarian assistance
FAO	ECHO	기타(농업)	(293,083)	Mitigating the impact of disasters using the anticipatory action approach in the Grain baske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총계			15,428,077 (9,708,895)	

주: 1)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지원액을 의미함.
2) DW: Deutsche Welthungerhilfe e.V. (German Agro Action)
3)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4)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5) WFP: World Food Programme
6)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7) NRC: Norwegian Red Cross
8) SRC: Swedish Red Cross
9) ECHO: 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10)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1) CW: Concern Worldwide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https://fts.unocha.org, 2021.10.6.).

표 3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2021년 9월)

단위: 달러

분 야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
식량안보	DW	독일	(15,715)	2021년 평안남북도 주민 식량원조
	WFP	스위스	(4,424,779)	2021 WFP 긴급 식량 원조
	WFP	스웨덴	(1,141,944)	인도적 지원
	ACT Alliance	핀란드	(586,166)	인도적 지원
	소계		(6,168,604)	
영양	UNICEF	스위스	(496,689)	COVID-19 대응 필수 영양 지원 강화(2020-2025) 중 2021년 부분
	UNICEF	스위스	(662,252)	필수 영양 지원 강화(2020-2023) 중 2021년 부분
	UNICEF	UNICEF	46,882	영양
	UNICEF	UNICEF	4,159,983	보건
	소계		5,365,806 (1,158,941)	
재난지원	SDC	스위스	(20,538)	황해지역 홍수 피해 복구SLDM 프로젝트(2020-2021) 중 2021년 부분
기타	SDC	스위스	(19,618)	CFPA 평양
	SDC	스위스	(29,990)	신용공여한도 프로젝트(2019-2021년) 중 2021년 부분
	WFP	캐나다	624,512	인도적 지원
			156,128	인도적 지원
	ICRC	스위스	(530,223)	ICRC Operations Appeal 2021
	NRC	노르웨이	233,563	인도적 지원
	SRC	스웨덴	(597,443)	인도적 지원
	ECHO	EU	(597,372)	인도적 지원
	SRC	스위스	12,347	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s Additional 2021 (Z7H31430030)
	CW	ECHO	(293,083)	Enhancing community resilience through integrated humanitarian assistance
	FAO	ECHO	(293,083)	Mitigating the impact of disasters using the anticipatory action approach in the Grain baske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소계		3,387,362 (2,330,822)	
WASH	UNICEF	UNICEF	95,447	WASH
	UNICEF	캐나다	390,320	WASH
	소계		485,767	
총계			15,428,077 (9,708,895)	

주: 1)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지원액을 의미함.
2) DW: Deutsche Welthungerhilfe e.V. (German Agro Action)
3)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4)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5) WFP: World Food Programme
6)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7) NRC: Norwegian Red Cross
8) SRC: Swedish Red Cross
9) ECHO: 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10)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1) CW: Concern Worldwide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https://fts.unocha.org, 2021.10.6.).

표 4 지원국/단체별 대북 지원 실적(2021년 9월)

단위: 달러

지원국/단체	분야	지원창구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
스위스	영양	UNICEF	(496,689)	COVID-19 대응 필수 영양 지원 강화(2020-2025) 중 2021년 부분
		UNICEF	(662,252)	필수 영양 지원 강화(2020-2023) 중 2021년 부분
	재난지원	SDC	(20,538)	황해지역 홍수 피해 복구SLDM 프로젝트(2020-2021) 중 2021년 부분
	식량안보	WFP	(4,424,779)	2021 WFP 긴급 식량 원조
	기타	SDC	(19,618)	CFPA 평양
			(29,990)	신용공여한도 프로젝트(2019-2021년) 중 2021년 부분
	기타	SRC	12,347	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s Additional 2021 (Z7H31430030)
	기타	ICRC	(530,223)	ICRC Operations Appeal 2021
	소계		6,196,436 (6,184,089)	
독일	식량안보	DW	(15,715)	2021년 평안남북도 주민 식량원조
캐나다	기타	WFP	624,512	인도적 지원
			156,128	인도적 지원
	WASH	UNICEF	390,320	WASH
	소계		1,170,960	
ECHO	기타	EU	(597,372)	인도적 지원
	기타	CW	(293,083)	Enhancing community resilience through integrated humanitarian assistance
	기타 (농업)	FAO	(293,083)	Mitigating the impact of disasters using the anticipatory action approach in the Grain baske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소계		(1,183,538)	
핀란드	식량안보	ACT Alliance	(586,166)	인도적 지원
노르웨이	기타	NRC	233,563	인도적 지원
스웨덴	기타	SRC	(597,443)	인도적 지원
	식량안보	WFP	(1,141,944)	인도적 지원
	소계		(1,739,387)	
UNICEF	영양	UNICEF	46,882	영양
			4,159,983	보건
	WASH	UNICEF	95,447	WASH
	소계		4,302,312	
총계			15,428,077 (9,708,895)	

주: 1)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지원액을 의미함.
2) DW: Deutsche Welthungerhilfe e.V. (German Agro Action)
3)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Swiss Humanitarian Aid
4)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5) WFP: World Food Programme
6)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7) NRC: Norwegian Red Cross
8) SRC: Swedish Red Cross
9) ECHO: 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10)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1) CW: Concern Worldwide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https://fts.unocha.org, 2021.10.6.).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정부, 대북지원단체와 인도협력 논의…물자 반출 승인 지속(뉴스1, 08.02)

○ 통일부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과 함께하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현재 인도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민간 차원의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힘.

- 회의에서 북민협 측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면서 정부가 지난 7월 30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한 데 대해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 내용을 비공개로 해줄것"을 당국에 요청함. 통일부는 지난 7월 30일 오후 2건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내줬을 때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음.
- 통일부에 따르면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는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와 북민협 등 민간단체 관계자를 포함, 15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통일부 차관과 북민협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음.

북한, 코로나19·대북제재 장기화·수해 '삼중고' 전쟁 버금가는 상황(아시아경제, 08.09)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비상한 힘과 열정으로 격난을 부수며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해 용진 또 용진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코로나19, 대북제재 장기화,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친 '삼중고'를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나섬.

-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서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전쟁 상황에 못지 않은 시련"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여기에 자연재해를 덧붙여 삼중고 상황을 언급한 것임.
- 우리 정부와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례없이 힘든 상황을 부각, 향후 남북 및 북·미 대화로 이어질 질지 주목되고 있음.
- 북한에서는 8월 초 함경남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주택 1,170여 세대가 침수되고 주민 5,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음. 북한에는 작년에도 함경남도 소재 최대 광물생산자인 검덕

1) '서울평양뉴스(SPN)' 나정원 박사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재정리 한 것임.

지구가 태풍 피해를 입었고, 황해북도·강원도가 수해를 입는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이런 수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음.

유엔,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금 1480만달러(뉴스1, 08.11)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지원금 공여를 약정한 독일과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 6개 나라임.

- 올 들어 국제사회가 유엔에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대북지원금 규모는 1,480만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스위스가 182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캐나다 117만 달러, 스웨덴 59만 달러, 핀란드 58만 달러, 노르웨이 23만 달러, 독일 1만 5,000달러 순이었음.

독일, 북한에 코로나19팀 파견…감염 예방·통제에 투입(연합뉴스, 08.23)

○ 독일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투입될 팀을 파견한다고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가 전함. 북한은 유엔(UN)과의 협의하에 독일의 코로나19 팀을 입국시키기로 함.

-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특별허가를 받지 않는 한 출입국을 통제해왔음.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주간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수는 3만 5,947명이나 보고된 확진자나 사망자는 0명임.
- 북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유엔은 지난 8월 1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독일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음. 독일은 2022년 4월 23일까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 쓰이는 장비인 '로터-디스크100 스타터 키트' 6대를 북한 보건당국에 보낼 수 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독일 유엔대표부에 "발송과 통관 절차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물품을 3개 이하로 묶어 보낼 것을 권고한다"면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인구 전체에 대한 악영향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독일이 언제 이들 의료장비를 북한에 인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북한이 팬데믹 이후 국경을 넘어선 물품 수출입이나 여객 운송을 극도로 제한해 왔기 때문임.
- 앞서 유엔은 442만 달러에 달하는 유네스코의 대북 원조물품 반입기한을 1년 연장했음. 이 중 113만 달러상당은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연쇄 냉각장치임.

유엔, 유니세프 결핵·말라리아 사업 대북제재 면제도 1년 연장(연합뉴스, 08.2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북한 결핵·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모나 줄 노르웨이 유엔 대사는 최근 공개한 서한에서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8월 1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힘. 노르웨이는 현재 대북제재위 의장국임.
- 이에 따라 75만 8,920달러 규모의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 농축기, 산소농도계, 의료흡입 펌프, 심폐 소생술 키트 등이 북한에 반입될 예정임.
- 유엔 대북제재위는 앞서 8월 5일에도 유니세프의 보건·영야·식수·위생 분야 사업 관련 대북제재 면제를 1년 연장한 바 있음. 이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물자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을 고려한 조치임.

日, 백신北제공 원론적 반응…인도적 지원은 필요성 봐서…(연합뉴스, 09.02)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일반론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서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함.

- 그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에 관해 말하자면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관점에서 부단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음.

北 코로나 백신 양보, 부작용·효과 우려 때문일 듯(연합뉴스, 09.04)

○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배정받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타국에 양보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옴.

-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프로그램 담당관을 지낸 나기 샤피끄는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 및 효과에 대한 우려가 보고되면서 북한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잠재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시노백 백신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COVAX)에서 배정받은 백신 297만 회분을 코로나19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밝혔음. 북한이 이번에 양보한 백신은 중국산 시노백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 설명임. 코백스는 지난 3월에도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2천 회분을 배정했으나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임.

-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여러 차례 방북했던 하버드 의대 박기 교수는 "북한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봉쇄 덕분에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그는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자신감 덕분에 북한이 더 인내심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타국에서) 새로운 백신들이 접종됨에 따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 "북한이 지난 5월 WHO 최고의사결정기구 세계보건총회(WHA) 연례회의에서 백신 불공평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상황이 심각한 빈곤국들에 백신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우려와 일치한다"고 전했음.

- 탈북자 대상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크로싱보더스의 정단 씨는 북한이 체면을 중시한다면서, 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당시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데리고 평양을 둘러보면서도 위기 정도를 숨긴 바 있다고 설명했음. 정씨는 "당시 유엔 관계자들이 본 것은 평양의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세심하게 안내되는 여행 동선을 벗어날 수 없었다"면서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기근이 없다고 확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음.

러 매체 안보리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미국이 반대(뉴스1, 09.05)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한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은 중국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작년 1월 말부터 북중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전면 차단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과 국제열차 운항도 중단했음. 이 때문에 북중 교역량도 급감하면서 그동안 북한 내에선 중국산 수입품에 의존해왔던 일부 생활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 소식통은 현재로선 안보리가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완화 또는 해제하더라도 "보여주기"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며 미국 정부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원조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음.

-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현재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얻으면 대북제재 적용을 받지 않음. 그러나 그동안 국제구호단체들로부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는 등 이유로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음.

-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되,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됨.

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일괄지정...남북협력기금 지원(파이낸셜뉴스, 09.14)

○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짐.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함.

-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광역 17곳, 기초 226곳 지자체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했으며 민간단체 대북 지원 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음.

- 통일부는 "지자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고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이어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력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북한 불응에도…이인영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100억원 지원(연합뉴스, 09.24)

○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함.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9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을 심의함.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면서 논의 배경을 설명했음.

- 이장관은 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시급한 영양 및 보건 물자를 적시에 필요한 수순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면서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함.

- 그는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안 DMZ 평화의 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지원안도 심의함. 이 장관은 "고성 평화의 길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우선적으로 재개방하려는 구간이지만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차량 운행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긴급 개보수를 추진해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북한 국경 열리면, 즉시 식량 지원 사업 재개(경향신문, 09.28)

○ 윤선희 세계식량계획(WFP) 신임 한국사무소장은 “WFP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매우 중요한 임무로 여긴다”면서 “국경 통제 완화 등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 관련 사업을 곧바로 재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팬데믹 위기 이전부터 북한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속했음. 그런데 20개월 넘게 이어진 국경 폐쇄,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북한을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했음.
- WFP가 북한 내 수혜자들을 상대로 원격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분한 식량 섭취를 하는 비율은 2020년 22%에서 올해 1%로 떨어졌음. 반면 식사 횟수와 식단 다양성 등에서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은 2020년 38%에서 올해 69%로 늘었음.
-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WFP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식량이 최고의 백신”(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라고 역설해왔음. 부유한 나라들은 ‘부스터샷’ 접종 논의까지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식량이 곧 백신인 나라들이 훨씬 많다. WFP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억 3900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모금액 목표치(150억달러)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
-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에티오피아, 아이티 등 분쟁 지역에서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도 늘고 있음. 윤 소장은 “식량 안보와 평화 안정은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행히도 위기가 되어야만 모금이 도착하는데, 그땐 이미 늦었을 때가 많다”고 말했음. 특히 아프간은 산악 지형과 혹한으로 10월 말까지 각 지역에 지원할 식량이 전달되지 않으면 제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전함.

성 김, 北 인도적 지원, 협력 준비됐다(파이낸셜뉴스, 09.30)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부터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혀 남북 관계의 훈풍

조짐이 일고 있는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대남·대미정책을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댐.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미국은 북한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모니터링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미 이슈부터 지역 이슈까지 모두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결의안 위반이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음.
-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간 유선협의도 가졌음.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3자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음.

WHO, 대북 코로나19 지원용품, 中 다롄항 통해 운송 시작(뉴시스, 10.07)

○ 세계보건기구(WHO)는 대북 코로나19 지원 용품을 중국 다롄항을 통해 운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WHO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 필수적인 코로나 19 의료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WHO가 중국 다롄항을 통한 운송을 시작했다"며 "전략적 비축과 추가적인 대북 발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구체적인 운송 물품과 시기는 알려지지 않음.
- WHO는 작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물품이 다롄항에 도착했으며 이를 남포항으로 운송하도록 북한 보건성에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RFA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엔 기구 등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가 북한에 일부 운송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도 지난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보건관련 물자가 소량 반입됐다고 공표했다고 함.
- 아직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했음. 유엔 주도 국제 백신 협력체 코백스(COVAX)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급하려 했지만 북한이 부작용 우려로 거부한 상태임.

통일부, 보건의료물자 대북반출 3건 승인…취약계층 지원시급(연합뉴스, 10.07)

○ 통일부는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보건의료협력 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인도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돼야 하고,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보건·영양물자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서의 인도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함.

- 통일부가 승인한 사업 3건은 모두 보건의료 관련이며, 해당 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됨. 다만 통일부는 이번에도 단체 측의 요구와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체명과 물품 목록,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음.

○ 앞서 지난 7월 30일 통일부가 반출 승인했던 사업 2건에 대해 "물자의 대북 반출에 필요한 제반 단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정부는 자체 재원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물자 반출을 승인하는 것과 별개로, 대북 영양·보건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지원키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바 있음.

- 이후 민간단체들이 통일부 및 남북교류지원협회 등과 사업 관련 상담·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통일부에 정식으로 사업을 신청한 곳은 없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음.

북, 봉쇄 완화하나…유니세프 지원 물자도 반입(뉴시스, 10.09)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굳게 닫았던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이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지원 물품도 받아들이는 등 점차 경계를 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유니세프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몇 주간 북한에 주로 어린이 영양실조 및 결핵 치료와 관련된 한정된 보건 및 영양 물자를 지원했다"며 "(지원 물자를 반입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더욱 정기적으로 지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에 보건 관련 물품을 들여보냈다면서 "북한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자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번에 남포항을 통해 유엔 기구들의 대북 지원 물자가 반입된 것은 반입이 중지된 지난 2020년 7월 이후 1년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음.

유엔 북한인권조사관 대북제재 일부 해제 권고(뉴시스, 10.15)

○ 유엔이 북한의 식량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 의회 전문 뉴스사이트 더힐(The Hill)이 보도함.

- 유엔의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팬데믹, 농사 부진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등이 이미 악화돼있는 식량 사정을 한층 더 악

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도 북한 주민의 40% 이상이 식량부족에 시달렸다고 퀸타나조사관은 설명함.

- 퀸타나조사관은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조치가 길어지면서 경제난이 심해졌고 일반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지난 6월부터 쌀과 옥수수의 가격이 오르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함.
- 또 퀸타나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비료와 농약이 부족해 식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길어지고 있는 통제와 경제활동의 붕괴로 북한 가계들이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중임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고함.

하버드의대 한국프로젝트 국장, 북에 mRNA 백신 제의해야(연합뉴스, 10.25)

○ 박기범 하버드대 의대 한국 보건정책 프로젝트 국장은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해 북한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세계보건서밋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 중인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기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코로나19 백신을 다소 주저하는 만큼 코백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mRNA 백신 공급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함.
- 신경외과 전문의로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 국제보건과 사회의학 강의를 하고, 한국보건정책 프로젝트를 이끄는 그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의료지원 활동 등을 해온 경력이 있어 '북한통'으로 잘 알려졌음.

○ 박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의료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우려함.

- 그는 "최근 3년간 북중무역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초부터 항생제 수입이 거의 제로(0)에 가깝게 줄었다"면서 "최근 조금씩 다시 수입이 시작됐지만 폐렴이나 설사와 같은 전염병을 치료하려면 항생제 없이 어떻게 치료할지 걱정된다"며 이미 코로나19 전에도 대북제재로 의료기기 부품 수입에 문제가 있었는데 국경이 봉쇄된 이후에는 완전히 멈췄다는 것임. 또 설상가상으로 대규모 국제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된 상태여서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박 국장은 최근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려 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북한이 인도주의적 프로그램도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말하며, 이어 북한은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규모 그룹이 먼저 들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리, 진단검사 반복 등을 통해 확신을 주고 이후 추가로 입국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임.

- 그는 북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4만여 건에 그쳐 전국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여력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격리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음.

○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팬데믹 상황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전 세계적 보건 응급상황인 만큼 의료장비 구매와 같은 각국의 팬데믹 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광범위하게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일례로 북한내 군 단위의 병원에서 소아응급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비조사를 해야 하지만 아직 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이 프로젝트는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종의사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가 보편적 의료보장의 한 요소로 응급 수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추진됐음.

대북인도협력단체, 美 블링컨에 '北에 백신지원 촉구' 서한(연합뉴스, 11.02)

○ 국내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힘.

- 북민협은 서한에서 "현재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도와 북한 주민들이 감염병의 위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함. 이어 "미국 정부는 이미 1억6천만 도스 이상의 백신을 저개발국들에 지원했다"면서 "전 지구적인 팬더믹 극복을 위한 미국의 활동에 북한도 결코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 이 단체는 미국이 향후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한미 비정부기구(NGO)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함.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물자가 북한에 적기에 반입되도록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및 유엔 제재의 '포괄적 면제'를 추진해달라고 미국에 촉구함.

이인영, WHO사무총장 만나 대북 인도주의 협력 논의(뉴스1, 11.02)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대북 인도주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 자간 사파강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대북 인도주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 이 장관과 테드로스 WHO 총장은 코로나19 등 향후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대북 인도주의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힘. 통일부는 이 장관이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국 파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및 남북관계 상황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함.

유엔 대북제재위, '평양 병원건설' 한국민간단체 대북제재 면제신청 승인(연합뉴스, 11.0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평양에 병원을 짓기 위한 자재·장비의 대북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한국 민간단체 요청을 승인했음.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여의도순복음재단(YGMF)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신청한 제재 면제를 최근 승인했음.

- 대북제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평양심장병원을 통한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중증 질환 치료 사업 등 여의도순복음재단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고 재단 측에 응답했음.

- 위원회가 대북 반입을 승인한 물품은 평양심장병원 건설에 쓸 파이프, 압축기, 목재, 물탱크 등 건축 자재와 CT 스캐너, MRI, 병상, 수술대, 주사기 등임. 위원회는 면제 허용 기간을 1년으로 잡아 내년 10월 28일까지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 평양심장병원은 고(故)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2007년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해 평양에 짓기로 한 병원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07년 말 착공해 지하 1~지상 7층, 연면적 2만㎡, 전체 병상 280개 규모로 진행됐으나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공사가 중단됐음.

미국 국제개발처, 북한 지도부, 대북 지원 장벽 조성…인권 상황 개탄스러워(VOA, 11.7)

○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한 것임.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대변인은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의 탈북민 출신 정광일 한국지부장(전 대표)이 최근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장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관련) 학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공을 거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음.

-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 등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13억 1,375만 달러 상당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했었음.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후 북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지원의 분배 감시 문제 등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지원을 중단했으며,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지난해 V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한편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서맨사 파워 처장이 정광일 지부장의 서한을 받거나 답장을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음. 파워 처장은 과거 유엔주재 미국대사 시절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16년 방한 때 정광일 지부장의 집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환담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그의 활동을 격려한 바 있음.
- 북한 15호 정치범수용소(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 지부장은 최근 VOA에, 파워 처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서한을 통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줬던 파워 처장이 계속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지해 주길 당부했다고 말했음.
- 정 지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최근 워싱턴으로 '노체인' 본부를 옮기고 미국인 찰스 육 씨가 대표를 맡았다며, 자신은 대표가 아닌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한다고 말함.

유엔, 경기도 돼지축사 지원사업 대북제재 면제 1년 연장(연합뉴스, 11.13)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경기도의 북한 돼지축사 지원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했음. 유엔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재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돼지 사육장 건설사업의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11월 3일까지로 1년 연장했음.

- 면제를 승인받은 품목들은 ASF 소독장비와 새 축사 건설을 위한 자재 등 총 75만 달러어치임.
-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코로나10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제재위에 면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 제재위는 면제 연장을 승인하면서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도주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문경연, 국제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남북협력 추진해야(디지털타임즈, 11.14)

○ 국제협력 개발학자인 문경연 전북대 국제학부 교수는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주최로 열린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유엔의 SDGs와 남북교류협력'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체제 아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호소함.

- 문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이 유난히 유엔의 SDGs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SDGs

를 통해 남북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런 측면에서 인권(안보)이냐 대지원이냐의 우선순위에 매달리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지적임.

- 북한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학계에선 핵과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의 따돌림을 받고 있는 북한이 SDGs 체제 내에 포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 교수는 대북 지원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장기집권이나 체제유지를 돕는 방향이 아니고 북한 주민, 환경, 보건 등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특히 이 과제를 남한 혼자 감당하기보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하는 것이 통일비용도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국제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음. 문 교수는 "남북협력을 견인하기 위해선 식량, 보건의료 등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체계적인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아울러 남북통일을 위한 거버넌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대북지원 사업에도 각개별 사업을 조율하고 조정할 사령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칫 북한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것임.

- 문 교수는 지금까지 남북협력을 '우리민족끼리'라는 특수한 정서바탕에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SDGs기반 프레임워크, 원칙, 가치, 절차 등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북, 인도지원 가장 싫어해…남북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 필요(연합뉴스, 11.10)

○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도주의 지원"이라며 그 대안으로 남북 보건의료협력 연구개발(R&D)을 꼽음. 신 회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식 기조발표에서 "이런 (R&D) 교류협력을 통한다면 북한도 받아들이기 쉽고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북한 의료를 현대화할 경우 우리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안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신회장은 특히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서비스 전산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병원·제약공장·연구기관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최고지도자가 직접 챙기는 등 정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함. R&D 협력을 통한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대화를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의 중요한 분야로 제시한 것임.

- 그는 결핵 퇴치, 기생충 감염 진단법 개발, 천연물 신약 개발 등을 남북 보건의료 R&D가 가능한 분야로 언급함.

- 토론 패널로 참석한 주한 미국·유럽연합(EU) 대사관 관계자들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

성을 확인하며 지원을 약속했음. 피터 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과장은 "북한의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위반사항을 잘 알고 있고 유엔 안보리 의결사항은 완벽히 이행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북한 주민의 복지 상황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미국은 핵심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드라이스 벨렛 주한EU대사관 정무관도 "코로나19 이후 (구호 단체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어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짐작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번에 출범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민관이 모여 대북 보건의료협력 관련 모든 의제를 상시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음.

PART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 화폐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
- 상업은행의 대출 원천 타산과 이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나서는 선차적 문제와 주요 방도

KREI

화폐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1)]

원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주체 109(2020년) 제66권 제1호
저자: 한영철

1 서론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경제부문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다.

- 이 과정에서 화폐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현금이 무현금 형태로, 무현금이 현금형태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계획적으로 전환된다.

-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따라 무현금 유통 영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현금 유통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당의 정책과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현금 유통에 대한 조절을 바로 하는 것이다.
- 무현금 유통을 합리적으로 해야 설비, 자재 공급을 비롯한 물자의 유통을 계획적으로 원만히 보장하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화폐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무현금 유통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점은 물자와 화폐가 계획적으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무현금 결제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 맞물림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보장과 원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1) 이 글은 화폐 류통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한영철,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주체 109(2020년) 제66권 제1호)를 권태진(GS&J 인스티튜트) 박사가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 이 논문은 과거의 화폐 유통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화폐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이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이다.

○ 사회주의사회에서 화폐 유통의 계획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물 유통의 계획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 화폐 유통의 개선은 화폐의 유동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물자의 계획적 이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늘어나는 인민 경제의 자금 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촉진케 한다.
- 화폐 유통의 개선 과제는 현금 환류 속도를 높여 경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현금 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화폐 유통의 개선은 저축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더욱 높여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사회주의사회에서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려면 생산부문에 분배된 국민소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빨리 늘리는 한편 소비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분배된 국민소득 가운데서 그들의 당면한 생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남는 부분을 저축의 형태로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화폐 유통의 개선을 통해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무현금 유통에서 물자의 유통에 맞게 화폐 유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 물자의 유통에 맞게 화폐가 원활히 유통되는 경우에만 기업체에 대한 설비, 자재 공급을 비롯한 물자의 유통을 계획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화폐 유통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한다.

-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구해 나가려면 우선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원가, 가격, 수익성은 화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상품을 비롯한 물자의 유통에 맞게 화폐가 원활히 유통될 때에만 기업이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화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현금이 원활히 유통될 때 근로자는 지불받은 화폐소득을 그들의 요구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물질적 자극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생산과 경영 활동이 원활하게 작동된다.

○ 화폐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원화에 의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도 연계된다.

- 원화에 의한 통제는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공간으로 기업체가 계획 및 계약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생산물의 유통을 원만히 실현하도록 자극하며 국가 예산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절약하도록 국가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 원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려면 상품과 근로자들의 화폐소득, 물자와 무현금이 가치적으로 맞물려져야 한다.

○ 화폐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인민 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 화폐 유통의 개선은 근로자의 물질 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상업의 기능을 높이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한다.

2.1. 화폐의 안정성 보장

○ 화폐의 안정성은 화폐 유통을 견고히 하기 위한 본질적 내용이다.

- 화폐 유통의 안정성은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과 화폐의 필요 유통량 사이의 상호관계, 화폐 유통과 생산물 유통의 상호관계로 표현된다.
- 화폐 유통은 현금 유통과 무현금 유통으로 구성되므로 화폐 유통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현금 유통과 무현금 유통을 다 같이 견고하게 해야 한다.
-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산과 유통의 계획적인 성장, 상품가격의 체계적인 인하, 화폐 유통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조절은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 공장에서 상품생산을 정상화하고, 도·시·군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질이 높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상품 원천을 늘리는 것은 유통되는 상품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그만큼 화폐의 상품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면 한 나라의 화폐 유통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선진적인 경제계산 방법을 연구 도입하여야 한다.

-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화조절 방법에는 그 발전단계별로 나라별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자율에 의한 통화조절 방법, 공개시장 조작에 의한 통화조절 방법, 준비금 비율에 의한 통화조절 방법 등이 있다.
-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생산과 유통을 떠난 화폐 유통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통화조절 방법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 생산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2. 현금계획 작성과 집행

○ 현금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 집행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 현금계획은 인민 경제계획, 재정계획 지표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항목을 옳게 설정하고 그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워야 한다.
- 현금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려면 일정한 시기에 주민의 화폐 수입의 총규모와 그 원천 및 주민의 화폐 지출과 그 지출 방향을 반영한 화폐수지균형표에 기초하여야 한다.
- 유통되는 현금은 모두 은행의 출납을 통해 공급되며 유통되는 현금 중에서 기업체 사이에 교환되는 일정한 양의 현금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업체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나가며 그것은 다시 기업체를 통하여 은행에 들어온다.
- 따라서 은행 현금계획의 지출은 주민의 화폐수지균형표에서 수입이 되며 현금계획의 수입은 주민 화폐수지균형표 상 지출이 된다.
- 주민의 화폐수지균형표가 현금계획 작성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방출하고 회수하여 균형을 보장할 때에만 적당한 화폐 유통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정한 지역에서 지출된 화폐는 그 지역에 상품이 부족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상품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지역별 주민 화폐수지균형표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금계획을 지역별로 완성하여야 한다.
- 주민의 화폐수지균형표는 현금 방출과 회수의 균형 보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금계획 작성과 집행에 화폐수지균형표를 적극 이용하여야 현금계획이 인민 경제계획과 재정계획에 철저히 맞물린 계획이 될 수 있고 화폐 유통의 안정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현금계획 집행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 현금계획 집행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려면 우선 현금계획에 따라 현금을 방출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 현금계획에 따라 현금을 방출할 때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다.
- 현금계획에 따라 현금을 회수해야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상업 부문, 편의 봉사부문에서의 현금회수로 은행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금계획 집행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자면 지방별 현금 유통 책임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서 필요한 현금을 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2.3. 금융기관 채산제 운영

○ 금융기관 채산제는 상업은행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 활동 방식이다.

- 금융기관 채산제에서는 자체의 금융 서비스 수입으로 금융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상업은행은 금융거래 활동을 활발히 하여 은행의 수입을 늘리고 그것을 원천으로 여러 가지 금융거래를 진행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은행은 무엇보다 예금과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 기능을 높여 더 많은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켜야 하며 기관, 기업체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다양한 예금 형태를 이용하여 유휴 화폐자금을 동원하여야 한다.
- 은행은 대출금 규모와 상환 기간을 기업체의 생산과 경영 활동 조건을 고려하여 기업체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이나 다른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고 주민 저축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주민 저축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은행은 저금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저금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저금 금고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저금한 돈을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3 결론

○ 화폐 유통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기관, 기업체가 인민 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며 인민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금융부문 일꾼은 금융관리에서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 하며 현금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 집행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 우리는 화폐 유통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더욱 개선하도록 힘써야 한다.

상업은행의 대출 원천 타산과 이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2)]

원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주체 109(2020년) 제66권 제1호
저자: 김영련

1 서론

○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관, 기업소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대부(대출)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대출 공간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화폐 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상업은행의 대출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휴 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가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업 관리,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 기업체가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려면 생산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데 대출은 기업체의 계획적인 생산 활동,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생산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경제적 공간의 한 형태이다.

○ 상업은행의 대출 원천 타산과 그 합리적 이용이 가지는 중요성은 유휴 화폐자금을 적극 동원, 이용하여 나라의 통화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이 글은 상업은행의 대부 원천 타산과 이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김영련,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주체 109(2020년) 제66권 제1호)를 권태진(GS&J 인스티튜트) 박사가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 대출은 은행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대출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은행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화폐 유통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 나라의 통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품생산 및 보장, 통화조절, 원활한 현금 유통을 보장하여야 하며 유휴 화폐자금의 동원과 이용은 상품생산 및 보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게 하는 보충적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화폐 발행이 없이 유통에 필요한 현금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화폐 유통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2 본론

2.1. 대출 원천 타산

○ 상업은행의 대출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출 원천에 대한 타산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다.

- 상업은행의 대출 원천 타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무현금 대출 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것으로 이를 정확히 하려면 무현금 대출 자원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무현금 대출 원천을 타산해야 한다.
- 대출 자원은 은행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자기 수중에 보관하고 있는 화폐자금으로 은행 자체 무현금 잔고, 국가예산 돈자리(계좌) 잔고, 기관, 기업소의 돈자리 잔고 등이 포함된다.
- 무현금 대출 원천 타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가예산 돈 자리 자금 잔고와 기관, 기업소의 돈 자리 자금 잔고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금이 신용 자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돈 자리 자금 이동량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 무현금 대출 원천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관, 기업소 돈 자리 자금 잔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 기관, 기업소의 돈 자리 자금 잔고는 생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그것은 해당 기업소의 경영 활동뿐 아니라 이 기업소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다른 기업소의 경영 활동 형태에 따라 기관, 기업소 돈 자리 자금 수입 및 지출 규모가 부단히 변동되기 때문이다.
- 기관, 기업소 돈 자리 자금 잔고 규모를 파악하려면 먼저 기초 시기의 기관, 기업소 돈 자리 자금 잔고와 하루 평균 돈 자리에 상시 남게 될 자금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 현재 회계연도의 계획 돈자리 자금 잔고 규모와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대로 고려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계획서 작성 당시 기관, 기업소 돈자루에 남아 있는 신용 자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해당 시기에 기관, 기업소 돈자리 자금 잔고 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해당 연도 기관, 기업소에 대한 자금공급, 기관, 기업소의 생산 증감, 생산주기, 경영활동 개선 전망 등이다.
- 그러므로 기관, 기업소의 돈자리 자금 잔고 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 정도를 파악할 때는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자료에 기초한 동태 계열 작성과 함께 그에 대한 분석을 잘 하여야 한다.
- 무현금 대출 원천을 파악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원천 타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 상업은행의 대부 원천 타산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현금 대부 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것이다.

- 현금 대출 원천은 은행이 대출로 돌려쓸 수 있는 일시적 유휴 현금이다.
- 이로부터 현금 대부 원천 규모의 정확성은 은행에 집중된 유휴 현금 중에서 대출로 돌려쓸 수 있는 일시적 유휴 현금의 규모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는가에 달려있다.
- 만일 현금 대출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실제 규모보다 과대평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금이 유통에 나가게 되므로 통화의 안정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며, 반대로 현금 대출 원천을 정확히 타산하지 못하여 실제 규모보다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유휴 현금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그러므로 화폐 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휴 현금을 최대한 경제건설에 동원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현금 대출 원천을 타산하여야 한다.
- 현금 대출 원천 규모는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 계좌에 조성된 대출 원천 규모를 구하고 그것을 단순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대출 원천을 파악하는 목적은 타산 시점에 대출 원천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에 항시적으로 조성된 대출 원천 규모를 파악하자는 데 있다.

○ 현금 대출 원천 규모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기간 저금 계좌에 조성된 대출 원천 규모를 매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 일정한 기간 매일 저금 계좌에 조성된 대출 원천 규모는 일정한 기간 매일 저금 계좌에

조성된 유휴 화폐자금의 전날 잔고에서 매일 지출된 유휴 화폐 규모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대출금이 지출되려면 그만한 유휴 화폐가 계약기간 동안 계좌에 원천적으로 매일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이렇게 지출된 대출과 맞먹는 유휴 화폐가 매일 은행 업무시간 전 돈자루에 원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담보되지 않은 화폐가 유통에 존재하는 시공간적 틈이 생기지 않게 된다.

2.2. 대출 원천의 합리적 이용

○ 상업은행이 대출 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 대출 원천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출 대상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다.
- 무슨 이유로 자금이 모자라며 대출을 받아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출 대상이다.
- 대출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으려는지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담보가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유동자금을 대출 규모로 규정하고 대출을 해주어야 대출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도를 세울 수 있으며 자금의 순환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 대출 이자율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은 기업소의 일시적 자금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화폐의 지나친 유출을 막고 대출도 통제할 수 있다.

- 예금 이자율 수준을 고려하여 대출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은 은행의 대출 이자율 결정의 일반적 원칙이다.
- 대출 이자율이 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은행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상업은행이 금융기관 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 대출 이자율 수입으로 저금 및 예금 이자를 비롯한 경영비를 충당하고 일정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자율을 옳게 정해야 한다.

○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는 대출받는 단위의 신용도도 고려해야 한다.

- 대출받는 단위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출 이자율을 정한다는 것은 기관, 기업소의 대출금 상환기간 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출금 이용의 효과성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화폐 수입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하고 생산 확대, 제품의 질 제고, 생산공정의 기술적 개조 등에 일정한 몫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출 원천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대출 기간을 올바로 정해야 한다.

- 대출 기간이 길면 대출을 받는 단위에서는 대출금 이용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출을 주는 은행에서는 대출 자원의 회전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소득도 적게 생길 뿐 아니라 동원된 유휴 화폐자금의 이용에서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 대출 기간이 짧으면 대출을 받는 단위에서는 대부금 이용의 효과성이 크지 못하지만, 은행은 자원의 회전을 촉진하여 더 많은 신용거래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원 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3 결론

○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인 경제 전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금융관리를 개선하여 기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상업은행은 금융기관 채산제의 요구에 맞게 대출 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기관, 기업소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원만히 보장해 줌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대출 원천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대출 이자율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적용하여 기업체와 생산자가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나서는 선차적 문제와 주요 방도3)

원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주체 109(2020년) 제66권 제1호
저자: 안철주

1 서론

○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는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력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첫째로, 지식경제 시대인 오늘날, 사회의 모든 물질적 부을 창조하는 활동은 지식, 정보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경제활동 전반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둘째로, 오늘날 새로운 기술 개발이 종합화, 첨단화되면서 연구개발비가 급증하는 반면 기술 갱신주기가 계속해서 단축되는 현상은 기술 개발에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면서 개발의 위험도 증대시킨다.
- 셋째로,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나라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높이며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글은 기술무역 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나서는 선차적 문제와 주요 방도(안철주,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주체 109(2020년) 제66권 제1호)를 권태진(GS&J 인스티튜트) 박사가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 이 논문은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의 본질을 밝히고 실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목표를 둔다.

2 본론

2.1.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의 본질은 상품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다.

- 기술의 상품적 특성은 사용가치 측면에서 나타나므로 해당 기술의 기술적 성능과 특성을 시장 수요에 맞게 높여 나가야 한다.

○ 무역상품의 가격은 해당 상품의 생산 비용과 판매비용, 상품의 질적 수준, 국제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수요와 공급 관계, 경쟁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 기술 무역상품의 가격은 개발비용이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관계, 경쟁 관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기본은 해당 기술무역 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기초하는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2.2.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우선 해결 과제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서 기본은 개발 성공을 보장하며 판매를 통해 자체의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경제적 수입을 최대로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 기업체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기술 개발은 그 과정이 새로운 기술의 창조이지만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은 새것의 창조와 함께 개발한 기술성과를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택과 갱신 과정을 포함한다.

- 기술 무역상품의 상업화는 단순히 개발한 기술 무역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이 아니라 판매를 통하여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경제적 수입을 최대로 높여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기술 무역상품의 판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수입의 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우위의 확보이지만 경제적 수입의 증대가 더욱 중요하다.

○ 기술 무역상품 개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개발한 기술의 무역상품에 기초하여 자체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적 수입을 최대로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단위에서 어떠한 제품 생산을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을 상품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 다음으로는 해당 기술 개발 단위에서 기술 무역상품 개발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 무역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2.3.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를 방안

○ 기술 무역상품 개발은 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개발사업과는 다르다.

- 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개발은 빠른 기술발전과 소비자의 기호 변화,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의 대대적인 출현 등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해외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인 자체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사업이다.
- 그러나 기술 무역상품 개발은 기술성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착상과 그 실현이며 기술성과를 상품으로 남에게 팔기 위하여 진행하는 기술 개발이다.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를 올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과 목적에 맞게 실천적 방안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

- 무엇보다 먼저 기업체 내에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여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기술 무역상품 개발의 개발 방향과 개발 품목을 올바로 선택해야 한다.
- 다음으로 기술 표준화를 실현하고 가격과 판매 방식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해외시장에서 해당 기술 무역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다음으로 다른 단위와의 공동연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 있게 펼쳐 기술 무역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체의 새로운 기술 개발 능력을 최대로 높여 나가야 한다.

3 결론

○ 오늘날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해당 나라와 지역에서 무역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만이 아니다.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문제는 해당 기업체의 기술 개발 능력을 높이고 국제기술경쟁력과 시장경제력을 강화하여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 기술 무역상품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과 결부하여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PART 6

부 록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KREI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1)2)3)]

1.1. 곡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북한쌀 (시장가격)	5,411	5,418	4,823	5,779	6,109	5,247	5,170	4,932	4,765	4,912	4,362	5,312	5,332	4,075	4,150	4,143	4,917	4,083	4,225	4,167	4,758
	0.66	0.67	0.60	0.71	0.75	0.65	0.63	0.60	0.58	0.58	0.54	0.68	0.64	0.49	0.49	0.49	0.63	0.61	0.61	0.75	0.82
북한쌀 (국정가격)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중국쌀	4,975	5,015	3,991	4,709	5,127	4,703	4,702	4,467	4,318	4,077	3,943	4,350	4,335	3,675	4,010	3,967	4,512	4,250	4,283	4,162	4,558
	0.60	0.62	0.50	0.58	0.63	0.58	0.58	0.55	0.53	0.48	0.49	0.56	0.52	0.44	0.44	0.47	0.58	0.63	0.62	0.75	0.78
두부콩	4,378	4,403	4,562	4,543	4,442	4,102	4,435	4,392	4,125	3,950	3,852	4,380	3,100	3,035	3,520	3,546	3,367	4,358	4,875	4,075	3,592
	0.53	0.55	0.57	0.56	0.54	0.51	0.54	0.54	0.50	0.47	0.48	0.56	0.37	0.36	0.42	0.42	0.43	0.65	0.71	0.73	0.62
통옥수수 (시장가격)	1,088	1,125	1,175	1,266	2,508	2,214	2,088	1,986	1,950	1,950	1,665	1,645	1,378	1,125	1,320	1,410	1,637	2,317	2,317	2,350	2,350
	0.13	0.14	0.15	0.16	0.31	0.27	0.26	0.24	0.24	0.23	0.21	0.21	0.16	0.13	0.16	0.17	0.21	0.34	0.34	0.42	0.40
통옥수수 (국정가격)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쌀옥수수 (시장가격)	1,653	1,790	2,032	2,027	3,205	2,868	2,820	2,483	2,343	2,057	1,960	2,010	1,692	1,383	1,533	1,725	1,843	2,733	2,767	2,817	2,717
	0.20	0.22	0.25	0.25	0.26	0.35	0.35	0.30	0.29	0.24	0.24	0.26	0.20	0.17	0.18	0.21	0.24	0.41	0.40	0.51	0.47
감자	883	952	893	685	1,077	963	977	933	867	863	828	987	743	553	873	750	857	967	992	958	825
	0.11	0.12	0.11	0.08	0.13	0.12	0.12	0.11	0.11	0.10	0.10	0.13	0.09	0.07	0.10	0.09	0.11	0.14	0.14	0.17	0.14

주1: 북한쌀, 중국쌀, 두부콩, 통옥수수, 쌀옥수수, 감자의 단위는 모두 1kg임.

1) 본 표에 수록된 가격자료는 '엔케이투자개발'이 제공하는 북한 내 6개 주요 시장의 분기별 가격 자료로서, 제공 품목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료품 및 농자재 등 58개 품목임.
2) 각 품목의 단위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kg 당 가격임. 상단의 숫자는 북한 원화 표시 가격, 하단의 숫자는 달러화 환산(암시장 거래 가격 적용) 가격임.
3) 품목에 대한 가격은 매 분기 말 조사된 북한 내 6개 시장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 것으로, 가격이 없는 것은 조사 당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1.2. 채소과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사과 (홍옥)	1,538	1,477	1,578	1,486	1,187	1,147	1,137	1,193	1,143	1,037	978	1,633	975	1,867	1,908	2,292	1,800	2,867	2,883	2,783	2,350
	0.19	0.18	0.20	0.18	0.14	0.14	0.14	0.15	0.14	0.12	0.12	0.21	0.12	0.22	0.23	0.27	0.23	0.43	0.42	0.50	0.40
배추	1,693	1,848	5,677	525	960	1,690	2,223	1,487	1,247	2,942	1,223	2,233	900	1,393	1,392	5,310	3,928	3,667	2,500	2,100	1,600
	0.21	0.23	0.70	0.06	0.12	0.21	0.27	0.18	0.15	0.35	0.15	0.29	0.11	0.17	0.16	0.63	0.50	0.55	0.36	0.38	0.28
무	1,030	1,180	1,992	706	972	1,005	1,340	1,058	715	2,208	983	1,723	635	727	967	3,633	1,693	1,892	2,100	1,743	1,542
	0.13	0.15	0.25	0.09	0.12	0.12	0.16	0.13	0.09	0.26	0.12	0.22	0.08	0.09	0.11	0.43	0.22	0.28	0.31	0.31	0.27
마늘	10,567	9,892	11,458	11,017	9,163	9,033	9,033	8,198	7,018	6,785	7,087	8,812	12,717	11,600	18,367	14,833	13,450	8,667	9,667	10,617	9,083
	1.28	1.23	1.42	1.36	1.12	1.11	1.11	1.00	0.85	0.81	0.88	1.13	1.52	1.39	2.17	1.77	1.73	1.29	1.41	1.91	1.56
팥	5,983	5,766	5,963	5,997	4,379	4,002	4,262	4,310	4,378	4,145	5,557	5,762	3,567	5,650	6,000	4,295	3,762	4,037	4,317	4,850	3,967
	0.73	0.72	0.74	0.74	0.53	0.49	0.52	0.53	0.53	0.49	0.69	0.74	0.43	0.68	0.71	0.51	0.48	0.60	0.63	0.87	0.68
참깨	14,533	13,667	14,567	11,893	7,150	10,517	10,675	11,540	11,367	10,067	11,967	12,067	8,500	9,633	9,750	10,800	9,133	6,817	6,667	7,400	6,583
	1.76	1.70	1.81	1.46	0.87	1.30	1.31	1.41	1.38	1.19	1.48	1.55	1.02	1.15	1.15	1.29	1.17	1.01	0.97	1.33	1.13
양파 (북한산)	6,585	6,200	7,197	7,623	6,435	8,400	8,467	4,967	3,467	4,290	5,040	5,185	3,367	2,250	2,163	1,894	1,425	2,192	2,575	2,208	1,883
	0.80	0.77	0.89	0.94	0.53	1.04	1.04	0.61	0.42	0.51	0.62	0.67	0.40	0.27	0.26	0.23	0.18	0.33	0.37	0.40	0.32
건고추	23,150	21,700	22,342	21,292	13,708	12,500	13,433	12,367	12,350	11,600	11,150	11,617	18,867	17,100	20,017	22,383	20,350	18,167	19,750	19,500	16,717
	2.81	2.70	2.77	2.62	1.67	1.54	1.65	1.51	1.50	1.38	3.53	1.49	2.25	2.05	2.36	2.67	2.61	2.70	2.87	3.51	2.87
호박 (북한산)	1,600	2,133	4,000	925	1,150 (중국산)	1,803 (중국산)	2,100	1,018	-	-	-	5,323	800	-	4,750	4,136	817	1,050	1,750	1,080	708
	0.19	0.26	0.50	0.11	0.14	0.22	0.26	0.12				0.68	0.10		0.56	0.49	0.10	0.16	0.25	0.19	0.12

주1: 사과 단위는 1알(250~300g)임.
주2: 배추, 무, 마늘, 팥, 참깨, 건고추의 단위는 1kg임.
주3: 양파의 단위는 10개임. 2019년 4분기까지는 중국산, 북한산 구분없이 조사되었으며, 2019년 4분기부터는 북한산만 조사함.
주4: 호박의 단위는 1kg이며, 2019년 4분기부터는 북한산만 조사함.

1.3. 임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밤	10,867	10,550	12,917	13,100	10,833	10,067	10,283	10,283	5,183	5,625	6,600	8,025	5,683	4,308	4,592	5,475	4,200	4,433	5,300	10,250	8,383
	1.32	1.31	1.60	1.61	1.32	1.24	1.26	1.26	0.63	0.67	0.82	1.03	0.68	0.52	0.54	0.65	0.54	0.66	0.77	1.85	1.44
꿀	20,442	18,917	20,283	20,283	19,267	18,233	18,933	19,050	16,667	15,700	17,067	14,367	17,917	17,900	19,517	17,317	18,133	17,450	19,283	20,617	17,350
	2.48	2.35	2.52	2.50	2.35	2.25	2.32	2.33	2.03	1.86	2.11	1.84	2.14	2.14	2.30	2.06	2.33	2.60	2.80	3.71	2.98
건표고	33,767	32,567	33,467	31,933	22,500	27,083	27,240	23,500	21,317	20,033	18,700	17,067	14,233	14,600	15,183	14,350	11,883	10,533	12,750	12,983	10,583
	4.10	4.04	4.15	3.93	2.75	3.34	3.34	2.87	2.59	2.38	2.31	2.19	1.70	1.75	1.79	1.71	1.53	1.57	1.85	2.34	1.82

주1: 밤, 꿀, 건표고의 단위는 1kg임.

1.4. 축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돼지고기	11,767	12,850	12,550	13,113	17,533	14,517	13,783	13,393	13,670	15,950	14,783	-	14,333	14,067	12,750	15,715	15,050	14,833	14,933	14,467	17,417
	1.43	1.60	1.56	1.61	2.14	1.79	1.69	1.64	1.66	1.89	1.83		1.71	1.68	1.50	1.81	1.93	2.21	2.17	2.61	2.99
닭고기	26,942	25,950	24,833	25,300	23,300	22,833	23,667	21,900	20,500	19,883	18,667	21,217	21,767	21,833	20,800	25,350	23,250	22,417	22,500	23,750	24,750
	3.27	3.22	3.08	3.11	2.84	2.82	2.90	2.68	2.49	2.36	2.31	2.72	2.60	2.61	2.45	3.02	2.99	3.33	3.27	4.28	4.25
달걀	520	590	618	590	707	642	850	703	705	727	765	733	850	942	967	873	950	1,000	1,050	987	875
	0.06	0.07	0.08	0.07	0.09	0.08	0.10	0.09	0.09	0.09	0.09	0.09	0.10	0.11	0.11	0.10	0.12	0.15	0.15	0.18	0.15

주1: 돼지고기의 단위는 1kg임.
주2: 닭고기의 단위는 1마리(2.3~2.5kg)임.
주3: 달걀의 단위는 1알(55~60g)임.

1.5. 수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냉동명태	13,842	13,192	11,363	11,725	12,125	11,800	11,500	11,950	12,100	12,300	12,933	12,680	14,783	13,767	15,650	22,008	14,333	18,933	20,517	20,017	18,917
	1.68	1.64	1.41	1.44	1.48	1.46	1.41	1.46	1.47	1.46	1.60	1.63	1.77	1.65	1.85	2.62	1.84	2.82	2.98	3.61	3.25
마른명태	5,402	5,540	6,380	7,452	7,392	6,875	6,025	6,167	6,092	6,205	6,260	6,118	8,900	10,233	9,533	9,017	6,392	8,617	9,583	9,400	8,950
	0.66	0.69	0.79	0.92	0.90	0.85	0.74	0.75	0.74	0.74	0.77	0.79	1.06	1.22	1.12	1.07	0.82	1.28	1.39	1.69	1.54
마른낙지	5,000	5,058	5,408	5,025	4,200	4,250	3,492	5,550	5,328	5,383	5,117	5,583	5,008	3,700	4,750	4,833	4,942	4,975	5,400	5,000	4,600
	0.61	0.63	0.67	0.62	0.51	0.52	0.43	0.68	0.65	0.64	0.63	0.72	0.60	0.44	0.56	0.58	0.63	0.74	0.79	0.90	0.79
김	523	524	528	530	510	495	508	507	506	503	504	512	435	455	440	410	415	505	500	477	430
	0.06	0.07	0.07	0.07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7	0.05	0.05	0.05	0.05	0.05	0.08	0.07	0.09	0.07
미역	2,938	3,158	3,687	3,350	3,078	3,030	3,383	4,733	4,355	4,250	3,183	2,662	6,142	6,375	4,767	3,583	3,252	3,633	3,683	3,750	3,567
	0.36	0.39	0.46	0.41	0.38	0.37	0.41	0.58	0.53	0.50	0.39	0.34	0.73	0.76	0.56	0.43	0.42	0.54	0.54	0.68	0.61
소금	525	488	528	630	683	602	607	550	542	505	418	503	430	421	487	453	367	450	425	417	392
	0.06	0.06	0.07	0.08	0.08	0.07	0.07	0.07	0.07	0.06	0.05	0.06	0.05	0.05	0.06	0.05	0.05	0.07	0.06	0.08	0.07

주1: 냉동명태, 미역, 소금의 단위는 1kg임.
주2: 마른명태의 단위는 1마리(약 40cm)임.
주3: 마른낙지의 단위는 중간 크기 1마리임.
주4: 김의 단위는 1장(15*20cm)임.

1.6. 가공식품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밀가루	5,040	5,153	4,900	4,983	5,212	5,025	4,942	3,800	3,933	3,492	3,742	4,243	4,167	3,917	4,125	5,108	4,575	8,200	8,133	8,243	8,742
	0.61	0.64	0.61	0.61	0.64	0.62	0.61	0.46	0.48	0.41	0.46	0.54	0.50	0.47	0.49	0.61	0.59	1.22	1.18	1.48	1.50
밀가루 국수	4,575	4,592	4,450	4,994	5,238	4,940	4,875	4,017	3,900	3,467	3,467	4,433	6,217	6,067	6,483	6,700	7,058	8,600	8,675	8,492	8,808
	0.56	0.57	0.55	0.61	0.64	0.61	0.60	0.49	0.47	0.41	0.43	0.57	0.74	0.73	0.76	0.80	0.91	1.28	1.26	1.53	1.51
강냉이 국수	1,977	2,135	2,030	2,037	2,503	2,212	2,117	2,117	2,167	2,017	1,720	1,623	1,850	1,700	1,592	1,500	1,617	2,192	2,367	2,400	2,333
	0.24	0.27	0.25	0.25	0.21	0.27	0.26	0.26	0.26	0.24	0.21	0.21	0.22	0.20	0.19	0.18	0.21	0.33	0.34	0.43	0.40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두부	1,120	1,125	1,117	1,168	1,145	1,063	1,053	1,017	915	1,000	975	997	967	1,025	967	983	967	1,050	1,050	983	950
	0.14	0.14	0.14	0.14	0.14	0.13	0.13	0.12	0.11	0.12	0.12	0.13	0.12	0.12	0.11	0.12	0.12	0.16	0.15	0.18	0.16
고등어 통조림	8,861	8,545	8,483	8,593	8,496	8,274	8,107	12,083	11,267	12,225	11,583	12,867	11,840	11,717	12,183	12,233	11,283	15,667	15,500	15,500	12,383
	1.08	1.06	1.05	1.06	1.04	1.02	0.99	1.48	1.37	1.45	1.43	1.65	1.41	1.40	1.44	1.46	1.45	2.33	2.25	2.79	2.13
콩기름 (북한산)	12,853	13,513	11,398	9,172	9,955	10,425	10,842	10,835	11,040	10,208	9,733	10,362	10,267	11,808	13,933	14,250	11,350	15,133	16,717	16,917	17,033
	1.56	1.68	1.41	1.13	1.22	1.29	1.33	1.33	1.34	1.21	1.20	1.33	1.23	1.41	1.44	1.70	1.46	2.25	2.43	3.05	2.93
콩기름 (중국산)	10,998	12,033	9,908	7,651	7,863	7,922	8,087	9,112	9,442	7,900	8,950	9,300	9,050	9,053	12,483	11,650	11,450	16,325	17,067	17,133	16,833
	1.33	1.49	1.23	0.94	0.65	0.98	0.99	1.11	1.15	0.94	1.11	1.19	1.08	1.08	1.47	1.39	1.47	2.43	2.48	3.09	2.89
사과 통조림	5,317	5,192	5,067	5,085	4,738	4,815	4,667	5,408	6,058	5,285	5,132	6,862	6,080	6,067	6,152	6,578	7,217	7,083	7,700	7,767	6,833
	0.65	0.64	0.63	0.63	0.58	0.59	0.57	0.66	0.74	0.63	0.63	0.88	0.73	0.73	0.73	0.78	0.93	1.05	1.12	1.40	1.17
사탕가루	6,100	6,052	5,080	5,338	5,618	5,295	5,158	5,048	4,858	4,392	3,975	3,950	4,483	4,383	4,717	5,083	5,947	22,000	24,883	24,433	25,250
	0.74	0.75	0.63	0.66	0.69	0.65	0.63	0.62	0.59	0.52	0.49	0.51	0.54	0.52	0.56	0.61	0.76	3.27	3.62	4.40	4.34
간장	7,033	7,058	6,958	6,992	6,808	6,892	6,583	6,467	6,217	6,067	6,017	5,433	5,767	5,717	5,717	5,233	6,283	7,317	7,467	7,400	7,000
	0.85	0.88	0.86	0.86	0.83	0.85	0.81	0.79	0.76	0.72	0.74	0.70	0.69	0.68	0.67	0.62	0.81	1.09	1.09	1.33	1.20
된장	1,837	1,812	1,802	1,833	1,865	1,918	1,510	1,725	1,577	1,420	1,300	1,278	1,042	2,058	1,975	2,242	2,308	2,542	2,675	2,450	2,000
	0.22	0.23	0.22	0.23	0.23	0.24	0.19	0.21	0.19	0.17	0.16	0.16	0.12	0.25	0.23	0.27	0.30	0.38	0.39	0.44	0.34
고추장	10,908	10,823	10,983	11,650	11,325	11,225	10,008	10,200	10,117	9,467	9,450	10,175	12,083	13,250	14,617	14,817	14,800	17,967	17,717	17,500	16,367
	1.32	1.34	1.36	1.43	0.93	1.39	1.23	1.25	1.23	1.12	1.17	1.31	1.44	1.58	1.72	1.77	1.90	2.67	2.58	3.15	2.81
맛내기 (조미료)	9,080	9,273	9,273	9,858	9,998	9,827	9,958	9,887	9,767	9,517	9,368	9,040	7,083	6,933	6,463	9,783	10,700	12,333	16,317	15,667	15,833
	1.10	1.15	1.15	1.21	1.22	1.21	1.22	1.21	1.19	1.13	1.16	1.16	0.85	0.83	0.76	1.17	1.37	1.83	2.37	2.82	2.72
사과주스	-	-	-	-	-	-	-	-	-	-	-	-	-	2,767	2,987	3,067	2,850	2,717	2,767	2,812	2,400
														0.33	0.35	0.37	0.37	0.40	0.40	0.51	0.41
생수 (신덕샘물)	533	537	542	502	1,270	1,083	1,417	1,233	1,250	1,283	1,152	1,175	1,050	1,000	1,225	1,225	1,075	1,067	1,100	1,050	1,033
	0.06	0.07	0.07	0.06	0.16	0.13	0.17	0.15	0.15	0.15	0.14	0.15	0.13	0.12	0.14	0.15	0.14	0.16	0.16	0.19	0.18
맥주	1,450	1,440	1,517	1,517	1,503	1,525	1,543	2,475	2,342	2,218	2,208	2,315	1,467	7,767	9,633	9,850	9,700	9,667	9,817	9,667	10,417
	0.18	0.18	0.19	0.19	0.12	0.19	0.19	0.30	0.28	0.26	0.27	0.30	0.18	0.93	1.14	1.17	1.25	1.44	1.43	1.74	1.79

주1: 밀가루, 강냉이국수, 콩기름(북한산, 중국산), 사탕가루, 고추장의 단위는 1kg임.
주2: 밀가루국수의 단위는 1kg이며, 2019년 3분기부터 청수국수로 조사됨.
주3: 두부의 단위는 1모(500g)임.
주4: 고등어통조림 단위는 1개(350g)이며, 2019년 4분기에서만 단위가 1개(450g)으로 조사됨.

주5: 사과통조림의 단위는 1캡(350g)임.
주6: 간장은 군용간장이며, 단위는 1kg임.
주7: 된장은 2019년 3분기까지는 막된장이, 2019년 4분기부터는 된장이 조사됨. 단위는 1kg임.
주8: 맛내기의 단위는 450g임.
주9: 사과주스는 탄산이 첨가된 것이며, 단위는 1병(500ml)임.
주10: 생수(신덕샘물)의 단위는 1병(500ml)임.
주11: 맥주는 2019년 3분기까지는 룡성맥주가 조사되었으며, 2019년 4분기부터는 대동강맥주가 조사됨. 단위는 두 가지 모두 1병(500ml)임.

1.7. 비료 및 농자재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비닐 박막	792	967	1,030	1,015	1,097	1,195	1,230	1,085	1,158	1,353	1,438	942	1,037	978	1,108	2,275	1,933	1,967	2,533	2,767	2,517
	0.10	0.12	0.13	0.12	0.13	0.15	0.15	0.13	0.14	0.16	0.18	0.12	0.12	0.12	0.13	0.27	0.25	0.29	0.37	0.50	0.43
삽	15,010	15,300	15,500	15,200	14,667	12,583	12,833	12,833	11,483	10,667	6,662	7,533	5,267	5,050	5,033	5,008	5,100	5,250	5,000	5,000	5,000
	1.82	1.90	1.94	1.87	1.79	1.55	1.57	1.57	1.40	1.27	0.82	0.97	0.63	0.60	0.59	0.60	0.65	0.78	0.73	0.90	0.86
호미	5,075	5,083	5,450	5,617	5,167	5,167	5,183	5,350	5,433	5,127	4,200	4,000	4,700	4,750	4,923	5,008	5,117	5,033	5,050	5,050	5,000
	0.62	0.63	0.68	0.69	0.63	0.64	0.64	0.65	0.66	0.61	0.52	0.51	0.56	0.57	0.58	0.60	0.66	0.75	0.73	0.91	0.86
낫	5,692	5,455	5,467	5,550	5,217	5,008	5,008	5,125	5,258	5,025	3,992	5,583	4,667	4,667	4,667	5,167	5,067	5,000	5,000	5,000	5,417
	0.69	0.68	0.68	0.68	0.64	0.62	0.61	0.63	0.64	0.60	0.49	0.72	0.56	0.56	0.55	0.62	0.65	0.74	0.73	0.90	0.93
수동 분무기	99,667	97,333	99,000	99,000	96,583	91,083	91,083	12,750	11,467	-	16,567	47,750	-	47,167	53,333	62,833	61,833	62,000	63,417	65,667	64,167
	12.10	12.09	12.28	12.18	11.79	11.24	11.16	1.56	1.40		2.05	6.13		5.64	6.29	7.49	7.94	9.22	9.22	11.83	11.03
질소비료	2,177	2,013	2,142	1,955	1,378	998	1,003	1,152	990	1,000	925	2,217	1,342	1,183	1,983	1,775	1,575	1,033	933	1,025	892
	0.26	0.25	0.27	0.25	0.17	0.12	0.12	0.14	0.12	0.12	0.11	0.28	0.16	0.14	0.23	0.21	0.20	0.15	0.14	0.18	0.15

주1: 비닐박막은 중국산으로 단위는 1m임이며, 얇은 것임.
주2: 질소비료의 단위는 1kg임.
주3: 삽, 호미, 낫, 수동분무기의 단위는 1개임.
주4: 수동분무기는 2020년 1분기부터 북한산만 조사하고 있으며 단위는 1개(15L)임.

1.8. 전기제품 당 전기료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믹서기 전기료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0.18	0.18	0.18	0.18	0.22	0.27	0.28
밥솥 전기료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24	0.24	0.24	0.24	0.29	0.36	0.34
다리미 전기료															700	700	700	700	700	700	700
															0.08	0.08	0.08	0.08	0.10	0.13	0.12
TV 전기료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0.18	0.18	0.18	0.18	0.22	0.27	0.26
고데기 전기료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06	0.06	0.06	0.06	0.07	0.09	0.09

주1: 상기 5개 품목의 가격은 2020년 1분기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주2: 믹서기, 밥솥, 전기다리미, TV, 고데기는 모두 중국산이며 단위는 1대임.

1.9. 환율

환율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2019_1	2019_2	2019_3	2019_4	2020_1	2020_2	2020_3	2020_4	2021_1	2021_2	2021_3
1달러	8,240	8,052	8,061	8,126	8,190	8,103	8,162	8,177	8,217	8,426	8,097	7,790	8,734	8,362	8,478	8,393	8,388	6,722	6,878	5,552	5,817
1위안	1,263	1,206	1,174	1,218	1,239	1,161	1,206	1,246	1,281	1,239	1,247	1,212	1,187	1,175	1,248	1,185	1,174	990	995	707	598

E02-2021-03 KREI 북한농업동향 제23권 제3호

찍 은 날	2021. 12. 펴 낸 날 2021. 12.
발 행 인	김 홍 상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820-2000) 우)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 02-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